

大韓帝國 軍事教範集 1

步兵操典

金元權 編譯

國防軍史研究所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發刊辭

.....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910)은 자주독립 국가로서 새로이 태어나기 위한 제반 시책의 일환으로써 군제(軍制)를 개편하여 신식군대(新式軍隊)를 교육·훈련시키기 위하여 각종 군사교범류를 발간하여 활용하였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거의 사장(死藏)되어 있는 실태이다.

당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교범들을 오늘에 되살려서 관계기관이나 각급 군부대에 널리 보급함으로써 비록 짧은 시기였으나 국가가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던 당시의 군사제도 개혁의 의지와 방향 그리고 군사교리 및 교육훈련체제 등을 이해함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군사분야 관계자들이 이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대한제국군사교범집(大韓帝國軍事教範集)』으로 번역,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 간행하는 『보병조전(步兵操典)』은 교범의 성격과 비중을 감안하여 볼 때 군사의 입문서(入門書)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첫번째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 『보병조전』은 1898년(光武 2년)의 개정판이 나온지 8년 후인 1906년(光武 10년)에 발간된 것으로서, 시기적으로 보아 그동안 수정 보완을 거친 대한제국의 마지막 발행본이라 사료된다.

본서의 내용은 교련의 목적—지휘관 및 병사들을 훈련하여 전

쟁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등을 개괄적으로 규정한 총칙을 비롯하여 제1부 기본교련과 제2부 전투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다시 장(章)으로 구분하여 각개교련으로부터 여단 전투 규모까지의 부대훈련 사항들을 수록하였으며, 끝으로 군기(軍旗)에 관한 예절과 군도(軍刀)의 휴대방법 등을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대한제국의 군사교리와 교육훈련체제를 연구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믿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군사방침, 전술, 전기 그리고 교육훈련 등의 분야에서 시대적인 비교와 발전과정을 검토하는 데에도 참고가 되리라 하고 확신하는 바이다.

앞으로 우리 국군의 전통 확립과 그 계승을 위하여는 이러한 사료들을 계속 발굴하고 널리 보급하는 작업이 부단히 이어져야 하겠으며, 당연구소에서는 스스로 이 과업을 담당하여 향후 계속 사업으로서 추진하고자 한다.

국군(國軍) 장병은 물론, 이 분야에 뜻을 가진 모든 분들의 관심과 폭넓은 참여 그리고 협력을 바라마지 않으며, 끝으로 자료의 제공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국립중앙도서관(國立中央圖書館)과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의 관계관 제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1998년 8월 일

國防軍史研究所 所長 朴 淳 贊

일러두기



1. 이 책자의 번역 대본은, 인쇄본인 『步兵操典』(大韓帝國 議政府, 1906년, 光武 10年)이다.
2. 번역은, 원문의 뜻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직역을 피하고, 가능한 한 현대문으로 쉽게 번역하였으며, 원문의 뜻을 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역한 부분도 있다.
3. 군사술어나 명칭 또는 구령 등은 현행 야전교범인 제식훈련/의식(육군본부, 1994), 각개전투(육군본부, 1993)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4.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장은 한글 위주로 기술하되, 당시의 독특한 관용어는 괄호 안에 원어를 소개하고 또한 난해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용어 등도 괄호 안에 한자(漢字)를 삽입하였다.
5. 역주(譯註)는, 원문 내용중 풀어쓰기가 부적절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어휘 및 관용어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각주(脚註)를 붙였다.
6. 원문은, 오자와 탈자를 상호 관련성이 있는 다른 교범들과 대조하여 해당되는 글자나 표시 등을 수정 보완하여 별도로 종합 정리한 ‘원문의 정오표’와 함께 뒤에 부록으로 실었다.
7. 원문의 목차가 장으로만 구분되어 있으나, 편의상 이를 다시 절(제 1절, 제 2절), 항(1, 2), 목(가, 나)으로 세분하였다.

詔 書

詔書에서,

“지난번에 頒布한 『步兵操典』이란 책은 실제로 전쟁에 관한 내
용의 維持와 教育의 順序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 세계의 軍政이 날마다 進歩하고 있으므로 옛 規範만을 固
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에 原書를 參酌하고 改訂하여 국내 모
든 部隊에 頒布하니 이를 모두가 경건히 遵守하고 違反하지 말
것이며 힘써 노력하여 精銳軍이 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¹⁾

詔曰 曩者所頒步兵操典
一書 實爲軍記之維持及
教育之順序矣 現今宇內
軍政日以進歩 誠不可獨
守舊規 茲將原書參酌改
訂 頒示中外軍旅 其各欽
遵 無違 勉臻精銳

1) 이는 머리글의 형식으로 광무(光武) 10년(1906년) 8월에 당시의 의정부(議政府) 참정대신(參政大臣)이 고종황제(高宗皇帝)의 조서(詔書)를 옮겨 놓은 것이며, 특별히 원문(原文)도 그 아래에 함께 수록하였다.

목 차

- 發刊辭
- 일러두기
- 詔 書

總 則	1
-----------	---

第1部 基本教鍊	5
----------------	---

第1章 各個教鍊	7
----------------	---

第1節 總 則	7
---------------	---

第2節 徒手教鍊	8
----------------	---

第3節 執銃教鍊	15
----------------	----

第4節 散兵教鍊	27
----------------	----

第2章 小隊教鍊	31
----------------	----

第1節 總 則	31
---------------	----

第2節 密集隊形	32
----------------	----

第3節 散開隊形	49
----------------	----

第3章 中隊教鍊	59
----------------	----

第1節 總 則	59
---------------	----

第2節 密集隊形	60
----------------	----

第3節 散開隊形	75
第4章 大隊教鍊	79
第1節 總 則	79
第2節 大隊 基本隊形	80
第3節 戰鬥展開	88
第5章 聯隊教鍊	91
第1節 總 則	91
第2節 聯隊の 集合隊形	92
第3節 集合隊形の 行動	93
第4節 戰鬥展開	93
第6章 旅團教鍊	95
第1節 總 則	95
第2節 旅團の 集合隊形	95
第3節 集合隊形の 行動	96
第4節 戰鬥展開	96
第2部 戰 闘	97
第1章 一般原則	99

第1節 緒 言	99
第2節 練兵場 效力	100
第3節 散開隊形 吳 密集隊形	102
第4節 散開戰鬥	104
第2章 部隊戰鬥	133
第1節 中隊戰鬥	133
第2節 大隊戰鬥	137
第3節 聯隊戰鬥	140
第4節 旅團戰鬥	143
第3章 結 論	147
附 錄	151
軍旗 迎送	153
原文의 正誤表	157
■譯者後記	159

總 則



제1 교련(敎鍊)의 목적은 지휘관 및 병사들을 훈련하여 전쟁에 이바지하는데 있으므로 제반 연습을 통하여 전쟁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릇 전쟁에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점은 전력(全力)을 다하여 엄정한 군기 및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연병장 및 야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연습은 바로 이 특유한 성질을 양성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전쟁은 모든 것이 간명(簡明)하여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으므로 몇 개의 간단한 제식(制式)을 훈련하고 응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제식은 엄격한 수련을 통하여 확실히 시행함을 필요로 한다. 조전(操典)¹⁾에서 보이는 원칙은 기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본뜻을 깨우치면 평화시나 전쟁시의 두 경우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절대로 허식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 중대장 이상의 모든 부대장은 조전에 맞추어 그 부하들을 교육할 책임이 있으며, 그 교육 방법의 선정에는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직속 상관은 부하의 교육이 부진하거나 과실이 발견될 때는 바로 교정(矯正)할 의무가 있다.

1) 조전(操典) : 현재의 군사교범(軍事敎範 : Manual)을 뜻하며, 이는 군사방침, 전술, 기술, 교육훈련 등에 따르는 지시와 장비, 검사 등의 참고사항을 기술한 간행물로서 야전교범과 기술교범이 있다.

제3 중대에서는 보병 각개 병사에 필요한 교련을 연마하고, 이 교련은 대대에서 밀집대형(密集隊形)으로 확장되고 연대 및 여단에서는 다시 취립(聚立)²⁾ 대형(隊形)으로 편성된다.

대대에서는 전투 교련의 기초를 확고히 양성하여 각 중대의 제반 전황에 맞추어 협동이 이루어져야 보병의 제전법(諸戰法)의 기초가 달성되는 것이다.

연대에서는 교육 및 지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통일되게 양성하여야 하며, 연대가 특히 여단에서 행하는 연습은 고급 용병술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각급 지휘관은 조전의 모든 내용을 실제로 훈련하고 그 정신을 깨달아 조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완비시킬 책임이 있다.

제4 동일한 내용의 교련을 장시간 계속 훈련하면 병사들의 정신 및 신체가 피로해지므로 연습 내용을 변경하고 훈련시간 및 방법은 병사들의 능력과 체력에 적당하도록 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태만으로 인하여 군기를 해치게 되는 것이다.

제5 각종의 지형에서 모든 연습을 가능한 한 많이 실시함으로써 연병장 연습에서의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6 전시편성으로 된 부대가 실시하는 연습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시행할 기회가 있을 때는 연병장 및 야외에서 시행하여야 된다.

제7 호령³⁾[號令 : 이하 '구령(口令)'으로 기술한다]은 예령(豫

2) 취립(聚立)은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선다는 뜻이며, 취립대형은 밀집대형보다 더 큰 규모이다.

3) 호령(號令) : 현대에 맞게 '구령'으로 수정하였다.

令) 및 동령(動令)으로 구분된다. 예령은 명료하고 길게, 동령은 쾌활하고 짧게 목소리를 내고, 동령과 예령 사이에는 적당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구령이 활발한 때는 동작도 활발해지므로 구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과 활발한 음성으로 내려야 한다. (조전에서는 예령과 동령을 글자 2개의 거리만큼 띄어서 구분하였다.)

장교는 행진방향 또는 행진의 정지를 지시할 때에 군도(軍刀)로써 신호를 하는데, 행진에는 칼을 높이 들며 정지에는 칼을 들었다가 바로 밑으로 내린다. 장교는 호루라기를 가지고 사격 중지 구령을 내리고 이후에 다른 지시를 내리기 위하여 부하의 주의를 환기(喚起)시킨다.

제8 조전에 계시(揭示)한 구령과 기호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칙이다. 구령으로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第 1 部

基本教鍊

第1章

.....

各個教練

第1節 總 則

제1 각개교련(各個教練)은 부대교련(部隊教練)의 기초이므로 체조(體操)로써 보충하면서 세밀하게 마음을 쓰고 엄격하게 가르쳐야 하며, 각개교련이 완전하지 못하면 부대교련을 시행하지 못하게 된다.

신병교육(新兵教育)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복무중에 교정(矯正)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처음 교육시에 잘못 익혀진 과실은 이미 굳어져 버려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어려우며, 부대교련을 통하여 보완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병사들을 정성을 다하여 교육시켜 숙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연습의 진도를 급하게 하지 말 것이며 반복연습을 싫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第2節 徒手教鍊

1. 부동자세(不動姿勢)

제2 구 령(口令)

기착(氣着)⁴⁾

두 발꿈치를 1개 선상(線上)에 가지런히 하여 붙이고, 양발은 90도 보다 조금 좁게 벌린 모양으로 바깥쪽을 향하고, 두 무릎은 교차되지 않도록 펴고, 상체는 똑바로 허리를 펴되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양어깨는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끌어당겨 똑같이 내리고, 양팔도 자연스럽게 내려뜨리고 손바닥은 넓적다리에 붙이되 무명지(無名指 : 넷째 손가락)⁵⁾는 바지의 봉선 뒤에 붙이고, 머리는 똑바로 또한 자연스럽게 유지하며, 목도 똑바로 하고 턱을 당기며 두 눈은 전면(前面)을 똑바로 바라본다.

제3 휴식할 때는 좌⁶⁾(左 : 이하 ‘다음’으로 기술한다)의 구령을 내린다.

휴식(休息)

자세를 흐트러지게 하여도 되지만, 한쪽 발만은 그 자리에 두

4) 기착(氣着)은 「차렷」을 뜻한다.

5) 다섯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인 무지(拇指)로부터 차례로食指(食指) 또는 인지(人指), 중지(中指), 약지(藥指) 또는 무명지(無名指), 소지(小指)이다.

6) 좌(左) : 원문(原文)이 ‘세로쓰기’로 되어 있으므로 사용된 용어이나, 번역문은 ‘가로쓰기’로 되어 있으므로 ‘다음’으로 편의상 수정하였다.

고 그 곳에 서서 쉬는 것이다.

「휴식」 구령이 있을 때까지는 교련중 임의로 움직여서는 안 되며 또한 휴식중이라도 담화(談話)는 금한다.

2. 방향전환(方向轉換)

가. 우(좌)향 및 반우(좌)향

제4 구 령

우(좌)향 우(좌)

혹은

반우(좌)향 우(좌)

오른발(왼발)의 끝과 왼발(오른발) 뒤꿈치를 조금 올리고 오른쪽(왼쪽) 발뒤꿈치와 왼발(오른발)의 끝으로 원(圓)의 1/4(90도) 혹은 1/8(45도)을 우(좌)로 돌고 뒤의 발뒤꿈치를 앞의 발뒤꿈치로 끌어당겨 같은 선상에 가지런히 가져다 놓는 것이다.

나. 우회전(右回轉)

제5 구 령

회(廻)「돌아」⁷⁾ 우(右)

오른발을 그 방향(오른쪽)의 뒤로 끌어서 발끝을 왼발의 뒤꿈

7) 구령이 글자의 음과 실제 발성음이 다른 경우에 글자 다음에 실제 발성음을 「」에 표기한 것이다.

치에 붙이고 두 발끝을 조금 위로 하여 오금을 구부리지 않고 양 발뒤꿈치로 뒤로 돌아서 오른 발꿈치를 왼쪽 발꿈치에 끌어다가 붙인다.

제6 세위총 자세에서 방향전환을 할 때는 오른손으로써 총을 조금 올려서 허리에 지탱하고 동작이 끝나면 총을 땅에 세운다.

3. 행 진(行進)

가. 평보(平步)⁸⁾

제7 평보는 1보(步)의 길이가 발꿈치에서 발꿈치까지 75cm⁹⁾이고 그 속도는 분당(分當) 114보이다.

구 령

전(前)「앞으로」진(進)「가」

동령이 내리면 왼쪽 다리를 가볍게 굽혀서 앞쪽으로 나아가되 발끝을 조금 아래로 하고 또 바깥쪽으로 향하며, 윗몸을 조금 앞으로 향하여 오른발로부터 75cm 되는 곳에 다리를 펴면서 일부러 지면을 차지 말고 바르게 내디디며, 오금은 지면을 누르면서 펴고 체중을 모두 지면에 디딘 발 위로 옮기며, 왼발을 디딤과 동시에 오른쪽 발꿈치를 땅에서 들어 왼쪽 다리에서 설명해 보인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내서 같은 거리(75cm)에 내디디면서 행진을 계속한다.

8) 평보(平步) : '바른 걸음' 과 동일하다.

9) cm : 당시에는 유사한 발음이 나는 한자로 산지미돌(珊知米突)이라고 하였다.

양발은 꼬이지 않게 하면서 무릎은 지나치게 높이 올리지 않고 양어깨는 굽히지 말며 머리는 바르게 하고 두 팔은 자연스럽게 흔든다.

제8 구 령

분대(分隊) 입「서」

뒤의 발을 앞의 발에 끌어당겨서 서는 것이다.

제9 평보로 행진할 때에 행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보조지(步調止) 「보조 그쳐」

정규(正規)의 보법을 지키지 않고 평보의 속도로써 자세를 바로 [열과 오를 어지럽히지 않으며 총을 똑바로 어깨에 붙이고 횡대(橫隊)에 있을 때는 열간(列間) 거리를 80cm로 벌릴 것] 하고 행진한다.

다시 정규의 보법(정규의 열간 거리로 돌아갈 것)을 취하게 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평보로 진(進)「가」

정지간 보조(步調)를 취하지 않고 행진을 시킬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보조없이 전「앞으로」진「가」¹⁰⁾

10) 보조없이 앞으로 가 : '제절음으로 가'와 동일하다.

나. 퇴보(退步)¹¹⁾

제10 퇴보는 짧은 거리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 속도는 평보와 같다.

구 령

후(後)「뒤로」진「가」

왼발을 뒤로 물리며 가볍게 오금을 굽혀 앞발에서 약 반보(半步) 되는 곳에 디디고 다음에 오른발도 같은 동작으로 연속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제11 구 령

분대 입(立)「서」

앞에 있던 발을 뒤에 있는 발에 끌어다가 붙이고 서는 것이다.

다. 구보(驅步)¹²⁾

제12 구보는 1보(步)의 길이가 약 85cm이고 그 속도는 분당 약 170보이다.

구 령

구보로 진「가」

예령에 두 손을 쥐어 허리 높이에 올리고 팔꿈치를 뒤로 향한다.

동령에 왼발이 앞으로 나가는데 그 방법은 발을 조금 구부리며

11) 퇴보(退步) : '뒤킨걸음' 과 동일하다.

12) 구보(驅步) : '뒤킨걸음' 과 동일하다.

무릎을 위로 약간 올리고 발끝을 내리되 오른발로부터 85cm되는 곳에 디디며,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오른발을 앞으로 내보내되 항상 체중을 내디딘 발에 옮기고 두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연속으로 행진한다.

「분대 서」 또는 「평보로 가」의 구령에 정지하거나 또는 평보로 바꾸고 곧바로 두 손을 내린다.

라. 족답(足踏)

제 13 행진을 하고 있을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답보(踏步)¹³⁾로 진「가」

연속으로 행진하지 않고 조금 무릎을 굽히고 두 발을 서로 교대로 내디디되 보조를 맞추고, 재차 행진하도록 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전「앞으로」진「가」

마. 환보(換步)¹⁴⁾

제 14 행진하고 있을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환보로 진「가」

위로 올린 발을 앞에 내디디고 뒤의 발을 내디딘 발의 뒤에 끌어다가 붙이며 앞에 내디딘 발로써 행진한다.

13) 답보(踏步) : ‘제자리 걸음’ 과 동일하다.

14) 환보(換步) : ‘걸음 변경’ 과 동일하다.

바. 횡보(橫步)¹⁵⁾

제 15 횡보는 좌우측으로 몇 걸음을 이동하는 것으로, 그 보폭은 약 25cm이고 그 속도는 평보와 거의 비슷하다.

구 령

우(좌) 횡보로 진「가」

오른쪽(왼쪽)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오른발(왼발)이 먼저 나아가고 왼발(오른발)을 오른발(왼발)에 붙여서 연속으로 옆으로 나아가며 「분대 서」의 구령에 선다.

사. 행진간의 우(좌)향 사행진(斜行進) 및 우(좌)¹⁶⁾ 전향

제 16 구 령

우(좌)향 전「앞으로」 진「가」

왼발(오른발)을 앞으로 디디고 그 발끝으로 몸을 오른쪽(왼편)으로 돌리고 오른발(왼발)을 새로운 방향으로 딛고 나아가면서 연속 행진한다.

제 17 구 령

사(斜)「빗겨」 우(좌)로 진「가」

왼발(오른발)을 앞으로 디디고 그 발끝으로 몸의 절반을 오른쪽(왼편)으로 돌리고 오른발(왼발)로써 새로운 방향으로 행진한다.

15) 횡보(橫步) : ‘옆걸음’과 동일하다.

16) 우(좌) : 원문에는 ‘우’로만 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좌)’를 추가하였다.

다.

다시 본래의 행진 방향으로 돌아올 때는 「앞으로 가」의 구령을 내리며, 병사들은 사행진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정면에 복귀하여 행진한다.

제18 구 령

회(廻)「돌아」우편 전「앞으로」진「가」

왼발을 앞으로 내디디고 그 발끝으로 뒤로 돌며 오른발을 왼발에 끌어다 붙이고 왼발로 행진한다.

제19 우회전하여 바로 정지시킬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회「돌아」우편 입「서」

왼발을 앞으로 내디디고 그 발끝으로 뒤로 돌고 오른발을 왼발에 끌어다 붙이고 선다.

第3節 執銃教練

제20 집총교련은 도수교련이 어느 정도 숙달된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1. 집총요령

제21 일반적으로 총을 다루는 방법은 팔과 손으로써만 조작하므로 다른 신체 부분은 똑바로 하여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총을 두드려서 소리가 나게 하거나 또 개머리판 뒷모서리를 땅에 부딪

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두 손을 동시에 총에서 놓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쥐고 있어야 하며, 기타 여러 가지 동작은 평보의 속도와 같다.

가. 세워총 자세

제22 구 령

기 착

부동자세를 취하고 오른손으로 총을 잡되 총신을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 위치시키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집게손가락과 함께 오므려서 가볍게 구부려 총대에 대고, 총구는 오른팔로부터 한주먹(약 10cm) 가량 떨어지게 총신을 뒤로 하며 개머리판은 오른발끝옆(우족첨방 : 右足尖傍)¹⁷⁾에 위치하고 총신을 수직으로 바로 보유한다.

제23 세워총 하고 있으면서 휴식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휴 식

가늠쇠가 부딪치지 않도록 총을 쥐고 그곳에서 휴식을 하며 기타는 제3(휴식 요령)과 동일하다.

나. 세워총에서 어깨총

제24 구 령

17) 우족첨방(右足尖傍) : 원문에는 좌족(左足)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오른손으로써 총을 잡으므로 우족(右足)으로 수정하였다.

견「어깨」총

제1동작(動作) : 오른손으로 총을 잡고 어깨 높이로 올리며 총신을 오른쪽으로 하여 똑바로 하는 동시에 왼손으로 가슴자 아래를 잡고 팔을 내려서 가볍게 몸에 붙인다.

제2동작 : 왼손으로 총을 조금 올려 총신을 앞으로 절반쯤 향하게 하고 오른손을 펴서 개머리판을 잡되 집게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 사이에 개머리판의 끝부분을 끼운다.

제3동작 : 오른손으로 총을 오른쪽 어깨에 올려 놓는데, 총신을 위로 하고 왼손을 노리쇠뭉치 위에 붙이고 오른팔은 가볍게 몸에 붙이고 멜빵아랫고리를 몸으로부터 10cm쯤 떨어지게 하며, 총은 상의(上衣)의 단추선과 평행하고 노리쇠손잡이는 대략 첫번째와 두번째 단추구멍의 중간 높이와 같도록 한다.

제4동작 : 왼손을 내린다.

다. 어깨총에서 세워총

제25 구 령

입「세워」총

제1동작 : 오른손을 펴서 총을 내리되 총신을 오른쪽으로 절반 정도 틀어서 똑바로 하고 왼손으로 가슴자 아래를 잡고 팔을 내려 가볍게 몸에 붙인다.

제2동작 : 왼손으로 총을 내려 총신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오른손으로 목질부분의 중앙부를 잡는다.

제3동작 : 총신을 뒤로 하고 새끼 손가락을 목질부분 위에 붙

여서 오른쪽 허리에 지탱하는 동시에 왼손을 내린다.

제4동작 : 총을 땅 위에 세운다.

라. 세워총에서 받들어총

제26 구 령

봉(捧)「받들어」총

제1동작 : 오른손으로 총을 올려 몸의 중앙 앞에 오도록 하되 총신을 뒤로 하여 똑바로 하고 동시에 왼손으로 총을 잡는데 집게손가락은 목질부분의 하단과 나란히 하고 엄지손가락은 총대와 나란히 하며 왼팔을 가볍게 몸에 붙이되 수평이 되도록 한다.

제2동작 : 오른손으로 가볍게 총목을 잡는다.

마. 받들어총에서 세워총

제27 구 령

입「세워」총

제1동작 : 오른손으로 목질부분의 중앙부를 잡고 오른쪽 팔꿈치를 가볍게 몸에 붙인다.

제2동작 : 오른손으로 총을 내려서 오른쪽 허리에 지탱하고 동시에 왼손을 내린다.

제3동작 : 총을 땅 위에 세운다.

2. 꽃아칼 및 빼어칼

제28 대검(帶劍)¹⁸⁾을 꽃고 빼는 것은 정지와 행진간에 공히 행하며 ‘꽃아칼’ (착창 : 着創)이나 ‘빼어칼’ (탈창 : 脫創)이 끝나면 총을 원위치로 복귀시킨다. 대검을 꽃거나 빼는 것은 병사들로 하여금 그 방법을 알게 하는 데 있다.

가. 꽃아칼

제29 구 령

착「끼어」¹⁹⁾ 창

세워총 한 때는 오른손으로 총을 왼쪽으로 기울여 총신을 조금 오른쪽으로 틀고, 총구를 대략 몸의 가운데에 두되 가슴으로부터 10cm 정도 사이를 떼며 왼손으로 칼의 손잡이를 거꾸로 쥐고 칼을 뽑아서 확실하게 총에 꽃고 두 손으로 총을 세워 세워총의 자세로 돌아간다.

나. 빼어칼

제30 구 령

탈「빼어」 창

18) 대검(帶劍) : 원문에서는 총창(銃創)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때의 ‘創’은 상처를 뜻하는 글자로 ‘총으로써 상처를 내게 한다’는 의미로 대검을 지칭한 것이다.

19) 「끼어」 : 원전의 기록을 그대로 수록하였으나 현대에 맞게 하려면 ‘꽃아’이다.

세워총을 한 때는 꽃아칼과 같은 방법으로 총을 왼쪽으로 기울여 왼손으로 칼의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을 올려 그 엄지손가락으로 칼손잡이의 멈치(대검 멈치)를 누르고 왼손으로 칼을 빼서 오른쪽으로 거꾸로 하되 칼끝을 아래로 하고 오른손의 집게손가락, 가운데손가락 및 엄지손가락으로 칼날을 잡고 그 나머지 손가락(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은 총을 보지하며, 왼손을 바꾸어 손잡이를 잡고, 칼집의 입구에 시선을 주면서 칼을 완전히 칼집에 집어 넣는다. 왼손으로 윗덮개의 아래를 잡고 오른손을 내려서 목질부분의 가운데를 잡아 두 손으로 총을 세워 세워총의 자세로 돌아간다.

3. 장 전(裝填)

제31 장전은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배우고 연습하여 숙달함을 필요로 한다. 이는 병사들이 정지간이나 행진중에도 또한 주야(晝夜)의 구별이 없이 어떠한 자세를 막론하고 확실히 그리고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장전의 신속함이 요구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좌측 탄약함(彈藥盒)의 탄약을 사용한다.

그러나 총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노리쇠뭉치의 개폐는 실탄이나 모의탄(模擬彈)을 사용할 때만 실시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개폐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상에 떨어진 탄약을 회수했을 때는 이를 유의하여 깨끗이 닦아 주어야 한다.

가. 세워총에서 장전

제32 구 령

탄환입(彈丸入)「탄환 장여」총

반우향(半右向)을 하여 오른발을 선상으로부터 약 반보(半步) 되는 새로운 곳에 벌려서 디디되 그 발끝은 약간 안쪽으로 향하며 동시에 오른손으로 총을 들어 올리면서 앞으로 숙이고 왼손으로는 대략 총 무게의 중심이 되는 곳을 잡는데 그 손가락은 흠부분에 두고 총구를 눈높이와 같게 하여 총손잡이를 오른쪽 가슴높이 보다 조금 아래로 하며 개머리판을 몸에 붙인다.

오른손으로 노리쇠손잡이를 잡되 각지를 위로 하고 오른팔은 가볍게 총대의 바깥면에 붙이고 노리쇠손잡이를 세워서 서서히 강하게 뒤로 끌어당긴다. 오른손으로 탄약함에서 실탄을 집어서 탄두(彈頭)를 앞으로 하여 수직으로 기관부 위로 가져와 뒤로 끌면서 약실 구멍에 깊숙히 넣고, 엄지손가락의 끝으로 탄약통 뒤쪽을 막고 위로 누르며 탄창에 들여보낸다. (미숙한 자는 장전할 때에 시선을 약실구멍에 두는 것도 무방하다.)

오른손으로 노리쇠손잡이를 잡는다. 신속하게 약실을 전진시켜 노리쇠손잡이를 우측방에 확실하게 원위치시킨다. 오른손의 집게손가락으로 갈키를 서서히 뒤로 당겨서 우측방으로 돌리고 가만히 노리쇠몽치를 전진시킨 다음 공이치기를 안전장치에 걸어둔다.

오른손으로 목질부분의 중앙부를 잡고 앞을 향하면서 세워총 위치로 가져오고 왼손을 내린다. 총을 지상에 놓는다. 장전할 탄환이 아닌 것은 한발씩 기관부 위에 놓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탄창(彈倉)에 넣는다.

나. 탄약 추출(抽出)

제33 총을 장전하고 있을 때에 탄약을 빼내려면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탄환 추「탄환 빼어」

장전의 자세를 취하고(뒷열의 병사는 거리를 없게 한다) 공이치기를 격발장치에 오게 하며 노리쇠손잡이를 세워 천천히 진퇴(進退)시켜 탄약을 꺼내어 탄약함에 넣고, 왼손을 방아쇠울에 가까이 하여 가운데손가락과 약손가락으로 기관부를 눌러서 약실을 닫으며 공이치기를 아래로 하고 세워총(뒷열의 병사는 원위치)을 한다.

4. 사 격(射擊)

가. 입사(立射) : 서서싸

제34 세워총 하고 있을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입의방(立擬放)「서서 겨냥」 총

기미돌(幾未突)「몇 미터」

사(射)

격(擊)

「총」 구령에 장전할 때와 같이 총을 쥐고 공이치기를 격발장치에 이르게 하고 오른손으로 총목을 잡으며 집게손가락을 방아쇠울 안에 넣어서 펴고 만약에 장전하지 않았을 때는 장전한다.

가늌자의 사용, 조준 및 발사 동작은 보병사격교범(步兵射擊敎

範)에 따라야 하고 무릎썩와 엎드려썩에 있어서도 같은 요령이다.

「격」 구령에 발사한 후 곧바로 다음 발사 준비를 하며 탄창의 탄약을 완전히 사격하여 소모하였을 때는 다시 장전한다.

사격을 중지시킬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사격지(射擊止)「사격 그쳐」

제35 공이치기를 안전장치에 놓고 가늠자를 원위치로 복귀한 후에 세위총을 실시한다.

사격 자세에서 조준을 중지시킬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복(復)「다시」 총

예령에 집게손가락을 방아쇠에서 빼서 펴고, 동령에 다시 서서 썩 자세로 돌아간다.

나. 궤사(跪射) : 무릎썩

제36 세위총 하고 있을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궤의방(跪擬放)「꿇어 겨냥」 총

기미돌「몇 미터」

사

격

「총」 구령에 총을 손에 든 채로 반우향하고 동시에 오른발을 약 반보(半步) 뒤로 물려서 그 발끝을 왼발 연장선 위에 놓고 그 방향은 왼발과 약 60도의 각을 이루게 하며 왼손으로썩 칼집을

잡아 앞으로 내는데 양어깨는 펴지 말고 머리는 항상 앞을 향한다.

오른발 방향에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몸을 오른쪽 발뒤꿈치 위에 앉으며, 칼집을 놓고 오른손으로 총을 앞으로 숙이고 왼손으로는 대략 무게의 중심이 되는 곳을 가늠하여 총을 잡고 왼쪽 앞팔꿈치는 왼쪽 다리 위에 의탁하며 개머리판의 평면(平面)을 오른쪽 다리의 안쪽에 붙이고 총구를 눈 높이와 같게 하여 발사 준비를 한다.

기타 동작은 서서싸 자세에 준한다.

다. 복사(伏射) : 엎드려싸

제37 세워총 하고 있을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복의방(伏擬放)「엎드려 겨냥」총

기미돌「몇 미터」

사

격

「총」 구령에 반우향하고 총의 개머리판끝을 오른쪽 어깨 부분의 앞쪽으로 약 1보 되는 곳에 내민다.

총을 내미는 방향에 두 무릎과 왼손을 땅에 붙여서 엎드리고 총을 왼손바닥 안에 뉘어 놓되 총신을 위로 하고 발사 준비를 한다.

기타 동작은 서서싸 자세에 준한다.

5. 집총행진(執銃行進)

제38 집총행진을 할 때는 「가」 구령에 총을 들어올리고 행진 간에는 왼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서」 구령에 정지하고 바로 세워총 한다.

구보(驅步)를 실시할 때는 「구보로」 예령에 총을 메고 왼손으로 칼집을 잡고 앞으로 나아간다.

퇴보(退步)를 실시할 때는 총을 조금 올려서 오른쪽 허리에 지탱한다.

제39 행진중에 서서좌(무릎좌) 자세를 취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입「서서」(궤「꿇어」) 의방「겨냥」 입「서」

「서」 구령에 정지하고 다음에 오른발을 벌리며 동시에(총을 멘 채로 꿇어앉는 자세를 취한 후) 세워총의 제1동작과 같이 총을 내려서 그대로 하고 기타 동작은 서서좌(무릎좌)와 동일하다.

제40 행진중에 꿇어앉는 자세나 엎드려 자세를 취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궤자「꿇어」(복자「엎드려」)

꿇어앉는 자세를 취할 때는 왼발을 앞으로 내디디며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고 무릎좌 할 때와 같이 총을 내려 오른쪽 무릎 앞에 세우되 총신을 뒤로 하고 오른손으로 목질부분의 가운데를 잡으며 왼손을 왼쪽 다리 위에 놓는다.

엎드려 자세를 취할 때는 정지하여 세워총을 한 후 엎드려좌

할 때와 같이 엎드리되(2열로 정돈해 있을 때 앞열은 2보 전진) 목질부분 가운데를 잡아서 총을 왼쪽 앞팔뚝에 얹고 노리쇠를 위로 한다. 정지간에 있을 때도 역시 이에 준한다.

제41 꿇어앉은 자세 혹은 엎드려 자세에 있다가, 일어나거나 혹은 전진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기(起)「일어나」

혹은

전「앞으로」 진「가」

「일어나」 혹은 「앞으로」 구령에 일어나서(뒷열의 병사는 거리를 정상으로 회복—2보 전진) 세워총 한다.

제42 전투중 급하게 행진을 해야 할 때에, 휴식자세에 있어서는 「기착」 구령을 생략해도 되므로 이러한 때는 예령에 곧바로 부동자세를 취한다.

6. 습보(襲步) 및 돌격(突擊)

제43 습보의 속도는 분당 약 120보이고 그 요령은 평보(平步)와 동일하다.

구 령

습보로 진「가」

제44 구 령

돌격

동령(어깨총 하고 있을 때는 세워총의 제1동작에 준할 것)에 오른손으로 총의 아랫덮개(하대 : 下帶) 하부를 잡고 들되 개머리판을 앞면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여 총구를 오른쪽 어깨의 약간 전방에 있도록 하고 구보와 같은 요령으로 행진하며, 정지의 구령이 있으면 사격자세를 취한다.

第4節 散兵教練

제45 산병교련²⁰⁾의 목적은 병사들로 하여금 산개하여 실시하는 동작, 즉 지형을 이용하여 행진, 정지 및 사격하는 것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있다.

제46 신병(新兵)이 행진과 짐총요령, 장전 및 사격방법에 어느 정도 숙달을 하게 되면 산병교련을 시작하여야 하며, 이때는 평이한 지형에서 고참병사를 활용하여 산개전투(散開戰鬥) 요령에 따라 간단한 방법부터 먼저 설명해 주어야 한다.

1. 행진 및 정지

제47 산개한 병사들은 항상 총에 장전하여 적절히 손으로 들되 총구를 위로 하고 보조는 맞추지 않고 자유로운 자세로 행동하며, 정지할 때는 총의 위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되 가능한 한 신체를 차폐(遮蔽)함이 요구된다.

20) 산병교련 : '각개훈련'을 뜻한다.

제48 산개한 병사들은 특히 도랑, 벼랑, 담벽 그리고 울타리 등을 넘거나 오르는 일에 익숙해야 하고 또 각개 병사들은 은폐하여 잠행(潛行)하되 혹은 위치를 한쪽으로 치우치며 혹은 몸을 구부리고, 혹은 포복(匍匐)하여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지름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함을 명심해야 한다.

2. 사 격

제49 각종 상황 및 자세에 있어 장전과 사격방법을 세밀하게 가르치는 것이 요구되지만 엃드려쏘 자세, 무릎쏘 자세 또한 차폐물의 배후 혹은 지형지물에 의탁하는 사격자세의 적용은 각 병사들의 체격, 지형, 목표의 종류 및 전투 상황에 관계된다.

제34, 제36, 제37에 게시한 엃드려쏘, 무릎쏘 그리고 서서쏘의 자세 외에 대략 다음에 지시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50 엃드려쏘를 확실하고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총을 의탁하는 것은 큰 가치가 있다. 의탁복사(依託伏射)는 엃드려쏘 자세를 취하여 총의 맨아랫부분을 의탁하고 왼손으로 개머리판끝을 잡으며 그 방법은 엄지손가락을 안쪽에 붙이고 다른 네 손가락은 바깥쪽에 붙여 총을 어깨에 끌어당겨 붙이며 몸은 완전히 양 팔꿈치 위에 받치고 오른손으로 강하게 총목을 잡고 조준한다.

제51 무릎쏘 자세에 있는 각개 병사들은 둔부(臀部)를 오른쪽 발뒤꿈치 위에 올려 놓고 팔꿈치를 받치는 일 없이 사격하며 이때 왼손은 총의 중점(重點)을 잡는다.

제52 수목(樹木) 후방에서 서서쏘 혹은 무릎쏘를 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오른쪽 어깨를 뒤로 하여 사격하되 그 수목이 거대한 때는 왼쪽 팔뚝을 나무줄기에 의탁하고 수목이 작을 때는 왼쪽 손바닥을 나무줄기에 붙여야 하는데 제1의 경우(수목이 거대한 경우)에는 총을 손바닥 안에 두고, 제2의 경우(수목이 작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 의탁한다.

그러나 수목은 겨우 전면(前面)을 차폐하고 측방을 차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개 병사들이 옆드려쑈에 사격 범위를 제한받을 때만 이러한 사격을 실시한다.

제53 사람의 가슴 높이 정도의 담장에 의탁하는 사격은 왼쪽 궁둥이를 모서리 가까운 곳에 의탁하거나 혹은 오른쪽발을 뒤로 물려서 몸의 왼쪽을 내사면(內斜面)에 붙이고 혹은 두 팔꿈치를 모서리의 가까운 데에 의탁하고 총은 의탁복사(依託伏射)와 같이 담장에 의탁한다.

제54 기타 담장과 벽, 도랑, 자그마한 요철(凹凸) 그리고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적의 감시의 눈과 적탄(敵彈)을 차폐하며 혹은 총을 안전하게 장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제55 병사들이 옆드려서 자유롭게 사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때는 사격할 때에만 무릎쑈 혹은 서서쑈 자세를 취하고 사격한 후에는 다시 옆드린다.

제56 위의 여러 가지 연습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상의 적병(敵兵)을 설치하고 차폐의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습의 목적은 병사들로 하여금 각종 위치에서 한눈에 그 지형의 이해(利害)를 판별하여 이를 응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차폐물 응용의 요령은 사격 효과를 위주로 하고 다음에 차폐 효용을 고려한다.

제57 산병사격을 교수할 필요성은 각개 병사들로 하여금 사격의 제규칙(諸規則)을 준수하여 정밀히 조준하고 침착하게 사격하면 좋은 성적을 얻으며, 부정확한 조준과 정숙(靜肅)하지 않은 사격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데 있다.

제58 일반적으로 각개 병사들은 정지간에 대개 엎드리는 것이 요구되지만, 평상시의 연습에서는 위생상 이유 등을 고려하여 간혹 무릎짜, 엎드려짜의 자세를 취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실제와 다른 동작을 취한다는 것을 명료하게 이해시켜야 한다.

제59 이상의 연습과 동시에 사격학과(射擊學科)를 실제 지형에서 시행하며 거리측량을 하여야 한다.

第2章

.....

小隊教練

第1節 總 則

제60 소대교련은 중대교련의 일부이며, 그 목적은 중대로의 편입 준비를 하는 데 있다. 신병이 각개교련을 마친 후 소대교련으로 옮기기 위하여 약간의 신병으로써 1열 혹은 2열의 분대를 편성하여 소대의 일부를 만들어 제2장(소대교련)을 시행하되 다만 구령을 내릴 때 ‘소대’라는 말을 ‘분대’로 바꾼다.

소대 혹은 이보다 큰 부대에서 제1열 정면이 되거나 혹은 제2열 정면이 되어도 관계없으며, 우익 선두나 좌익 선두가 되어도 관계하지 않고, 또 대오가 뒤섞이는 경우에도 항상 확실하고 또 질서정연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제61 정지간에 대형(隊形) 및 방향을 바꿀 때는 총을 오른손으로 오른쪽 허리에 지탱하고 보조를 취하지 않는다. 만일 구보를 할 때는 예령 다음에 「구보」 구령을 추가하되 행진간에 있어서는 항상 구보를 사용하며 이 규칙은 중대(中隊)에도 적용한다.

제62 소대장은 교련간에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第2節 密集隊形

1. 소대 편성

제63 소대는 병사의 키 순서에 따라 60cm(앞열 병사의 등 혹은 배낭으로부터) 거리를 이격하여 2열을 편성하는데 그 전후에서 있는 2명을 오(伍)²¹⁾라고 부르고, 각 오 가운데 키가 큰 병사를 제1열에 세우며 소대의 병력이 홀수가 될 때는 좌익 제2열을 빼서 이를 결오(缺伍)라고 부른다.

상등병(上等兵)²²⁾은 대개 키 순서에 따라 소대에 배치가 되며, 뒷열의 병사는 바로 앞열의 병사에 중첩하여 같은 방향에 위치한다.

각 병사들의 간격은 상호 팔꿈치가 닿지 않도록 하여 총의 사용 및 행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이 간격은 왼손을 허리에 붙이되 팔꿈치를 옆으로 내밀어서 왼쪽에 이웃한 병사의 오른쪽 팔에 거의 닿게 함으로써 기준을 삼는다), 소대의 각 오는 제1열 정면에서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번호를 붙인다.

소대를 몇 개의 분대로 나누어 우익으로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는데 그 분대의 인원은 4 내지 8 오로 한다.

21) 오(伍) : 현재의 개념으로는, 옆으로 나란히 지은 줄을 '오'라 하고 앞뒤로 곧게 지은 줄을 '열'이라 하므로, 당시에는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22) 당시의 계급 구조를 살펴보면, 장교는 대장(大將), 부장(副將), 참장(參將), 정령(正領), 부령(副領), 참령(參領), 정위(正尉), 부위(副尉), 참위(參尉)이고, 하사관은 정교(正校), 부교(副校), 참교(參校)이며, 병사는 상등병(上等兵), 일등병(一等兵), 이등병(二等兵)이다.

소대의 앞열에 하사(下士) 2명을 세우는데 그 우익에 있는 하사를 우익하사(右翼下士)라 부르고, 그 좌익에 있는 하사를 좌익하사(左翼下士)라 부르며, 기타 하사는 분대 중앙의 후열 뒤 2보 되는 곳에 위치하는데 이를 압오(押伍)라고 부른다. 이 하사들은 ‘산개대형’으로 이전시에 분대를 지휘하고, 하사가 부족할 때는 상등병으로 이들에 대신한다.

2. 정 돈(整頓)

제64 정돈이 완전히 되었을 때에, 각 병사들은 정돈선상에 바른 자세를 취하여 머리를 돌려서 기준이 우(좌)일 때는 우(좌)측 눈으로써 그 우(좌)인접의 병사를 쳐다보고 다른 눈으로는 전체 선을 바라본다.

병사들이 정돈선을 이루고 있을 때는 상체가 앞이나 뒤로 나가지 않도록 바른 자세를 취하여야 하며, 만약 병사들 가운데 발의 위치가 부정확한 자가 있으면 자연히 양어깨의 위치가 정돈선에 있지 않아 그 피해가 자신뿐만 아니라 옆의 병사에게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는 먼저 두 발을 보게 하여 이를 수정하고, 그 결과 각 병사들로 하여금 정돈요령을 알아서 정돈이 맞는가 또는 틀리는가를 스스로 식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할 때는 신속하고 또 정당하게 정돈하여 상관이 여러 번에 걸쳐 「앞으로」 혹은 「뒤로」라고 호통을 쳐서 병사들을 나아가거나 물러서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5 정돈요령을 알도록 할 때는 먼저 기초병사를 차출하여 이에 정돈하게 하는데 이를 위하여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우(좌) 2오(2인) 3보(4보, 5보) 전「앞으로」 진「가」

우(좌)익의 하사 및 우(좌) 2오(2인)는 지시한 보수(步數)만큼 전진하되 2오(2인)는 그 하사에게 정돈하고 소대장은 그 정돈을 바르게 되도록 한다.

이어서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우(좌)로 준(準)「나란히」

직(直)「바로」

「나란히」 구령에 각 병사들은 전진하되 마지막 1보를 물러나서 정돈선의 약간 후방에 멈춘 다음에 우(좌)로 돌리며 오금을 굽히지 않고 좁은 발걸음으로 내디뎌서 정숙하게 정돈선에 나아가서 총을 땅에 세우는데, 다만 뒷열 및 압오열은 먼저 똑바로 전방의 병사에 중첩하여 거리를 취한 연후에 우(좌)측에 정돈하고 익하사(翼下士)는 자기에게 가깝게 있는 자로부터 축차적으로 정돈을 바르게 하도록 한다.

「바로」 구령에 각 병사들은 머리를 정면(正面)으로 한다.(혹은 왼손을 내린다.)

제66 익하사를 전진하도록 하여 정돈을 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향도(嚮導) 3보(4보, 5보등) 전「앞으로」

우(좌)로 준「나란히」

직「바로」

향도 3보(4보, 5보등) 「앞으로」 구령에 2명의 익하사는 지시한

보수(步數)만 전진하고 소대장은 그 위치가 똑바로 되도록 하며 「나란히」 구령에 우(좌)익하사는 필요하면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2, 3명의 병사들을 낮은 소리로서 나아가거나 물리나게 하여 앞열의 정돈을 돕는다.

제67 그 위치에서 소대정돈을 바르게 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우(좌)로 준「나란히」
직「바로」

제68 정돈은 평행 혹은 사행(斜行)으로 한다.

3. 소대 배면향(小隊背面向)

제69 구 령

회「돌아」 우(右)

「우」 구령에 소대는 뒤로 돌고 결오(缺伍) 및 익하사(翼下士)는 앞열에 나아간다.

제70 정지 혹은 행진시에 압오열(押伍列)을 후방으로 이동시킬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압오 후「뒤로」

각 압오는 구보로 가까운 쪽을 지나서 뒷열의 후방으로 옮겨 앞서의 위치와 대칭되게 위치한다.

4. 집총요령과 꽃아칼, 빼어칼

제71 집총요령은 소대가 일제히 시행하여야 한다. 꽃아칼과 빼어칼은 각 병사들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하사는 병사들과 함께 총의 조법과 꽃아칼, 빼어칼을 시행한다.

5. 걸어총 및 풀어총

제72 걸어총 할 때는 대검을 꽃은 후에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결「걸어」총

홀수 오(伍)의 앞열 병사는 왼손으로 윗덧개의 아래를 잡고 개머리판 끝부분을 오른발 끝으로부터 개머리판의 3배 거리 되는 앞에 내보내되 총신을 좌로 하여 오른손을 떼고 왼손으로 총을 왼쪽으로 기울인다.

짝수 오의 앞열 병사는 왼손으로 윗덧개의 아래를 잡고 개머리판 끝부분을 왼발 끝으로부터 개머리판의 3배 거리 되는 앞에 내보내되 총신을 뒤로 하고 오른손을 떼며 왼손으로 총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오른쪽 병사의 칼과 교차시켜 건다.

홀수 오의 뒷열 병사는 왼손으로 아랫덧개의 위를 잡고 오른발을 내디면서 그 칼을 이미 걸어 놓은 앞열 병사들의 칼에 서로 걸고 개머리판 끝부분을 왼쪽 병사와의 사이 중앙 앞에 위치시킨다.

짝수 오의 뒷열 병사는 왼손으로 윗덧개의 아래를 잡고 총신을

앞으로 하며 왼발을 내디면서 그 총구 부분을 홀수 오의 앞열 병사의 칼에 의탁하고 총은 홀수 오의 뒷열 병사의 총과 나란히 되도록 한다.

제73 걸어총을 풀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해(解)「풀어」총

예령에 짝수 오의 뒷열 병사는 왼발을 내디면서 오른손으로 그 총을 들고 기타 3명(홀수 오의 뒷열 병사는 오른발을 내디딘다)은 왼손으로 윗덮개의 아래를 잡고 오른손으로 아랫덮개의 위를 잡는다.

동령에 총을 올려서 서로 걸린 것을 풀고 부동자세를 취한다.

6. 장 전(裝填)

제74 장전은 각 병사들의 숙달 정도에 따라서 가능한 한 신속히 시행하여야 하며, 다만 하사는 필요한 때만 이를 시행한다.

「탄환 장여」구령에 뒷열 병사들은 우전방으로 약 1보를 나아가고 「총」구령에 우익의 하사는 반우향하며, 장전을 끝낸 후에는 우익의 하사와 뒷열 병사들은 원위치로 복귀한다.

7. 사 격(射擊)

제75 소대의 정면은 목표를 마주 보는 방향과 가능한 한 직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시는 미리 방향전환을 한다.

제76 사격은 일제사격(一齊射擊)과 각개사격(各個射擊)으로

나누며, 일제사격은 「사격」 구령에 따라 시행하고 각개사격은 「완(緩), 연속(連續) 혹은 급(急)사격」 구령에 따라 시행한다.

제77 소대장은 실탄사격에 있어서는 사격효과를 관측하기 용이한 곳에 자리하여야 한다. 하사는 서서좌에서는 세워총(우익의 하사는 반우향) 하고 무릎좌와 엎드려좌에 있어서는 병사들과 동일한 자세를 취하되 그 총의 보지법(保持法)은 제40²³⁾에 준하고 또 사격은 필요할 때만 시행한다.

제78 「서서(무릎)좌 겨냥」 구령에 뒷열의 병사는 제74²⁴⁾에 게시(揭示)한 것과 같이 거리를 지키고 다음에 「총」 구령을 내린다.

제79 소대 행진간에 신속하게 사격을 하도록 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입「서서」(궤「꺾어」) 의방「겨냥」 입회(立廻)「돌아」
우편 입「서」

「서」 구령에 소대는 정지(우회전)하고 뒷열은 거리를 지켜서 총을 겨냥하되 압오열(押伍列)이 사격선 앞에 있을 때는 제70에 준하되 뒷열 후방으로 이동한다.

제80 일제사격 구령의 일례(一例)

전면에 보이는 종대
입「서서」(궤「꺾어」) 의방「겨냥」 총
700미터(700, 800미터)

23) 제40 : 원문에는 제42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므로 수정하였다.

24) 제74 : 원문에는 제75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므로 수정하였다.

사
격

사격을 계속하게 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사
격

혼용(混用) 가늠자는 통상적으로 앞열의 병사는 낮은 가늠자, 뒷열의 병사는 높은 가늠자를 사용하며, 산개할 때도 역시 이에 준한다.

제81 각개사격 구령의 일례

삼림 우편에 재한 포병
입「서서」(궤(궤어)) 의방「겨냥」 입「서」
800미터
완(연속)(급)사격

「완사격」 구령에 병사들은 인접한 병사와 교대로 가장 느린 속도로 사격을 한다.

「연속사격」 구령에 병사들은 인접 병사를 고려하지 않고 장전되는 대로 마음대로 계속하여 사격을 한다.

「급사격」 구령에 병사들은 신속하게 사격을 한다.

제82 사격을 멈추게 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사격 지「그쳐」

소대는 제35와 같이 세워총을 하고 우익의 하사 및 뒷열의 병

사는 원위치에 복귀한다.

제83 옆드려쐬는 1열을 지어 시행한다.

8. 횡대의 정면행진 및 배면(背面)행진

제84 행진은 항상 우측방으로 향도를 보내며, 만약 좌측방으로 보낼 때는 특별히 이를 지시한다. 소대장은 행진목표를 우(좌)익의 하사에게 지시한 후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전「앞으로」진「가」

이어서 필요하면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향도 좌로

소대는 향도의 안내에 따라 일제히 행진을 시작하여 정면과 직각으로 행진하며, 향도는 열중의 병사들에 관계하지 않고 정규의 보폭과 속도를 유지하면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한다.

각 병사들은 향도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머리를 돌리지 말고 항상 인접한 병사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돈은 보폭과 속도를 고르게 하는 것과 간격을 보존함으로써 유지되어야 한다.

제85 행진중에 향도를 다른 쪽으로 보낼 때는 「향도 좌(우)로」 구령을 내린다.

제86 배면행진을 행할 때는 제69에 따라 소대를 배면으로 향하게 하고, 제84에 따라서 행진하도록 한다.

소대 행진중에 곧바로 배면행진을 행할 때는 제18 및 제69에

준하여 시행하며 필요하면 「향도 좌(우)로」 구령을 내린다.

제87 행진간에 병사들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규칙은 다음과 같다.

- 향도는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던지 항상 머리를 똑바로 유지한다.
- 정돈한 기준 쪽으로 갈 때는 그대로 이를 따르고 반대방향으로 갈 때는 이를 막아야 한다.
- 정돈선보다 나오거나 뒤처지거나 또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는 점차적(漸次的)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만약에 보조가 맞지 않을 때는 향도 쪽의 인접 병사의 걸음에 빨리 맞추어야 한다.

제88 장거리에 아주 좋은 정면행진은 모두 밀집부대 행동에 기초가 된다.

9. 반우(반좌)향 행진

제89 구 령

사「비껴」 우(좌)로 진「가」

반우(반좌)향 행진 방향은 통상 정면과 45도의 각(角)을 이룬다. 이 행진에서 각 병사들의 위치가 똑바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어깨가 서로 평행이 되며, 오른쪽으로 비껴 행진(우사행진 : 右斜行進)²⁵⁾ 할 때는 각 병사들의 오른쪽 어깨가 그 오른쪽 병사의

25) 우사행진(右斜行進) : 원문에는 우사진(右斜進)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탈자(脫字)인 행(行)을 추가하였다.

왼쪽 어깨의 후방에 있고, 왼쪽으로 비껴 행진(좌사행진 : 左斜行進) 할 때는 이와 반대이다. 각 병사들은 항상 비껴가는 방향에 정돈하여야 한다.

제90 다시 직행(直行)으로 복귀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전「앞으로」진「가」

10. 구보(驅步), 습보(襲步) 및 돌격

제91 병사들이 정면행진, 배면행진 및 사행진에 숙달했을 때는 구보로써도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92 소대로 습보 및 돌격을 시행할 때는 제43 및 제44에 따라야 한다.

11. 소대 정지

제93 소대를 정지시킬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소대 입「서」

각 병사들은 정지하여 각자 향도 쪽으로 정돈하고 머리를 정면으로 한다.

제94 배면향과 배면 정지하도록 할 때는 제19 및 제69에 준하여 시행하며, 병사들은 각자 향도 쪽으로 정돈한다.

12. 퇴 보(退步)

제95 퇴보는 제10에 따라서 시행하며 필요하면 「향도 좌」라고 구령을 내린다.

13. 방향전환

제96 구 령

우(좌)로 방향 환「바뀌」진「가」

정지간에 있어서는 우(좌)익의 하사는 우(좌)향 하며 각 병사들은 반우(좌)향 하고 보폭을 늘려서 지름길을 따라서 축차적으로 새로운 정돈선에 이르러 정지하고 그 우(좌)측 인접병사의 방향에 정돈한다.

행진간에 있어서는 우(좌)익의 하사는 우(좌)향 하여 행진을 계속하며 각 병사들은 위의 방법에 준하여 구보로써 새로운 정돈선에 나아가서 우(좌)측 인접병사에 준하여 행진한다.

제97 작은 각도(角度)에서 방향전환을 할 때는 반드시 전환할 방향에 있는 익하사에게 새로운 목표를 알리고 제96에 따라 시행하고, 그 행진간에 있어 각도가 근소할 때는 「목표 우(좌)로」 구령을 내리며 향도는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행진하고 각 병사들은 보폭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새로운 선으로 나아간다.

14. 측면행진(側面行進)

제98 구 령

우(좌)향 우(좌)
전「앞으로」진「가」

「우(좌)」구령에 소대는 우(좌)향 하고 다음에 짝수병(홀수병)은 홀수병(짝수병)의 오른편(왼편)에 나와서 4명(2명)의 병줄이 서로 나란히 늘어서서 가볍게 팔뚝을 붙이고 좌(우)측에 정돈한다.

「가」구령에 소대는 행진을 시작하되 각 병사들은 항상 우(좌)측에 정돈하고 향도 후방에 있는 병사는 바로 그 뒤를 따라 행진하고 기타 병사들은 열중(列中)에서 서로 중첩하여 각자 바로 앞 병사의 머리가 그 앞쪽 병사의 머리를 가리는 것처럼 행진한다.

측면행진에서 선두 병사 4명(2명)의 정돈이 부정확할 때는 그 피해가 각열의 정돈에 미치게 된다. 소대로 하여금 오를 중복하는 일이 없이 측면행진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측면행진간 오(伍)의 분해 및 중복

제99 오를 풀어야 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향오(行伍) 각각 해(解)「풀어」진「가」

각열 가운데에서 중복된 병사는 걸음을 줄여서 자기 위치에 들어가고 뒷열은 그 앞열의 병사 쪽에 정돈한다.

제100 오를 중복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향오 각각 병(併)「아울러」진「가」

제90에 준하여 오를 중복한다.

16. 오오(伍伍) 방향전환

제101 정지 혹은 행진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향오(行伍) 각각 우(좌)로 진「가」

선두의 오는 작은 원을 그리며 걸어가되 항상 선회(旋回)하는 축 방향에 정돈하면서 우(좌)로 방향을 변경하고 행진하는 쪽에 있는 병사는 정규 보폭으로 행진하고 선회하는 축에 있는 병사는 최초 몇 보를 줄여서 가고, 각 오는 그 선행(先行)하는 오의 변환점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17. 정지 및 정면향

제102 구 령

소대 입「서」

우(좌)로 정면「바로 봐」

「서」구령에 소대는 정지하여 부동자세를 취하고, 「바로 봐」구령에 우(좌)측으로 향하여 오를 풀며 각자 향도 쪽으로 정돈한다.

소대를 정지시키면서 곧바로 정면을 향하도록 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우(좌)향 입「서」

18. 행진간 우(좌)향

제103 구 령

우(좌)향 전「앞으로」진「가」

각 오는 우(좌)향 하고 중복 혹은 풀도록 한다. 소대가 정면행진으로 돌아올 때는 필요시 「향도 좌로」 구령을 내린다.

제104 구보로써 측면행진을 하는 요령은 평보로 하는 것과 동일하다.

19. 측면종대에서 횡대로, 횡대에서 측면종대로의 이전

제105 정지 혹은 행진하는 측면종대를 같은 방향에 횡대로 편성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우(좌)로 나열(羅列)「벌려」진「가」

선두에 있는 하사는 부동자세로 있거나 혹은 계속 행진하고 각 병사들은 오를 풀어서 오른쪽(왼쪽) 어깨를 앞으로 내고 보폭을 늘리며 혹은 구보로 질러가서 차례로 새로운 선에 나아가 우(좌)인접병사에 정돈하거나 혹은 이에 준하여 행진한다.

제106 횡대로 행진하는 소대를 같은 방향에 측면횡대로 옮길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우(좌)향 항오 각각 우(좌)로 진「가」

제98 및 제101에 준하여 시행한다.

20. 2열에서 1열로, 1열에서 2열로의 이전

제107 정지 혹은 행진간에 2열에서 1열로 옮길 때는 기준오(基準伍: 통상 중앙오)를 지시하고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단열(單列)로 진「가」

기준오는 부동자세로 있거나 혹은 계속 행진하고 기타 오(伍)들은 좌우로 필요한 간격을 취하고 뒷열의 병사는 앞열 병사의 왼쪽에 나와서 각자 기준방향에 정돈하거나 혹은 이에 준하여 행진한다.

제108 2열로 복귀할 때는 기준병을 지시하고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2열로 진「가」

1열로 옮기던 반대순서로 2열을 편성한다.

21. 산 보(散步)

제109 구 령

산보(散步)로

이 구령은 야외요무령(野外要務令)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각 병사들간의 간격은 제63에 준하고 횡대의 열간의 거리는 제9에 따른다.)

22. 해산(解散) 및 집합

제110 걸어총을 한 후 혹은 총을 휴대한 채로 해산하게 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산(散)「해쳐」진「가」

걸어총을 하고 해산할 때는 병사들은 이 총을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

제111 소대를 집합시킬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취립(聚立)²⁶⁾

각 병사들은 즉시 총을 걸어 놓은 곳에 집합하여 조용히 자신의 위치에 가서 선다.

총을 휴대시는 신속하게 소대장이 서 있는 곳에 집합하여 마주 대면(對面)하고 번호순서에 따라 2열을 이루고 각자 우측에 정돈한다.

26) 취립(聚立) : ‘모여’ 또는 집합(集合)을 뜻한다.

第3節 散開隊形

제112 산개대형 교련도 역시 각개교련으로부터 바로 소대교련으로 옮기는 일이 없이 먼저 약간의 병사 혹은 분대로써 교련함을 필요로 하므로 이 교련에 해당되는 각개 병사들은 소대의 일부로서 그 동작을 습득하고, 소속장의 지휘에 따를 뿐만 아니라 정지 및 행진간에 그 인접병사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3 야외에서 행동하는 각개 병사들로 하여금 차폐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휘관이 특별히 주의할 일이지만, 어떠한 경우든지 한두 명의 병사들의 차폐를 고려하여 부대 전체의 일반행동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 기초하여 연계한 산병행동은 교련의 가장 필요한 사항이다.

산병선의 신장(伸張) 및 조밀(稠密)에 따라 그 행동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초의 교련은 그 선을 단축하고 또 소산(疏散)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산 개

제114 산개는 여러 가지 대형(隊形)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 순서를 똑바로 하고 또한 정숙하고 신속함을 필요로 한다.

산개할 때에 각 산병의 간격은 1보 내지 2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115 정지 혹은 행진하는 소대의 전부 혹은 그 일부를 전방에 산개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산(散)「헤쳐」

중앙에 있는 1개 오(伍)는 똑바로 전진하고 나머지 오들은 구보로써 좌우로 비껴서 행진하며 뒷열의 병사는 그 앞열 병사의 좌측으로 나아간다.

한쪽 편이나 어떤 오(중앙의 오가 아님)를 기준하여 산개하는 경우도 있다.

산병은 「서(풀어)(엮드려)」 구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전진한다.

제116 그 위치에서 산개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좌우(우)(좌)향 산「헤쳐」

기준오는 부동자세를 하거나 정지하고 기타 병사들은 측면을 향해 구보로써 간격을 맞출 때까지 행진하며 뒷열 병사는 그 앞열 병사의 좌측으로 나아간다.

제117 퇴각하는 소대를 산개할 때는 먼저 정면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다음에 산개 구령(「헤쳐」)을 내린다.

제118 측면종대로 정지 혹은 행진하는 소대를 산개(散開)²⁷⁾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우(좌)로 산「헤쳐」

선두오(先頭伍)는 행진을 시작하거나 혹은 계속 행진하고 나머지 오들은 나뉘어서 구보로 반우(좌)향 행진하며 지름길을 지나 새로운 선에 나아가 산개한다.

27) 산개(散開) : 원문에는 '산' 이 탈자이므로, 이를 삽입하였다.

제119 정규 외의 간격으로 산개할 때는 「헤쳐」 하기 전에 「몇 보」라는 구령을 추가하여야 한다.

비스듬한 방향으로 산개할 때는 가령 「1개 소나무를 향하여 헤쳐」 구령을 내린다.

2. 산병선 행동

제120 산병선 행진은 통상 평보의 속도를 사용한다. 전진 혹은 퇴각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전「앞으로」

혹은

후「뒤로」

반우(좌)향 행진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사「비껴」 우(좌)로

행진간의 정돈이나 정해진 간격을 은연중 지킬 필요가 없고, 행동을 시작함에 있어 사격중이면 각개 병사들은 가늠자뭉치를 누고 그 길이를 기준하여 행진하되 만약 총이 장전되지 않았을 때는 행진중에 장전하고, 소대장 및 분대장은 그 부하들의 중앙 앞의 적 방향에 위치하여야 한다.

급속히 행진을 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전「앞으로」(후「뒤로」) 구보로

혹은

사「비껴」우로(사「비껴」좌로) 구보로

행진간에는 간단히 「구보」 구령을 내린다. 행진하는 각개 병사들을 정지시킬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입「서」(궤자「꿨어」)(복자「엎드려」)

각개 병사들은 정지할 때 항상 적 방향으로 향하여 사격자세를 취하고, 소대장 및 분대장은 그 부하들의 후방 적당한 곳에 위치한다.

제121 정지 혹은 행진하는 산병선의 방향을 전환할 때는 새로운 목표를 지시하고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우(좌)로 방향 환(換)「바뀌」

축이 되는 쪽의 분대장은 오른쪽(왼쪽) 2명의 병사들을 그 방향에 정지하게 하고 각개 병사들은 구보로 새로운 선에 도착하여 정지한다.

아주 작은 각도의 방향전환은 구령을 사용하지 않고 부대장의 유도로써 시행한다.

제122 약진(躍進)할 때는(산병선을 둘로 나누었을 때는 부대를 지시한 후)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약진 전「앞으로」

「약진」 구령에 각개 병사(지시한 부대의 각개 병사)들은 장전을 완료하고 가늠자뭉치를 뉘며 전진준비를 한다.

「앞으로」 구령에 각개 병사들은 엎드려자세, 꿇어자세에 있을 때는 빨리 일어나서 구보로써 엎드려(꿇어, 서) 구령이 있을 때 까지 약진하며, 한 번의 약진거리는 통상 100m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산병선 사격

제123 산병선 사격은 항상 정지하여 행한다.

제124 각개 병사들로 하여금 그 책임자의 지휘와 인접병사들의 상황에 호응하여 산병선상에서 사격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 선정에 숙달하도록 하는데는 수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며, 다만 한 곳에서 좌우로 행동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시받은 가늠자는 가장 정밀하게 장치하여야 한다.

제125 구령에 사용되는 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여야 한다. 최초에는 목표방향이고 다음에 가늠자, 그 다음에 사격종류를 지정해 주는데, 목표의 명칭은 각개 병사들로 하여금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군(敵軍)의 부대를 지적할 때는 각개 병사들이 바로 목격(目擊)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가령 포대(砲隊)의 좌익(左翼)이라고 부르지 말고 우편포대(右便砲隊)라고 부르는 식이다.

분대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그 구령을 복창시켜야 한다.

일제사격 구령의 일례

전면 산상에 재「있는」 우편포차

800, 900미터

사

격

각개사격 구령의 일례

전면에 복「앞드린」 산병

500미터

완(연속)(급) 사격

제 126 사격을 중지시킬 때는 「사격 기다려」 구령을 내리거나 혹은 목소리가 도달하지 못할 때는 작은 피리를 사용하며, 각개 병사들은 총에 장전하고 자세는 그대로 유지한 채 구령을 대기한다.²⁸⁾

제 127 사격의 효과는 총을 바르게 사용하는 외에 사거리, 사격 범위 내에 있는 목표위치와 그 대소(大小), 후박(厚薄), 소밀(疏密) 및 천후(天候)에 관계된다.²⁹⁾

적절한 시간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집중사격을 증대시킬 경우, 적병은 크게 사기를 잃게 되는 것이다.

제 128 사격지휘는 힘써 오랜 시간 확실히 지속하여야 하며, 총기의 진가(眞價)를 얻는 것은 지휘관의 수중에 달려 있고, 또한 사격지휘를 용이하게 하는데는 가능한 한 소대를 집결하되 가

28) 제126 : 원문의 후반이 선명치 못하여, 보병조전(광무 2년판)의 제132(99쪽)를 참조하여 원문을 다시 조판하였다.

29) 제127 : 원문에는 첫째줄이 선명치 못하여, 보병조전(광무 2년판)의 제136(101쪽)을 참조하여 원문을 다시 조판하였다.

까운 인접 소대와 이격하여 한 구역을 점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리를 확실히 판정할 만한 시간과 기회가 없을 때는 그 근처에서 사격을 하는 포병부대나 보병부대가 있을 때는 이들에게 물어보고 또 지도를 살펴보며 혹은 목측(目測)으로써 거리 측정을 하여야 한다.

여러 번 목표를 변경하면 사격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를 피하여야 한다.

제 129 사격의 완급(緩急)은 전투 목적, 목표, 상황 그리고 탄약의 보유량에 따라 정하여야 하고 또 날씨에 따라 사격속도를 정할 경우도 빈번히 있다.

중거리(中距離)에 있는 낮은 목표에 대하여는 서서히 사격을 행하고, 급속한 사격은 근거리(近距離)에서 일시적으로 유리한 목표에 대하여서만 시행하되, 포병에 대하여는 1,000m 거리에서도 이 사격을 실시한다.

일제사격(一齊射擊)은 부대를 확실히 장악하고 탄착점(彈着點)을 인식하여 가늠자 선정을 용이하게 하는 이점(利點)이 있으나, 전투의 소음이 이어지면 비록 밀집된 소대라도 오히려 음성이 전달되기 어려우며, 산개한 소대에 있어서는 한층 더 곤란하므로 일제사격은 전투 초기 혹은 적의 유효사격을 받지 않는 단시간에만 응용할 것이다.

산병선 사격은 각개사격으로써 하는 것이 보통이며, 최대의 효과를 얻는데는 이러한 사격과 같은 것이 없고, 이는 각개 병사들이 정밀하게 조준하며 호기(好機)를 기다려서 사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130 사격군기관 총격전 중에 명령을 확실히 시행하고 총의

취급 및 전투행동³⁰⁾에 관한 제규칙을 엄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기타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 적의 화력하에 놓이게 되어 응사(應射)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황함이 없이 움직이지 말 것.
- 사격방법에 지형을 이용하여 효력사가 증대되도록 하고 항상 지휘관 및 적병을 주시할 것.
- 목표가 소멸하거나 혹은 지휘관의 피리소리를 듣거나, 그리고 기타 방법에 의해 사격정지 명령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사격을 중지할 것.

또한 사격준비가 양성되었을 때는 전투중에 가령 지휘관의 사격지휘가 행해지지 못할 경우라도 최전선에서 병사들의 용감한 판단에 의하여 다른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의연하게 사격효과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독단으로 결심하여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어 각개 병사들로 하여금 사격지휘가 이루어지지 못할 전황(戰況)에서도 올바른 조치에 익숙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제 131 사격효과에 대한 관측은 가장 긴요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망원경(望遠鏡)을 사용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탄착점을 자세히 보며 적의 행동을 감시하여 가늠자와 조준점의 선정을 적절히 하고 사격위력을 증대하게 하는 등의 일을 위하여 정밀하게 수정함이 유리하므로 만약 최전선에서 직접 관측하지 못할 때는 측방에 특별한 관측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0) 전투행동 : 원문에는 전투동작(‘동작’이 선명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이를 전투행동으로 수정하였다.

4. 취립 및 병취립(倂聚立)³¹⁾

제 132 산병을 취립(병취립)할 때는 칼을 들어서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취립(병「아울러」취립)

각개 병사들은 구보로써 소대장이 있는 곳에 취립하여 번호순서(도착순서에 상관없이)에 따라 횡대를 편성하되 소대장이 정지했을 때는 정지하고 행진하면 계속해서 행진한다.

31) 병취립(倂聚立) : 집합(취립)하되 번호순이나 견제순이 아닌 동작을 뜻한다.

第3章

.....

中隊教練

第1節 總 則

제 133 중대교련의 근본 취지는 중대가 항상 중대장의 장악하에 있으면서 그 구령과 명령에 주의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테면 교습하지 못한 행동이라도 그 의도한 바대로 실행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 134 중대장은 교련간에 적당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소대장은 필요시 그 소대가 해야 할 행동을 작은 소리로 깨닫게 하여 이끌어 가는 것도 무방하다.

고수(鼓手)와 나팔수(喇叭手)는 제1소대와 같이 행동하되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전투선상에 위치할 때는 예비대와 함께 행동한다.

第2節 密集隊形

1. 중대횡대 편성 및 구분(제1도)

제135 중대는 병사들의 신장 순서에 따라 2개 열로 편성하고 이를 4개 소대로 구분하며, 오수(伍數)가 4등분이 안 될 때는 제4 소대에서 1오를 빼고 다음에 제1소대에서 1오를 뺀다.

상등병은 대개 신장 순서에 따라 각 소대에 배치되며 소대는 중대의 우측으로부터 번호를 부여한다.

장교와 하사를 각 소대에 배치하는 것은 중대장의 임무로서, 만약에 장교의 결원이 있을 때는 특무정교(特務正敎), 견습위관(見習尉官) 혹은 고참하사로써 이를 대신한다.

횡대의 대형은 정렬, 관병식(觀兵式) 그리고 제반행동에서 사용된다.

제1도 중대횡대 편성 및 구분



2. 정 돈

제 136 횡대에 있는 중대를 정돈시킬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향도 3보(4보, 5보등) 전「앞으로」

각 소대장 및 준사관은 지시한 보수(步數)만 전진하고 기타는 제65 및 제66에 준하며, 각 소대장은 먼저 자기 소대를 정돈하고 다음에 다른 소대 가운데 자기와 가까이 있는 오를 바로잡아 준다.

3. 배면향(背面向)

제 137 횡대의 배면은 제69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 138 압오열을 후방으로 이동시킬 때는 제70에 준하여 시행하며 중간에 있는 각 소대장은 압오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2보 전진하고 각 압오 및 고수와 나팔수는 그 소대의 가장 가까운 쪽으로 통과한다.

4. 집총요령

제 139 집총요령은 제71에 준하여 시행한다.

5. 횡대 행동

제140 정면행진, 배면행진, 사행진 및 구보는 제84 내지 제91에 준하고 정지와 퇴보는 제93 내지 제95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41 방향전환은 제96 및 제97에 준하여 시행하며, 행진간에 있어서는 중대축 쪽에 있는 위관(준사관)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병사들은 구보로써 차례로 새로운 선에 나아가 제자리걸음을 하며, 중대장은 방향전환이 끝났을 때에 「앞으로 가」 구령을 내린다.

제142 행진간에 장애물을 조우한 소대는 소대장의 구령으로써 제105 및 제106에 따라 측면종대로 행진하고 다시 전개하여 행진하여야 한다.

6. 측면종대

제143 측면종대의 행진 및 이에 속한 제반행동은 제98 내지 제106에 따라 시행하되, 다만 행진간 측면종대로부터 동일 방향에 횡대를 편성할 때는 제141에 따라 시행한다.

측면종대에 있어 소대의 선두에 있는 익하사는 앞열의 앞에 나와 향도가 되고 소대장은 그 바깥쪽에 위치하고, 익준사관은 우측면 방향에 있을 경우에는 후미오(後尾伍)와 좌측면 방향에 있을 경우에는 선두오와 머리를 가지런히 하여 압오열에 위치하고, 중대장은 선두소대장 바깥쪽 2보 되는 곳에 위치한다.

제144 측면종대는 행군 및 제반행동에 사용하는 대형이다. 행군간에 평보행진 혹은 「보조 그쳐」 구령이 내리면 행진하는 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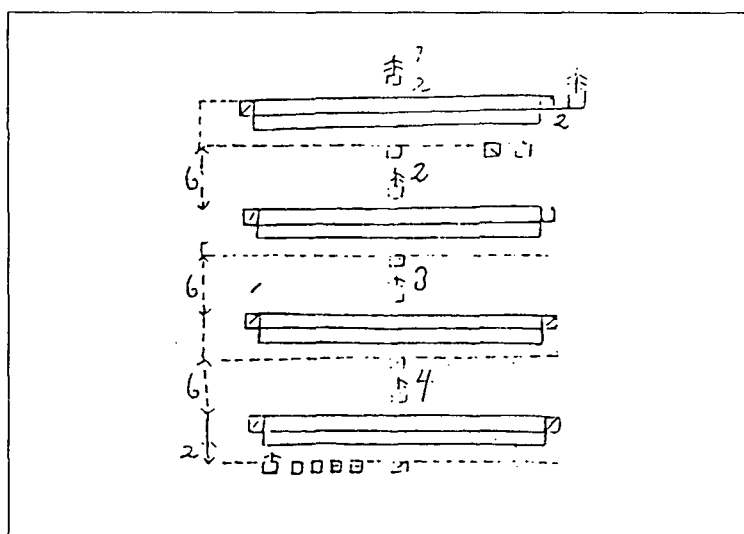
는 그 피로를 줄이기 위하여 「바뀌총」 구령을 내려서 총을 다른 어깨로 옮기도록 한다.

행군중에 도로의 광협(廣狹)에 따라서는 4열측면을 3열측면으로, 2열측면을 1열측면으로 이전한다.

7. 중대중대 편성(제2도)

제 145 중대중대는 4개 소대가 서로 6보의 거리를 유지하고 전후에 중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시의 여건에 따라 6보 거리를 신축성 있게 하며, 원칙(6보 거리 유지) 외의 거리로 중첩할 때는 「중대중대」 구령 앞에 「몇보로」를 추가한다.

제 2 도 중대중대 편성



익소대를 선두로 삼아 종대를 편성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까운 소대로부터 차례로 중첩한다.

중대종대의 대형은 제반행동 및 집합 그리고 관병식에 사용된다.

8. 횡대에서 중대종대로의 이전

제146 구 령

우(좌)로 중대종대 진「가」

정지간에 있는 익소대는 그대로 있으면서 소대장 및 익하사는 정해진 위치로 나아가고 기타소대는 오를 중복하지 않으면서 병사들이 각자 우(좌)향 하여 보폭을 늘리고 최단거리로 익소대로부터 6보, 12보, 18보 거리를 띄어서 종대의 정해진 위치에 이르러 정지하여 정면을 향하고 우측으로 정돈하는데 정돈익에 있는 하사는 선두에 있는 하사에 중첩하여 거리를 취해 정돈할 책임이 있으며, 소대장은 신속히 자기의 정해진 위치로 나아가 소대의 행동을 감시한다.

행진간에 있는 익소대는 계속 행진하고 기타소대는 각자 적시에 반우(좌)향 행진을 하여 구보로써 익소대 후방에 중첩하고 우(좌) 방향으로 나란히 행진한다.

제147 중앙소대를 기준 삼아 종대를 편성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제2(제3)소대 기준 중대종대 진「가」

기준소대는 그대로 있거나 혹은 계속 행진하고 기타 가까운 소대로부터 차례로 후방에 중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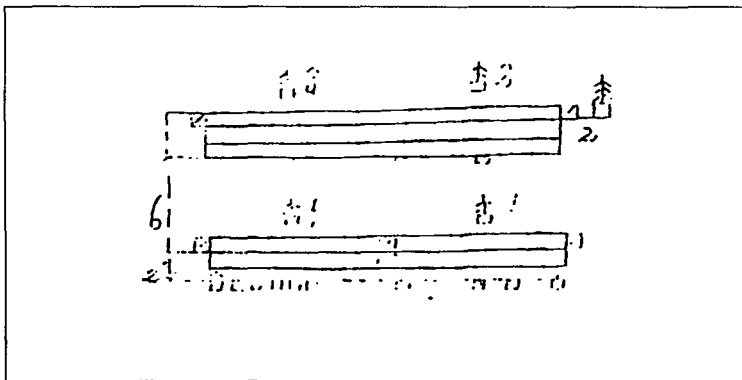
9. 반중종대(半中縱隊) 편성(제3도)

제148 반중종대는 4개 소대를 둘로 나누어 서로 6보 거리를 가지고 중첩하는데 중대종대 행동과 대략 동일하다.

정규배치에 있는 제2, 제3소대를 선두로 삼고 반중종대를 편성하는데, 이 경우에는 제1, 제4소대의 순서가 중첩된다.

반중종대의 대형은 밀집대형, 집합, 행동 그리고 4열 사격에 사용한다.

제3도 반중종대 편성



10. 횡대에서 반중종대로의 이전

제 149 구 령

반중종대 진「가」

중앙의 양개소대는 그대로 있거나 혹은 계속 행진하고 기타소대는 제146에 준하여 후방에 중복한다.

제 150 날개 쪽의 양개소대를 선두 삼고 반중종대를 편성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우(좌)로 반중종대 진「가」

11. 중대종대와 반중종대에서 횡대로의 이전

제 151 구 령

우(좌)로 중대횡대 진「가」

선두소대는 그대로 있거나 혹은 계속 행진하고 각관(各官)은 정해진 위치에 나아가며 후방소대는 반우(좌)향 행진하여 횡대선에 나아가 선두가 된 소대 방향에 정돈한다.

제 152 중앙소대를 선두로 하여 횡대로 이전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중대횡대 진「가」

제 153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하여 나아가면서 횡대를 편성할

때는 미리 방향전환 후에 하거나 혹은 예령 전에 새로운 방향을 지시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모옥(某屋)「아무 집」을 향하여 중대횡대 진「가」

선두소대는 곧 지시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후방소대는 전개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

제 154 사격하기 위하여 전개해서 나아가게 할 때는 예령 전에 사격자세를 지시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입「서서」(궤「꺾어」)의방(擬放)³²⁾「겨냥」중대횡대 진「가」

선두소대는 그대로 있거나 혹은 정지하여 사격자세를 취하고 후방소대는 구보로 전개해 나아가서 동일한 사격자세를 취한다.

12. 중대중대에서 반중중대로, 반중중대에서 중대횡대로의 이전

제 155 구 령

우(좌)로 반중중대 진「가」

중대중대에 있는 선두의 양개소대는 그대로 있거나 혹은 계속 행진하고 후방의 양개소대는 제146에 준하여 각각 전방소대의 우(좌)측 새로운 선에 나아가 우(좌)측 소대에 정돈하며, 다시 중대중대에 복귀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32) 의방「겨냥」: 원문에는 擬「견양」放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바로잡았다.

우(좌)로 반중종대 진「가」

반중종대에 있는 날개 쪽 양개소대는 그대로 있거나 혹은 계속 행진하고 우(좌) 양개소대는 제146에 준하여 원위치에 복귀한다.

13. 측면종대에서 중대종대 및 반중종대로, 중대종대 및 반중종대에서 측면종대로의 이전

제156 구 령

중대종대 진「가」

혹은

우(좌)로 반중종대 진「가」

선두소대의 향도는 그대로 있거나 혹은 계속 행진하고 각 소대는 제105에 준하여 앞열 방향으로 전개해 나아가고 후방의 3(2)개 소대는 거리를 단축하는데, 반중종대를 편성할 때 후방의 양개소대는 제155에 준한다.

제157 측면종대에서 각 소대가 차례로 전개해 나아가 어느 방향에 중대종대 및 반중종대를 편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선두소대가 정지하여야 할 위치를 지시하고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중대종대 취립

혹은

반중종대 취립

「취립」 구령에 각 소대장은 차례로 구령을 내려서 중대종대 및 반중종대를 편성한다.

제 158 다시 동일한 방향에 측면종대를 편성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우(좌)향 항오 각각 좌(우)로 진「가」

각 소대는 제106에 준하여 시행하되 후방의 각 소대는 전방소대에 이어서 전진한다.

중대종대 및 반중종대에 있을 때 중대장은 각 소대장에게 명령하여 어느 방향으로 소대마다 각각 차례로 측면종대로 옮기게 할 수 있다.

14. 중대종대 및 반중종대의 행동

제 159 중대종대 및 반중종대의 정면행진, 배면행진, 반우(좌)향행진 및 구보는 제84 내지 제91에 준하고, 정지 및 퇴보는 제93³³⁾ 내지 제95에 준하여 시행하되, 후방 각 소대의 향도는 그 전방소대의 발자취를 밟으며 항상 6보 거리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중대종대 및 반중종대가 배면향(背面向) 하고 있을 때에 「압오 뒤로」 구령에 소대장은 그 소대의 오른쪽을 돌아 중앙 앞으로 나

33) 제93 : 원문에는 제92로 되어 있으나, 이를 바로잡았다.

오고, 압오는 가장 가까운 쪽을 돌아서 원위치와 마주하는 곳에 위치한다.

제160 구 령

우(좌)로 방향 환「바뀌」진「가」

정지간에 있어서 선두소대는 제96에 따라 방향전환하고 기타 소대는 병사들이 각각 자신이 위치하여야 할 지점에 이르러 우(좌)편에 정돈한다.

행진간에 있어서 선두소대는 제96에 따라 방향전환하고 후방 소대는 선두소대의 동일한 지점에 도착하여 구령없이 차례로 방향을 전환한다.

제161 방향전환할 각도가 작을 때는 제97에 준하여 시행하되 후방소대는 전방소대의 행동에 따른다.

제162 부대가 측면행진을 할 때는 제98에 준하여 시행하되 앞면 방향에 있는 소대향도는 목표를 향하여 행진하고 기타향도는 이에 정돈하여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기타는 제143에 준한다.

제163 측면 방향에 있는 중대중대의 방향을 전환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좌(우)로 방향 환「바뀌」진「가」

행진간에 있어서 방향을 바꾸는 축에 있는 소대의 향오(行伍)는 각각 우(좌)로 방향을 전환하여 새로운 방향에 나아가고 다른 소대는 구보로써 차례로 그 연장선에 도착하여 방향을 바꾼 소대

에 준하여 행진한다.

정지간에 방향을 바꾸는 축에 있는 소대는 그 중심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고 다른 소대는 차례로 그 연장선에 도착하여 우(좌)편에 정돈한다.

작은 각도의 방향전환은 미리 목표를 지시한 후에 시행하되 그 각도가 아주 작을 때는 제161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 164 중대종대로 하여금 행진간 우(좌)향을 할 때는 제103에 준하여 시행한다.

15. 방 진(方陣)

제 165 정지 혹은 행진하는 중대종대가 기병(騎兵)의 습격에 대비하여 방진(네모꼴의 진)을 형성할 때에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기병 방어(防禦)「막아」 방진 진「가」

예령에 선두소대장은 신속하게 그 소대 후방에 위치하고 후미(後尾)소대의 압오열은 그 소대 전방에 도착하며, 「가」 구령에 선두소대는 그대로 있거나 혹은 정지하며 후미소대는 배면으로 향하고 중앙의 양개소대는 절반씩 좌우로 방향을 전환하여 그 공간을 막으며 각 병사들은 착검하여 서서좌 자세를 취하고 중대장 및 익하사는 방진의 중앙에 들어간다.

방진을 편성할 때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다만 각면이 신속하게 사격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166 중대중대로 복귀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중대중대 진「가」

중대는 최초의 대형으로 복귀한다.

16. 사 격(射擊)

제 167 사격은 횡대, 중대중대, 반중중대 그리고 방진에서 시행한다. 사격의 종류 및 방법은 제75 내지 제83에 준한다.

가. 횡대사격

제 168 사격은 중대 혹은 소대 단위로 시행하는데, 소대 단위로 시행할 때는 소대장은 그 소대의 후방에 가서 구령을 내리되 먼저 그 소대의 번호를 알려 주어야 한다.

나. 중대중대 및 반중중대 사격

제 169 정지간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4열사격 총

「4열사격」 구령에 전방의 2개 소대장 및 선두소대의 압오열은 신속하게 한쪽으로 이동하고, 제2선의 소대는 구보로써 열간거리를 단축하며 각 후열은 그 거리를 좁힌다.

「총」 구령에 선두소대는 무릎좌 자세 그리고 제2선 소대는 서서좌 자세를 취하고, 후방의 2개 소대는 그 위치에서 그대로 서

있다.

반중중대에 있어서는 선두의 2개 소대 및 후방의 2개 소대는 중대중대의 전방 2개 소대의 동작에 준한다.

「사격 그쳐」 구령에 제82에 준하고 제2선 소대(후방의 2개 소대)는 원위치에 복귀한다.

제170 행진간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4열사격 회「돌아」 우편 입「서」

「서」 구령에 중대는 정지(우회전)하여 4열사격 자세를 취하는데, 다만 각 후열은 거리를 좁힌 후에 정지한다.

제171 중대중대에 있어 후방의 2개 소대를 한쪽으로 전개하여 나아가게 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4열사격 우(좌)로 반중중대 진「가」

정지간에 있어서는 「반중중대」 구령에 후방의 2개 소대는 전방의 2개 소대에 준해서 행동하며, 「가」 구령에 우(좌)익에 전개하여 전방 2개 소대의 동작과 동일하게 시행하는데, 행진간에는 정지한 후에 시행한다.

다. 방진사격

제172 방진사격에서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전(후)(우측)(좌측)면 일제사격

혹은

전(후)(우측)(좌측)면 각개사격

이어서 중대장 구령과 소대장에게 명령하는데 관계하지 않고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마흉(馬胸)「말가슴」

300 미터

사

격

17. 총창돌격(銃創突擊)³⁴⁾

제 173 밀집하여 있는 중대가 착검하여 돌격을 할 때는 제92³⁵⁾에 준하여 습보로써 돌격하되 고수 및 나팔수는 침습보(侵襲譜)³⁶⁾를 연주하고 적당한 거리에 도달하면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돌 격」

이 구령에 각자는 고함을 지르며 적을 향하여 돌진하고 고수 및 나팔수는 계속 연주하며, 연습에서는 「서」 구령이 내릴 때까지 고함을 지르며 돌진을 계속한다.

최전선에 있는 각 소대는 총을 겨냥해서 사격을 준비하고 적을 격퇴하되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구령으로써 추격사격을 개시하여

34) 총창돌격(銃創突擊) : 착검(着劍)한 상대에서의 돌격을 뜻한다.

35) 제92 : 원문에는 제93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바로잡았다.

36) 침습보(侵襲譜) : 습격시 또는 돌격시 연주하였던 악보(樂譜)이다.

야 하는데, 후방소대는 지형이 허용하는 한 전개하여 추격사격에 가담할 것이 요구되며 이에 가담하지 못한 소대는 세워총 하여야 한다.

제 174 돌격한 후에 퇴각을 하고자 할 때는 밀집부대 및 산개한 병사들은 동시에 퇴각하되, 밀집부대는 대오를 엄숙하게 함을 요하고 또 전황(戰況)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정면으로 방향전환하거나 혹은 새로운 대형을 편성하여야 한다.

第3節 散開隊形

1. 산병 및 산병선 행동

제 175 산개방법 및 산병선 행동은 제114 내지 제122에 준하여 시행한다.

산개는 중대중대, 반중중대, 측면중대 및 횡대로 시행한다. 「헤쳐」 구령에 별도의 명령이 없을 때는 중대중대, 반중중대 및 측면중대의 선두소대는 산개하고, 횡대에서는 산개할 소대를 사전에 지시한다.

제 176 중대의 잔여병력은 증원부대가 되어 산병선으로부터 필요한 거리에 정지하고 특무정교(特務正校), 정교, 급양하사 및 나팔수 1명은 중대장을 수행하고 기타 고수와 나팔수는 증원부대에 소속한다.

2. 사 격

제177 사격은 제124 내지 제131에 준하여 시행한다.

3. 산병선 증가

제178 산병선의 증가는 산병선을 연신(延伸)하거나 혹은 오간(伍間)을 증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제몇소대 우(좌)로 연신 증가

혹은

제몇소대 오간 증가

소대는 소대장의 구령에 따라 곧바로 산개하는데, 연신 증가란 산병선의 날개로부터 약 10보 간격을 취하는 것이고, 오간 증가란 산병의 간격내에 들어가는 것이다. 오간 증가에서는 각 소대가 뒤섞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대는 신속하게 새로운 편성을 하는 데 숙달되어야 한다. 즉, 각 소대장은 그 부하를 구분하며 각 분대장도 역시 그 부하를 구분하여야 한다.

전진하는 증원병이 적의 사격을 받을 때는 구보로써 한번 나아가고 한번 멈추고 하여야 한다.

4. 증원부대

제179 증원부대의 임무는 전투정면을 확장하며 최전선을 지

원하고 혹은 적의 기습 염려가 있는 측면을 엄호하는 데 있으므로, 증원부대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180 증원부대와 산병선간의 거리는 상황에 따라 늘리거나 줄이는 등으로 원칙을 정하지 못하지만, 그 주된 바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최전선을 지원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형을 이용하지 못하는 연습상황에 있어서는 최초 산개에 약 120m를 통칙(通則)으로 삼는다.

제 181 증원부대는 횡대 혹은 종대로 편성하고 또한 제대(梯隊)로 구분하여 산병선의 행동에 따라 통상 보조를 맞추지 않고 행동하지만, 적의 유효사격 아래에서는 보조를 취하고 가능한 한 대형의 변경을 피하고 또 정지간에는 꿰어자세나 엎드려자세를 취하여 적화(敵火)의 효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2개 소대가 하나로 합치는 경우에는 고참소대장이 이를 지휘한다.

5. 취립 및 병취립

제 182 중대장이 하달한 「취립」 구령에 각 소대는 통상 중대종대로 집합하는데 중대장은 신속하게 기준소대를 지시하고 각 소대는 도착하는 대로 차례로 그 후방에 집결한다.

산병선의 병취립은 제132에 준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하면 소대단위로 시행하도록 한다.

第 4 章

.....

大隊教練

第1節 總 則

제 183 4개의 중대중대로서 편성한 대대는 전쟁 요구에 부응하는 단일의 제식(制式)이다. 이는 제반 시기에서 대대장의 구령 혹은 명령으로써 질서정연하고 확실하게 통솔된다.

제 184 대대장은 예령 및 동령을 내리거나 혹은 예령만 내리는데, 가령 동령을 함께 내리는 경우는 각 중대가 동시에 동일한 행동을 할 때에만 국한하고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대장은 다만 예령 혹은 명령을 내리며, 그러한 때는 각 중대장이 이에 따른 적절한 구령을 내린다.

제 185 연병장에서 기본대형의 행동 및 하나의 대형에서 다른 대형으로 이전하는 행동은 통상 보조를 취한다.

전투를 하기 위하여 전개하는 제반 중대의 행동은 대대장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취하거나 혹은 보조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제반 행동은 보조없이 시행하며 만약 적의 유효사격하에 있어서는 보조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第2節 大隊 基本隊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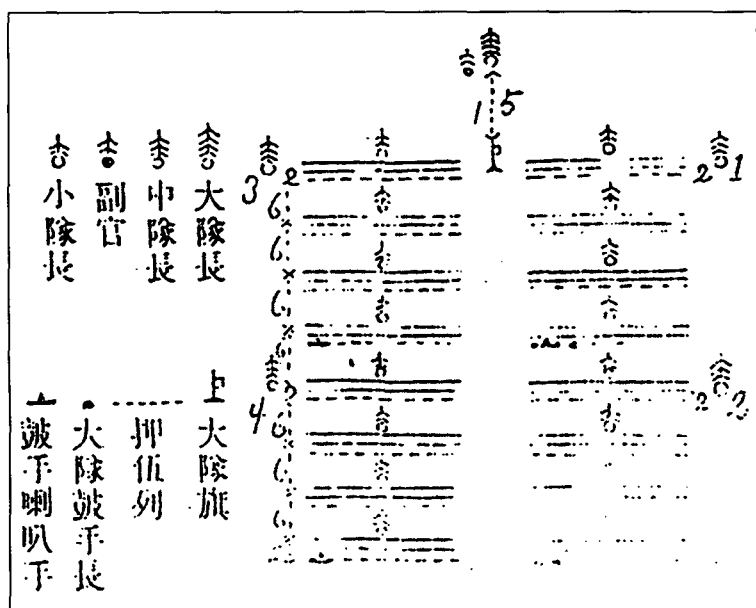
제186 대대는 지형과 목적에 따라 중대중대를 좌우로 연결하거나 혹은 중첩시킨다.

제187 대대의 기본대형은 중복중대(重複縱隊), 대대중대(大隊縱隊) 및 중대횡대(縱隊橫隊)의 3종류가 있으며,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각각의 대형은 정규적인 기본형의 배치로서, 모든 중대는 3가지의 대형에서 건제순에 구애받음이 없이 배치된다.

1. 중복중대(제4도)

중복중대는 집합 및 사격권 밖에서의 행동에 사용된다.

제4도 중복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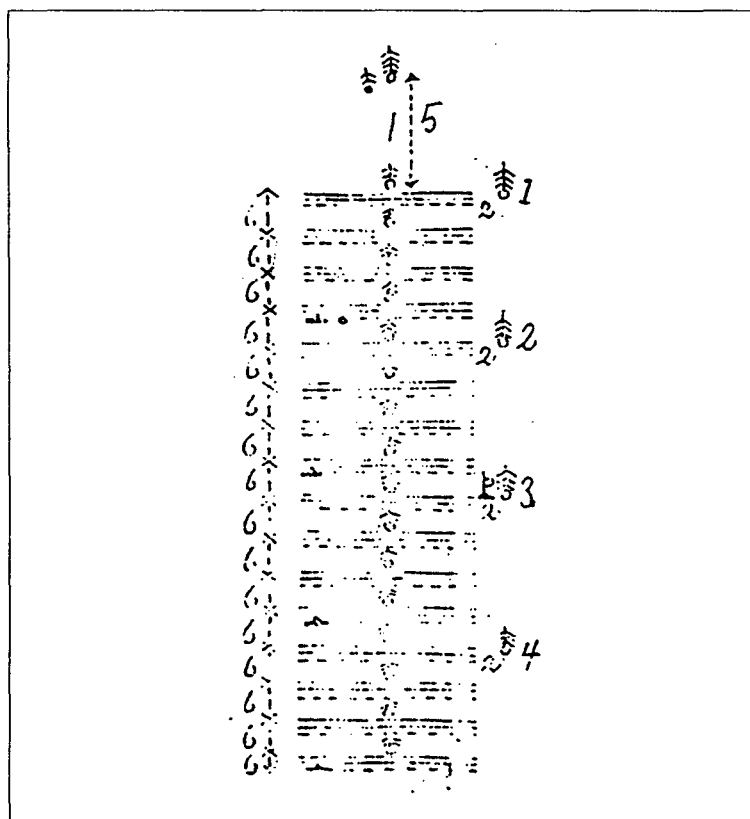


2. 대대중대(제5도)

대대중대는 지형이 좁고 길 때 혹은 행군간 집합에 사용하고 또 행군대형에서 전투대형으로 이전하기 전에 종심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때 그리고 제반행동 및 관병식의 행진에 사용된다.

중대장이 같이 걸어서 갈 때는 제3도(반중중대 편성)와 같이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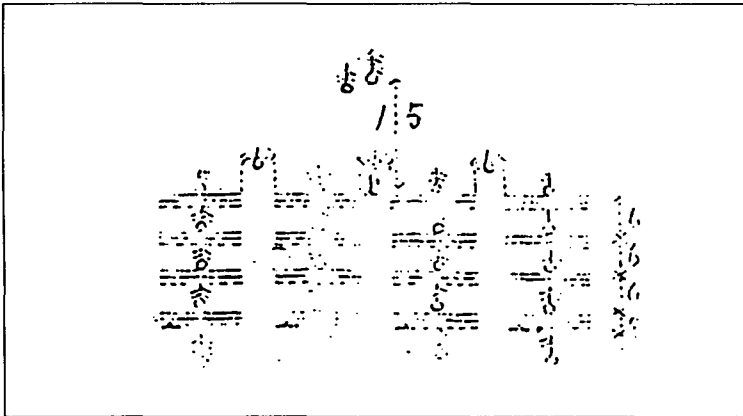
제5도 대대중대



3. 중대횡대(제6도)

중대횡대는 관병식 및 제반행동, 기타 지형과 전개종류에 따라 중심보다 정면을 넓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되며 또한 별명(別命)이 없으면 전투 후에 집합대형에 사용된다.

제6도 중대횡대



그리고 기본대형은 필요시 각 중대간의 거리와 간격³⁷⁾을 늘이거나 줄이기도 할 수 있다.

제188 대대장과 중대장 및 부관의 위치는 제4도 내지 제6도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대대장은 상황에 따라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고 부관은 항상 대대장을 수행하는데 전투대형으로 이전할 때는 필요시 나팔수 1명이 대대장과 함께 행동하고 고수장(鼓手長)은 예비대로 이동한다.

제189 대대기(大隊旗)는 제4도 내지 제6도에서 보는 바와 동

37) 거리와 간격 : 원문에는 '간격거리'로 되어 있으나, 이의 순서를 바꾸었다.

일하되 전투간에는 예비중대에 위치하며, 이 중대가 전투에 투입 될 때는 같이 최전선에 진입한다. 대대기는 대대장이 선발한 하사 1명으로 이를 보유하도록 한다.

4. 정 돈

제190 중복중대 및 중대횡대에 있을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기수 향도선에
중(中)「가운데로」 준(準)「나란히」
직(直)「바로」

「선에」 구령에 기수 및 선두소대의 익하사는 3보 전진하여 기수의 옆에 정돈하는데 대대장 혹은 부관은 그 위치를 바로 하고, 「나란히」 구령에 각 중대는 대대의 중앙에 정돈하며 후방에 있는 모든 소대들은 전방소대로부터 거리를 취하여 정돈한다.

대대중대에 있을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향도 3보(4보, 5보 등) 우(좌)로
우(좌)로 준「나란히」

「우(좌)로」 구령에 각 소대의 우(좌)익하사는 지시한 보수(步數)만큼 우(좌)편으로 나아가는데 대대장 혹은 부관은 그 위치를 바로 하고 「나란히」 구령에 각 소대는 우(좌)익하사에 정돈한다.

기타 정돈은 제136에 준한다.

5. 집총요령

제191 집총요령을 연습하는 것은 대대가 일제히 시행할 때로 국한한다.

6. 하나의 대형으로 다른 대형에 이전

제192 하나의 대형에서 다른 대형으로 이전할 때는 각 중대는 순서를 바로 하고 지름길을 취하여 행동한다.

제193 6보가 아닌 거리간격의 대형으로 이전할 때는 구령중에 기본중대(필요시) 및 보수(步數)를 지시하는데, 가령 중복중대에 있을 때에 「제몇중대 좌로 20보에 종대횡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중복중대에 있어서는 거리간격을 똑같이 같은 보수로 넓히거나 좁힌다. 넓은 간격을 취할 대형으로 옮길 때는 정지간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

7. 중복중대에서 다른 대형으로의 이전

제194 대대중대로 옮길 때는 한쪽에 있는 2개 중대는 그대로 있거나 계속 행진하고 다른 쪽에 있는 2개 중대는 그 후방에 중첩하며, 대대장은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우(좌)로 대대중대

제195 종대횡대로 옮길 때는 선두 2개 중대는 그대로 있거나

계속 행진하고 후방의 2개 중대는 좌우의 한쪽으로 혹은 좌우의 양쪽으로 나란히 정렬하며, 대대장은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우(좌)(좌우)로 종대횡대

8. 대대종대에서 다른 대형으로의 이전

제 196 중복종대로 옮길 때는 선두 2개 중대는 그대로 있거나 혹은 계속 행진하고 후방의 2개 중대는 선두 2개 중대의 좌측이나 우측에 나란히 정렬하며, 대대장은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우(좌)로 중복중대

제 197 종대횡대로 옮길 때는 선두중대는 그대로 있거나 계속 행진하고 기타중대는 그 한쪽에 나란히 정렬하며, 대대장은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우(좌)로 종대횡대

동시에 후방중대는 선두중대의 좌(우)측에 나란히 정렬하도록 하는데, 대대장은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우(좌)로 종대횡대 제몇중대 좌(우)로

9. 종대횡대에서 다른 대형으로의 이전

제 198 중복종대로 옮길 때는 지시한 나란히 서있는 2개 중대는 그대로 있거나 혹은 계속 행진하고 기타중대는 배후에 중첩하

며, 대대장은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중(中)「가운데」(우)(좌)로 중복중대

제199 대대중대로 옮길 때는 지시한 중대는 그대로 있거나 계속 행진하고 기타중대는 제145에 준하여 중첩하되 제3의 중대를 선두로 삼을 때는 좌익의 중대를 제2의 중대라고 하며, 대대장은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우(좌)로 (제몇중대에) 대대중대

10. 행군대형에서 기본대형으로의 이전

제200 구 령

우(좌)로 중복중대

대대중대

우(좌)로 중대횡대

선두중대는 중대를 편성하여 정지하고 기타중대는 행진간에 중대를 편성하여 그 위치에 정지한다.

미리 선두중대에 목표를 지시할 때는 합의한 방향에 기본대형을 편성한다.

11. 동일한 대형으로 거리간격 개폐

제201 기본대형에서 거리와 간격을 넓히거나 좁힐 때는 지시

받은 중대는 그대로 있거나 혹은 계속 행진하며, 대대장은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제몇중대에 몇보 광(廣)「넓혀」(협「좁혀」)

12. 기본대형의 행동

제202 정면행진, 배면행진, 사행진 및 정지는 제159에 준하여 시행하고 종대횡대와 중복중대의 간격은 그때의 상황에 맞게 일시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

중복중대 및 종대횡대에 있어서는 기수의 옆에 정돈하고 대대 중대에 있어서는 통상 우측에 정돈한다. 부대측면 행진은 제162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203 방향을 전환할 때는 다음의 구령을 내린다.

우(좌)로 방향 환(換)「바꿔」

종대횡대에 있어서는 기준중대는 정지 혹은 행진간에 방향전환을 하는데, 행진간에 있어서는 대략 중대의 폭만큼 전진하여 정지하고 기타중대는 차례로 방향을 전환하여 그 위치에 정지한다.

중복중대에 있어서는 우(좌)측 선두중대는 행진간에 방향전환을 하며(정지간에 있어서는 먼저 행진을 시작하여 방향전환을 할 것) 대략 중대의 폭만큼 전진하여 정지하고 기타중대는 차례로 방향을 전환하여 그 위치에 정지한다.

대대중대에 있어서는 행진간에 각 중대가 차례로 방향을 전환

한다. 작은 각도의 방향전환은 미리 목표를 지시하여 시행하며, 그 각도가 아주 작을 때는 제161에 준하여 시행한다.

第3節 戰鬥展開

제204 대대의 모든 중대를 전선(戰線)에 전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많은 경우 필요에 따라 중대를 차례로 전선에 투입하고 그 잔여병력은 통합하여 예비대로 삼아 대대장 지휘하에 있게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최초부터 4개 중대를 동시에 전선에 투입하는 사례도 있다.

대체로 전개는 전진 혹은 퇴각중에는 행진방향에서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그 선상에서 전개하는 것은 정지간에만 국한한다.

전투대형으로 옮길 때는 대대장은 명령으로써 기준중대를 정하고 동시에 전개하여야 할 중대의 위치 및 중대간의 간격을 지시하며 이 중대는 지름길을 이용하여 전개한다.

통상 최초 전개에 있어서는 정면보다는 중심을 크게 하여 점차로 전투력 증가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어도 1개 중대의 예비대를 보유하여야 한다.

전개한 대대의 행동은 공동 목표에 따라 규정하는데, 목표가 미정(未定)일 때는 기준중대에 의거하고 또한 행진방향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새로운 목표를 지시하여야 한다.

방향전환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로운 정면을 지시하는데 이러한 지시에 따라 각 중대는 방향전환을 하고 또한 각 중대의 배치를 서로 변경할 때는 대대장의 명령으로써 규정한다.

대대를 집합시킬 때는 통상 행진시는 행진방향으로, 정지시에

는 그 선상에서 시행하되 각 중대는 지름길을 지나서 기준중대방향에 집합하며 필요시 대형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전투 전개법을 고수하면 안 된다. 중대전투는 완전히 중대장의 장악하에 있으므로 제170 내지 제182에 제시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第5章

.....

聯隊教練

第1節 總 則

제205 대대교련에서 게시한 행동은 대대가 독립대대일 때 뿐만 아니라 다른 대대와 연합할 때도 질서정연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연대교련에서는 질서정연하고 또 행군대형으로 집합 및 전투 대형으로 이전하거나 이와 상이한 대형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대부대 중에서 밀집행동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실전에 임하여 연대가 밀집대형으로서 똑같은 행동을 취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오직 대대에서만 이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연대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손쉬운 행동만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제206 연대장은 예령 혹은 명령을 내리며, 대대장은 이에 적절한 구령을 내린다.

第2節 聯隊의 集合隊形

제207 각 대대는 통상 중복중대로서 1선, 2선 혹은 3선에 배치된다.

3개 대대로 구성된 연대를 2선에 배치할 때는 1개 대대는 다른 2개 대대 간격의 전방 혹은 후방에서 그 중앙에 자리를 잡고, 2개 대대로 구성된 연대에 있어서는 전후로 중첩시키는데 정규 배치에 있어서는 대대의 단대호 순서로 배치하고(제1선에서 제2, 제3선) 기타의 경우에는 대대의 단대호에 구애받지 않고 배치한다.

각 대대간의 거리나 간격은 통상 20보이다. 지형과 목적에 따라 대대의 대형은 대대중대 혹은 중대횡대를 사용한다.

연대장은 연대의 선두부대 앞 20보에 위치하고 연대부관은 그 좌측 뒤에 위치하는데, 연대가 전개할 때 필요시는 나팔수 1명이 연대장을 수행한다.

제208 군기(軍旗)는 3개 대대로 편성된 연대에 있어서는 제2대대에, 2개 대대로 편성된 연대에 있어서는 제1대대에 두는데, 이 대대는 대대기(大隊旗)를 사용하지 않으나 만일 군기(연대기)를 내지 않을 때는 대대기로써 이를 대신한다.

연대장이 선발한 일등병 5명으로 군기위병(軍旗衛兵)을 편성하는데, 이 위병은 군기를 중심으로 하여 2명은 좌우에 나란히 위치하고 다른 3명은 그 뒤에 정렬한다.

군기의 위치는 제189와 동일하되 다만 대대가 전투대형으로 이동할 때는 연대 예비대에 위치한다.

第3節 集合大形の 行動

제209 단순한 전진, 퇴각, 방향전환 및 부대측면행진은 대대 교련에 준하여 시행하되, 전진 및 퇴각시에는 기준대대를 정한다.

연대행동에 있어서는 대대마다 보조를 똑같이 하고 또한 나란히 정렬한 중대선두의 소대들은 똑바로 하나의 선상에 정돈함을 요한다.

연대를 하나의 선에 배치한 때에 방향전환(8/10 이상의 방향전환은 하지 말 것)을 할 때는 기준대대가 제203에 따라 방향을 전환하고 인접 각 대대는 지름길을 지나 그 연장선에 이른다.

연대를 2선 혹은 3선으로 배치할 때는 제1선은 방향을 전환하여 2선 혹은 3선의 폭만큼 전진하고 제2, 제3선에 있는 대대는 지름길을 지나 그 위치를 잡는다.

第4節 戰鬪展開

제210 연대는 중심배치에 주력하는데, 연대내의 모든 대대를 전선에 전개하는 방법이 많으나 통상 연대장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대만 사용하고 나머지 대대는 연대장의 장악하에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예비대대는 제대(梯隊)가 되어 일익 혹은 양익의 후방에 위치하고 혹은 중앙의 후방에 위치하는 사례도 있으며 최초의 전투정면이 점점 협착(狹窄)해짐에 따라 후방부대는 점점 멀리 측방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는 후방대대를 투입하여 전투정면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전진에 있어서, 선두대대의 퇴각은 후미대대에 준하여 행진방향에 전개하며, 행군대형으로 전개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먼저 대대마다 전개한다. 연대집합대형이 정지할 때는 그 선상에 전개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전개행동을 위하여 반드시 기준이 되는 대대를 지정하는데, 행동중에 전개할 때는 반드시 후방제대가 될 대대는 정지하여 필요한 거리와 적당한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중심거리는 상황에 따라 정하며, 제1선에 있는 각 대대의 간격은 임무, 목적 및 지형에 따라 변화하고 최초전개에 있어서는 명령으로써 간격을 정한다. 전개는 지름길을 지나 시행한다.

전개하는 연대행동은 각 대대를 위하여 공동 혹은 각개행진 목표를 지시하며, 혹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이나 일익에 기준하도록 지시한다.

방향전환은 대개 후방제대를 적절히 전개하고 정면을 전환하며 필요시 구(舊) 제1선으로써 후방제대를 삼는다.

연대를 집합시킬 때는 통상 행진간에 있어서는 행진방향, 정지간에 있어서는 그 선상에서 시행하며, 각 대대는 지름길을 지나 기준대대 방향에 집결하되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 대형을 지정하여 준다.

대대 내에서 모든 중대의 전투전개는 대대장의 장악하에 있는 것이므로 제204에 게시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第 6 章

.....

旅團教練

第1節 總 則

제211 제5장에 게시한 연대교련은 여단에도 적용한다. 여단장은 예령 혹은 명령을 내리며 기타는 제206에 준한다.

第2節 旅團의 集合隊形

제212 여단의 배치는 각 연대를 횡으로 하거나 중첩시키며, 정규배치에 있어서는 단대호가 작은 연대를 우측 혹은 전방에 위치시키고 정규가 아닐 때는 연대단대호에 구애받지 않는다. 각 연대의 거리나 간격은 통상 30보이다.

여단장은 여단의 선두부대 중앙의 앞 30보, 여단부관은 그 양측 뒤에 자리하는데 여단 전개시에 필요하면 나팔수 1명이 여단장을 수행한다.

第3節 集合大形の 行動

제213 집합대형에서 여단의 행동은 가장 단순하게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연대의 행동에 준한다.

第4節 戰鬥展開

제214 전투정면 내에서 독립전투 임무를 예하 연대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여단 전개에 기초가 되며, 그 실시방법은 상황에 따라야 한다.

여단장이 여단과 병행하여 행진목표를 연대마다 부여할 때, 전개는 가장 간편하고 또 질서정연하게 시행될 수 있다.

최초 1개 연대만 전개할 때는 후방에 있는 연대는 일익 혹은 양익의 뒤에 제대를 만들어서 적당한 위치를 점령하여야 한다.

전개한 여단의 행동을 규정함은 연대마다 행진목표를 지시하는 것이다. 기타는 모두 연대전투 전개에 게시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연대 중에서 모든 대대의 전투전개는 연대장의 장악하에 있는 것이므로 제210³⁸⁾에 게시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38) 제210 : 원문에는 제212로 되어 있으나, 이를 바로잡았다.

第 2 部

戰 鬪

第 1 章

.....

一般原則

第1節 緒 言

제215 제1부에 규정한 단일(單一)한 제식을 엄정히 준수함은 보병교련을 하나같이 완벽하게 하는 기초이다. 그러나 이 제식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전쟁 요구에는 교묘하고 적절하게 응용하지 않으면 이는 그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제216 연습장에서 전장(戰場)의 현상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피해와 기타 실제로 불리한 감정은 모두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다.

이들 현상은 통상 군대정신을 저상(沮喪)하는 것이며, 그 정도는 사기의 진작 여부 및 피해의 다소에 따라 차등이 있다.

제217 따라서 평시 교련의 주요한 목적은 군의 사기를 양성하고 진작시키며 군기를 유지함에 있으므로 효과적인 방법은 모두 실시하고 제반 연습에서 모든 제식을 실행함이 엄숙할 때는 이와 같은 목적의 대부분을 달성하게 된다.

제218 연습장에서 사소한 연습이라도 앞에 제시한 방침을 등

한히 할 때는 특히 전쟁 요구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폐해(弊害)가 된다.

전황에 따라 필요할 때는 기본대형을 무시하는데 주저(躊躇)하지 않아야 하며, 여러 부대가 뒤섞이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엄격하고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9 이를 요약하면 연습으로써 실전에 적응하도록 함은 현재의 상황에 따라 적당한 대형을 선택하는데 있고, 이러한 대형 선택은 실전과 같이 먼저 아군 병기의 효력을 극대화하고 다음 적군의 화력 효과를 감쇄(減殺)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 대형으로써 이러한 2개의 요령이 부합할 때 연습이 실전의 대비에 적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윗글의 근본취지로써, 점차로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이행하여 그 순서가 점점 바로잡히면 실전에 이르러 더욱 확실히 전투의 여러 감정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第2節 練兵場 效力

제220 연병장(練兵場)은 조전에 있는 각종의 제식을 단련하는 장소이다.

제221 모든 전투는 목적, 병력, 시간 및 지형에 따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점 가운데 ‘목적’은 중요한 것으로 지휘관의 결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가장 크다.

즉, 그 목적에 따라 혹은 공격하고 혹은 방어하며 혹은 퇴각을 요하므로 연병장에서는 그 목적을 알려서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연병장에서 여러 제식의 응용은 전개와 제대구분 그리고 전투실행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전술상 가능한 원칙은 연습으로 한정하고 이를 위하여 연병장의 지형이 어떠한 상태인가에 유의할 필요는 없는데, 그 이유는 전투임무 및 다른 부대와의 관계에 의하여 적당한 대형을 선정하는 것이 지형응용에 비하면 매우 긴요하기 때문이다.

제222 그러나 연병장의 지형을 실전과 같이 응용할 기회가 있으면 곧바로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할 때는 상황을 상정하여 고지, 촌락, 뽕나무밭을 공격하며, 고지에 방어배치를 하고 또 애로(隘路)를 경유하여 전진 혹은 퇴각하는 등의 사례를 연습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형을 응용하는 것이 전투임무를 실행하는 것만 같지 못하기 때문에, 연병장에서는 지형을 응용하는 연습 횟수를 적게 하는 것이다. 연병장 지형을 응용할 때는 미리 연습할 부대에 알려야 한다.

제223 연병장은 지형지물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 동일한 위수지구(衛戍地區)에서는 항상 연습상황이 생각보다 거의 일정하여, 교련의 응용이 변화가 없는 국지전술 연습이 되어 자칫하면 하나의 모형에 빠지게 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단절부분이나 애로(隘路) 등을 가정할 때는 그 행위에 따라 연병장 연습을 전환하는 이익이 있다.

제224 연병장 연습은 야외에서 여러 차례 시행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므로 일반원칙 및 대형의 선택법을 이해하여 충분히 그 기초를 달성한 후에 야외연습을 시행할 때는 분명히 이득이 있다.

며, 검열하는 방법도 이런 취지에 따라서 연병장 및 야외를 번갈아서 시행되어야 한다.

제225 모든 종류의 전투연습에 있어서는 소수의 병력과 약간의 표기(標旗)³⁹⁾로써 적군의 배치선을 표시하는 것이 긴요하고 혹은 이 가상의 적에 점차적으로 병력을 증가시켜 주어서 후방부대의 위치 및 행동을 표시하고 또 같은 병력규모의 양개부대로 하여금 대항연습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3節 散開隊形 및 密集隊形

제226 보병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은 어디에서든지 전투가 가능하며, 가령 충분히 무장한 때에 거대한 장애를 조우하더라도 결단코 뒤로 물러나면 안 되므로 산개대형은 특히 이러한 요구에 적당하다.

제227 보병전투는 화력으로써 결전하는 것이 상례(常例)로 화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는 산개대형과 같은 것이 없고 밀집대형으로써 사격하는 것은 예외이다.

제228 커다란 밀집부대가 적보병의 유효사격을 받을 때는 그 시간이 짧아도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밀집부대가 직접전투에 참여하는 시기는 짧고 산개전투는 장시간에 걸쳐 통할 수 있는 것이다.

제229 밀집대형의 목적은 횡대와 종대를 막론하고 협소한 지역에 집결되어 있는 병력을 구령으로써 일제히 행동을 하도록 하

39) 표기(標旗) : 목표표 표시하기 위하여 세우는 기를 뜻한다.

는데 있다.

제230 산개대형에 있는 각개 병사들은 일정한 위치, 자세 및 집총요령 등을 고수할 필요가 없으며, 민첩하고 용감하며 판단력과 자신력이 풍부하여 화기사용 및 지형 이용을 훌륭히 하며 항상 그 지휘관에게 주의함이 요구된다.

제231 지형의 단절, 음폐(蔭蔽) 및 전투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란(紛亂)으로 인하여 산개대형의 지휘는 점점 곤란해지므로 이러한 곤란을 제거하는 것이 교련의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산개대형의 행동으로 군대교련의 숙달 정도와 군기의 확립여부를 판정할 수가 있다. 이는 각 병사들이 지휘관의 지휘가 미치지 못함에 따라 그 독단적인 진행(專行)의 사례가 점차로 많아지기 때문이다.

제232 산개전투 및 산개와 밀집의 양개 대형의 전환동작은 밀집대형의 응용보다 여러 차례 연습을 필요로 하며, 이 밀집대형은 산개한 병사들을 지원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제233 산개대형은 현재 전투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이 방법으로써 전투를 개시하고 또 종결짓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므로 산개대형은 보병의 주요한 전투방법이다.

제234 그러나 밀집대형은 전투준비와 산개한 병사에 대한 지원 및 증원 또한 상황에 따라 결전(決戰)에 유효 불가결한 것이므로 최전선에서 역시 예외로 사용하고 있으나, 밀집대형은 산개대형과의 연계(連繫)가 없으면 결코 전투를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第4節 散開戰鬪

1. 총 칙

제235 산개전투 효용이 증대하면 그 지휘방법에 특수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각개 병사들에게 행동 및 화기사용을 자유로이 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그 직무를 다함에 편하고 쉽도록 하는 것이다.

교련할 때 병사들로 하여금 산개전투가 밀집대형에 비해 그 직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하여야 하며,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각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명심하도록 할 것이다. 대체로 산병의 자세에 크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이목(耳目)을 활용하여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독단으로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병사들의 이해력에 따라 판단하고 자신을 가지는 정신을 양성하고, 특히 병사들로 하여금 적에게 등을 보이는 것이 제일 위험한 일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장교의 책임이다.

2. 산 개

제236 대체로 전투는 산개전투로부터 시작된다. 전투에 닥쳐서는 먼저 적과의 접촉을 모색하고 또 아군의 행동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기 때문에 최초전개는 병력을 절약하고 또한 경솔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불의의 적습(敵襲)을 피하려면 위태로운 방향에 소수의 병사들

을 전개하고 이미 습격을 받았을 때는 신속히 적절한 병력으로써 대항하여야 하며 이는 행동의 자유를 회복하고자 함이다.

제237 그 이후의 결단은 전투를 지구전으로 오래 끌어가든지 또 결전을 함에 있으며, 결전을 할 경우에는 계획을 확정하여 필요한 규모의 병력을 곧바로 전개하고 또 적절한 공동행동이 가장 편리한 배치를 취하는데 주저하면 안 된다.

대체로 전투를 실행함에 있어 소요에 충분하지 못한 병력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커다란 과실이며, 대개 이와 같은 때는 항상 적은 병력으로써 많은 병력과 전투하여 스스로 유리한 상황을 방기(放棄)하는 것이므로 오직 피해만 입을 뿐 아니라 부대의 사기를 좌절(挫折)시키게 되는 것이다.

제238 대체로 결전을 시행할 때는 전개가 가능한 지역을 모두 이용하여 농밀(濃密)한 산병선으로써 이를 점령하고 전투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역은 지형 및 인접한 전투부대에 따라 결정된다.

제239 전투가 개시되면 지휘관은 전투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병력을 확보하여, 그 이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적당히 협소한 정면을 점령하는 것이 긴요하다.

최초전개는 가끔 소밀(疎密)하고 또 항시 정면이 지나치게 넓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농밀(濃密)하게 산병을 배치하여 전투를 계속 하는 것이 어렵고 이는 사상자(死傷者)를 다수 발생하게 하는 것이며 또 확실한 화력 유지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시 병력 1개 중대의 정면 폭은 100m를 분명히 초과하지 못한다.

평시의 전투연습에서도 1개 중대의 정면 폭이 역시 100m 정도

이며, 이 정면 폭은 평시 중대 병력수에 비하면 과대하지만 그러나 평시에 있어서는 사상으로 인한 병력 감소가 없으므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제240 산병은 지시된 간격을 계속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충분히 지형을 이용할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조밀(稠密)하거나 이격(離隔)하는데 사격개시전 전진중에는 특히 그러하지만 이를 위하여 행진방향과 속도의 변경은 없고 또 정면 전체를 노출시키면서 확장하는 것은 안 된다.

제241 애써 정돈하려고 하는 것은 간격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가치가 없으며, 다만 산병선 가운데에서 서로의 행동 및 사격을 방해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소부대에 있어서는 전투 개시후에 적의 상황이 미상(未詳)일 때는 그 지휘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산병선상의 1개 부대를 지정하고 이에 준하여 행동하도록 한다.

제242 산병선 사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근접하던지 혹은 산개하여 바로 점령할 수 있을 때는 하급지휘관은 그 점령할 구역 내에서 각개 병사들로 하여금 화기의 효과를 나타내고 또 그 부하를 유도하여 차폐하는데 가장 적절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야 한다.

산병선의 측익이 인접부대나 자연장애물에 의탁하지 못할 때는 항상 숙련된 책임자에게 약간의 병사를 주어 전투 척후(斥候)로서 측방 감시를 맡겨야 한다.

제243 피해를 입은 산병선의 화력을 유지하여야 할 때 혹은 다시 화력을 증대하여야 할 때 또 전진을 독려하여야 할 경우에는 산개할 병사들을 증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78 및 제305를

참조할 것)

3. 사 격

제244 산개대형의 사격은 보병의 주요한 전투수단이며, 이 사격은 적병을 막고 또 아군의 공격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는 곧바로 전투 국면을 끝내게 한다. 많은 경우에 근거리로부터 우세한 사격을 목표물에 집중하여 돌격하기에 이르면 적병은 이미 퇴각하였거나 혹은 겨우 방어할 진지로 향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격효과를 이용할 때는 각자의 침착함, 사격의 숙련 그리고 사격군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제245 산병선의 사격효과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려면 다수의 총기를 사용하고 지휘를 통일하여야 한다. 산병선은 여러 부대로 하여금 항상 같은 종류의 사격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나, 상황에 따라 각 부대에 각각 다른 목표를 지정하고 각각 별도로 사격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제246 연발사격 응용의 적절한 시기는 다음과 같다.

- 공격에서는 돌격전 최후준비를 할 때
- 방어에서는 적의 돌격을 격퇴할 때
- 기병(騎兵)을 방어하거나 혹은 전투중 갑자기 적과 조우할 때(보루 근처, 촌락, 삼림 속 등의 전투)
- 퇴각하는 적을 향하여 추격사격을 할 때

연발사격은 통상 300m 가늠자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1,000m 이내 거리에서 짧은 시간 특별한 가치가 있는 목표가 출현하여

커다란 사격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서만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예외로 이 사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제247 사격의 응용은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확실한 사격권 내에 있는 적의 부대를 조준하지 않으면 분명히 효과가 없음을 명심하여야 하고 적의 병과종류를 택하여 사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적의 보병을 제일 주요한 목표로 또 포병에 대한 사격도 역시 소홀해서는 안 되므로 목표선정은 먼저 전술 요지에 따라 판단하고 다음에 고심광밀(高深廣密)함을 택하여 그 효과를 헤아리는 것이다.

정예부대는 비록 적의 화력하에 있어도 아군이 사격효과를 얻을 수 없을 때는 태연자약하게 행동을 중지하고 느긋하게 응사(應射)하지 않는다.

제248 간접사격으로 효과를 얻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사격은 기지거리(既知距離)에서 목표가 안 움직이고 있으며 탄도의 만곡(彎曲)을 이용하여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에만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보루(堡壘)내에 있는 적을 상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제249 사격지휘자는 통상 최전선에 있는 소대장 혹은 중대장 뿐이고 기타 상급지휘관은 전투에서 다른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예하지휘관의 직무 영역내에 간여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며, 그 사격에 간여할 수 있는 시기로는 전선 중에 화력을 증대하거나 혹은 화력을 집중시키는데 적당한 지점에 필요한 병력을 배치할 경우 등이다.

그러나 연습에서 상급지휘관은 예하지휘관의 사격지휘가 적절한지 여부를 감독한다.

제250 전투가 지속될 때는 산병선에 있는 지휘관들이 다수 손실됨으로써 사격지휘가 종종 불안해진다.

이러한 경우에 이르면 사격군기를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므로 대개 교육이 완벽하고 군기가 엄정한 부대는 각개 병사들이 사려(思慮)와 특히 용감하여 경험이 많은 자를 표준하여 최전선의 행동을 규정하면 아군과 동일하게 곤란한 경우에 처한 적에 대하여 유리한 전투를 계속할 수 있다.

제251 총격전의 시초부터 항상 그 휴대탄약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약간의 탄약을 사격하여 소모하면, 즉 전투력의 약간이 감쇠(減衰)할 것을 고려하여 반드시 유효한 경우에만 사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방향에 하나의 목표에 대하여 사격이 가능하다고 결정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탄약을 충분히 사용하여야 하며, 그 효과가 불확실한 사격은 아군부대의 사기를 좌절시킬 뿐만 아니라 적병의 예기(銳氣)⁴⁰⁾를 증가시켜 주는 사유가 된다.

일반적으로 탄약은 적당히 절약하여(특히 원거리 혹은 중거리에서) 결전의 시기에 좋은 결과를 얻는 데에 필요한 탄약을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긴요하다.

전투간 탄약보충에 관하여는 야외요무령(野外要務令)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40) 예기(銳氣) : 원문에는 충기(銃氣)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으로 보아 '예기'로 수정하였다.

4. 행 동

제252 산병선에서의 행동은 항상 적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극히 단순하여야 한다.

적의 사격권 밖에서의 행동은 질서 및 연계의 유지가 주요하고 그 사격권 안에서의 행동은 최단거리로 적에 접근하는 것이 주요하다.

제253 전진 혹은 퇴각행동은 지시된 행진방향을 유지함이 특히 긴요하므로 적의 화력을 적게 받을 때는 반우(좌)향 행진으로써 조금씩 행진방향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동한다. 그러나 적의 화력하에서는 장시간에 걸친 측면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사격권내에서 방향전환을 하는 것은 완전히 예외로서 만약 다른 정면에서 산병선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후방에 있는 밀집부대를 새로운 정면에 전개하고 앞서의 산병선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부 병력은 집합시켜야 한다.

제254 산병선에서의 행동은 통상 평보의 속도로써 시행하지만 적의 바로 앞에서 한 곳에 다다르고자 할 때와 적 화력의 위험지역을 통과하고자 할 때는 구보를 사용한다.

통과할 거리가 길 때는 구보로써 약간의 거리를 통과할 때마다 정지하여 엎드리고, 유효 사거리내에 이르면 각개 병사들은 정지간에 사격을 하고 그 이후에 전진행동을 준비한다.

이러한 약진(제122 참조)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산병선의 일부 병력이 적에 대하여 사격함으로써 다른 일부의 전진행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적전(敵前)에서 한 번의 약진거리는 각종 상황(토지의 형상,

부대의 상태, 적 화력의 강약 등)에 관계된다.

제255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공격행동은 매우 곤란하고 또 전진이 지연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며, 대개 유효한 적의 화력하에서 한 곳에 점거한 산병선으로 다시 전진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약진마다 그 정도를 증가하기 때문에 약진은 경솔하게 시행하면 아니 된다.

여하한 경우에도 적 화력의 효과를 고려하여 계속해서 전진할 만한 때는 곧 속행하여야 하며, 따라서 연습에서도 약진행동은 원거리로부터 개시하지 않고 또 평지에서 전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연습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를 위하여 사격을 충분히 준비하고 간단없이 전진을 하도록 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 차폐가 잘된 적의 사격하에 오래 정지할 때는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것, 그리고 퇴각은 완전히 자멸(自滅)에 빠진다는 것 등을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제256 측면 혹은 감림지(瞰臨地)⁴¹⁾에서 우세한 화력으로써 적의 화력을 제압하는 것이 간단없이 전진하는 행동에 가장 유리하다.

5. 취립 및 병취립

제257 전투가 끝난 후와 추격사격을 마친 후에 산병선에 집합하며, 퇴각을 당하였을 때는 적의 추격을 받지 아니할 곳에 집합하여야 한다.

41) 감림지(瞰臨地) : 감제지형(瞰制地形)으로 지형의 높이, 크기, 또는 위치, 시계 및 사계로서 주위의 지형을 제압할 수 있는 지형을 뜻한다.

제258 집합은 적을 향하여 밀집부대 소재지에, 행동중이면 행진방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259 병취립은 전투중 병력(兵力)⁴²⁾을 한 곳에 집합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각개 병사 및 각 소부대는 그 전의 위치로 복귀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신속하게 밀집부대에 집합하여야 한다.

6. 제병과에 대한 행동

제260 보병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은 정신상의 활동 외에 사격교련, 사격군기 및 사격지휘에 있다.

지휘관의 임무는 사격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다수의 총을 사용하고 혹은 확장한 전선의 화력을 맹렬하게 요지요부에 집중하는데 있다. 아군의 병력이 적 전선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 차폐될 때는 위의 요령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

제261 보병(步兵) 1명은 개활지(開豁地)라도 사격을 준비한 때는 기병(騎兵) 1명보다 우수하다. 가령 다수의 기병에 대하여도 침착하고 숙고하며, 시종 적을 주시하여 적당히 화기를 사용한다면 이들을 크게 두려워할 바가 없는 것이다.

보병이 태연자약하고 확고한 자세를 가질 때는, 가령 우세한 기병이라도 두려워할 바가 없으므로 조준을 정확히 하여 침착하게 사격하고 화력을 제한받지 않으면 어떠한 대형의 기병이라도 방어하기에 적당하다.

42) 병력(兵力) : 원문에는 역병(力兵)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수정하였다.

기병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가능한 한 다수의 화기를 배열하는데 있기 때문에 대형 변환 및 방향전환은 이 목적으로만 시행하여야 하고, 또 후방제대의 사격으로 인하여 그 측면이 안전할지라도 확장한 정면으로써 기병에 대처하지 못할 때는, 가령 사주방어진지를 편성하여도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제262 구보중에 있는 각개 병사들은 기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없지만 이에 반하여 침착하게 사격을 하면 그 습격에 대하여도 충분히 자신력을 가지게 되고, 만약 지형이 기병에 대하여 장애 및 차폐물이 되면 더욱 각개 병사들의 힘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하시라도 적의 보병과 전투하는 각개 병사들은 가령 기병의 압박을 당할지라도 가능한 한 밀집대형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제263 보병은 적의 우세한 기병에 대하여 포병 혹은 보병의 지원이 없을 때와 개활지에서 각 방면으로 우세한 기병이 여러 방면에서 습격해 오더라도 추호도 이를 염려할 것이 없이 전진하여야 한다.

제264 가령 부대가 탄약을 모두 사용하여 바닥이 날 때나 혹은 피해가 많은 전투후에 그 대오가 동요할 때 혹은 개활지를 퇴각함에 있어 우세한 기병의 압박을 끊임없이 받을 때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라야 사주방어진지를 편성하는 것이 적당하다.

대개 기타의 경우에서 보병은 다음의 요지를 명심하여야 한다. 즉, 자기 행동을 부득이 중지해야 할 때 혹은 유효한 사격을 하지 못할 대형에 있을 때는 기병에게 어느 정도의 성과를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제265 포병에 대한 전투는 원거리에서는 그 화력이 보병보다 우세하고 약 1,000m 거리에 이르러 비로소 그 위력이 대등하고

1,000m 이내의 거리에서는 보병이 포병보다 우세하다.

그러므로 보병은 지형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적의 포병에 접근하여 먼저 곧바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수레의 말을 사격하고 다음에 그 병사들을 사격하는데, 보병은 원거리에서도 포병에 대하여 사격하는 것이 유효한 경우가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많은 탄약이 필요하게 된다.

보병은 결코 원거리에서 포병과 그 위력을 경쟁함은 불가하며 이러한 행동은 한갓 탄약만 허비할 뿐이다.

7. 공작기구(工作器具)의 사용

제266 오늘날 화기의 효과에 대하여는 인공차폐물의 효용이 매우 크므로, 대개 적절한 시기와 위치에 설치함이 긴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우나 이를 설치하는 것은 오로지 지휘목적에 적절하도록 하고 또한 그 지휘를 간섭하여 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그 목적이 확정되지 못하여 먼저 공사를 시작할 때는 그 차폐물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휘를 제한받게 되기 때문에, 통괄해서 지형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또한 행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그 지휘관된 자는 기구 사용 여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장소와 시기에 기구의 응용 여부를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전술상의 연구가 필요하다.

인공차폐물 가운데 가장 간단한 것은 산병호로서, 축조방법은 '보병공작교범규정'에 따르며 방어에서는 산병호를 축조함과 동

시에 전방의 거리를 측정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공격에서도 이미 탈취한 지역을 유지하고 견고히 하기 위하여 기구를 사용하면 크게 효용이 있다.

연습에 있어서는 상정(想定)한 전황에 따라 기구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가 있으나, 연병장이나 야외를 막론하고 산병호를 축조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만이라도 준비작업을 하고 그 축조물이 산병호로 간주되도록 할 것이다.

8. 전투간 지휘관 및 병사의 행동

가. 지휘관

제267 대체로 지휘는 지휘관이 최하급자에 이르기까지 간여하는 일과, 그 구령을 사용하는 일이 점점 감소해짐에 따라 곤란한 정도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전투 수행중 명령을 하달하는데 가장 용이한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휘관은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각급지휘관은 연습에서도 실전에서 취하게 될 자세 및 위치에서 명령을 내리지만 교련상 필요할 때는 이 원칙에 의거하지 않고 상급지휘관은 자기의 의도한 바에 따르며, 필요시 하급지휘관에게도 역시 이와 같이 자유를 허락한다.

그러나 승마장교(乘馬將校)는 간혹 하마(下馬)할 때 이로 인하여 지휘가 곤란하므로 이에 익숙해야 하고 또 병사들로 하여금 맹렬한 적의 화력 아래에서 지휘관이 걸어서 갈 때라도 이를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8 산개전투를 지휘함에 있어 각급지휘관은 특히 위계질서(位階秩序) 및 방향을 똑바로 유지하는 데 주의하고, 기타 상급지휘관은 예하부대가 장악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독하며, 하급지휘관은 그 분담된 임무를 끝낸 후에는 신속하게 그 소속부대에 합류하거나 혹은 상관의 지시에 응할 수 있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휘관은 필요한 자에게만 명령하여야 하고, 또 실행하는 자는 그 지시된 목적에 따라 공동행동을 하고 독단(獨斷)에 빠진 나머지 함부로 사용하여 과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범위내에서 적절한 독단전행(獨斷專行)은 전시에 좋은 성과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령은 최하급 지휘관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제269 소대장은 그 소대의 사격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 지정된 장소에 소대를 배치하고 또 지시에 따르거나 혹은 독단으로 사격목표를 지정하여 항시 적병의 동정을 주시하고 또한 전선의 인접한 모든 소대와의 협력에 노력하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산병선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진시켜 적에게 접근하든지, 포위를 시도하든지 혹은 적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릇 산병선상에 있는 소대장은 능히 지형과 적에 대하여 점유할 수 있는 이익을 간파(看破)하여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으로 이와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제270 분대장은 소대장을 보좌하여 지정된 구역내에 각개 병

사들을 배치하며, 무기사용과 가늠자의 설치 그리고 탄약소비 등에 관한 책임이 있다.

나. 병 사

제271 병사들은 행군 및 육체적 노동을 한 후 전투로 이행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전시에는 더욱 부족함이 많아서 한층 곤란을 더하기 때문에 병사들은 강직하고 씩씩하며 용맹스럽고 사려와 과단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성질은 최대의 위험한 상황에 있게 되는 병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육을 통하여 이를 양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병사들은 양질의 교육에 의하여 그 성질을 공고히 하고 독단에 익숙하여 능히 자신을 극복하고 또 점차 습관적으로 육체노동을 참아내고 간단한 전투방법에 숙달될 때, 비참한 전투감정에 동요하지 않는 참된 병사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것이다.

제272 병사들은 전진중에 가령 적의 화력이 치열하여 피해가 매우 많을 때라도 명령없이 정지하면 안 되며, 무릇 피하여 달아나는 것은 섬멸에 빠지는 것이고, 맹렬하고도 과감한 공격은 항상 성과를 올리게 되는 것이다.

제273 방어에 있어서 병사들은 확보해야 할 위치에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고, 적병이 접근함에 따라 아군의 화력이 점점 적을 많이 살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각개 병사들은 탄약을 절약하여 근거리에서 확실한 성과가 있을 때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74 각개 병사들은 그 소속부대를 이탈하면 아니 되며, 임

무를 받지 않았거나 부상당하지 않았으면서 등한히 전투부대의 후방에 머물거나 또 전투중 명령을 받지 않고 부상자를 운반하는 경우 비겁하고 태만한 죄를 면하지 못한다.

만약 병사들이 그 소속부대의 소재지를 잃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전투부대에 합류하여 그 부대의 장교나 하사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소속상관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고 전투가 종료된 후에는 곧바로 그 소속부대를 찾아야 한다.

제275 전투의 소음 속에서 기력(氣力)과 사상(思想)을 잃은 병사는 그 소속장교를 주시하여야 하고, 이미 이 장교가 현장에 없을 때는 하사관 혹은 용감한 병사를 표준으로 삼아서 처신하여야 한다.

9. 전투정면 및 제대구분

제276 부대의 전투정면은 단독으로 전투할 경우와 타부대와 연계하여 전투할 경우가 각각 다르며,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양익 혹은 일익을 타부대에 의탁이 가능하다.

기타 공격, 방어 혹은 퇴각을 시행함에 따라 정면의 폭에 차이가 있다.

제277 단독으로 전투를 수행할 경우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전개를 하는 것이 긴요하기 때문에 최초부터 그 병력을 모두 제1선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통상 먼저 서전(緒戰)에 의하여 전투 실행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자세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제278 이러한 까닭으로 중심에서의 제대구분은 적어도 2개

부분으로 나누어 그 전방에 있는 병력은 아주 작은 규모로 서전(緒戰)을 담당하며, 이에 의거하여 상황을 분명히 하여 전투 실행에 관한 조치를 결정하는 때는 오히려 불시 상황에 대비하고 또한 결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병력의 일부를 나누어 예비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할 때는 중심을 3개 부분으로 구분하고 또 상황에 따라 이보다 더많은 구분을 필요로 할 경우가 있다.

가령 특별히 측면 엄호에 필요한 등의 일이 있으나 이러한 여러 개의 구분은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하며, 예비대의 사용이 가능하면 이와 같은 구분은 대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제279 중심에서 각 제대의 병력은 여러 종류의 상황에 의하여 변화한다. 그러나 서전을 담당한 부대는 가능한 한 병력수를 아주 적게 하고 예비로 대기하는 부대는 가능한 한 그 병력수를 많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개 서전을 위하여 전체병력의 1/4보다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없고 예비를 위하여는 전체병력의 1/4보다 적은 경우가 없지만 이 비례는 일반적인 표준을 제시한 것 뿐이고 또 모든 부대의 건제를 분할하는 일이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제280 전개(前掲)한 구분은 전투 경과중에 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투 실행에서 지정한 부대를 일시 혹은 점차로 서전을 수행하는 부대에 증가하고 예비대는 필요에 따라 최후결전 혹은 퇴각 엄호에 사용한다. 이러한 전투의 투입은 통상 전투정면을 확장하도록 만들게 된다.

제281 그러므로 서전에서는 전개정면을 적절히 협소하게 하는 것이 요구되며, 그렇지 않으면 전투 실행시에 정면이 과도히 확장되든지 혹은 전투 개시전에 모든 단위부대의 혼란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전투전개의 임무 할당은 먼저 어떠한 제대구분이 필요할 것인가 또 그 정면은 여하히 협소하게 할 것인가를 고려함이 필요하다.

고립되어 전투하는 부대는 적의 포위에 대하여 아군의 양측면이 안전할 때에만 정면에 전개할 병력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제282 타부대와 연계하여 전투하는 부대는 대략 그 정면의 폭을 제한하여 지정하는데, 이는 부대가 한쪽 부분에 있을 때는 측면에 위협을 당할 일이 없고 또 측면공격을 스스로 수행할 일도 역시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1선에 많은 병력을 전개하고 아주 적은 예비를 준비하거나 혹은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익을 의탁하는 부대는 가장 많은 병력을 정면에 전개한다.

일익을 의탁한 부대는 많은 경우에서 중심의 제대구분과 정면확장을 그 노출되는 일익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283 사격에 능숙한 보병은 사격으로 정면에서 적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적을 격퇴하게 되었을 때는 아주 커다란 피해를 주어 크게 사기를 잃도록 하기 때문에 공격을 다시 시도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

제284 적의 사격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해를 염려하지 않고 돌격에 대하여 침착하게 사격을 할 것이며, 보병이 만약 지형을 이용하거나 기구(器具)를 적당히 사용하면 다른 지원이 없어도 그 정면은 견고한 것이다.

제285 위와 같은 보병이라도 하나의 약점이 있다. 즉, 지형이나 타부대에 의하여 엄호되지 못하는 측면(側面)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측면경계는 불가결한 요건이다. 측면경계를 위한 유효한 방법은 중심에서 적당한 제대구분을 시행함에 있으며, 그러나 전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위치에 후방부대(예비대)를 배치하여야 옳은지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것이다.

제286 후방부대가 만약 정면 중앙의 후방에 있을 때는 아군의 전선을 향한 적화에 의하여 많은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며 후방부대로 하여금 이를 피하도록 하려면 후방 먼 곳에 위치하게 하여야 하나, 호기에 적절히 이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제287 그러므로 특별한 상황에 의하여 다른 방향에 위치시킬 필요가 없을 때는 후방부대는 전선의 한쪽 후방에 위치시키는 것이 적당하다.

제288 후방의 어느 쪽에 예비대를 위치시켜야 할 것인가는 상황과 지형에 관하여 특별히 결전을 예기(豫期)할 지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 예비병력을 측방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과 적의 화력하에서의 행동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89 후방부대의 거리는 전투목적에 따르는 것을 위주(爲主)로 한다.

결전으로 이행하기 전에 있어서 밀집부대는 가능한 한 적화(敵火)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전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전투 경과중에 후방부대의 거리를 단축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최하급 지휘관까지 협력하여 승리를 기하기 위하여 합심하여 전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전투가 종료되

는 시간은 대개 짧아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부대를 구처(區處)하는 것은 이러한 극히 짧은 시간밖에 없는 것이다.

아직 결전을 시행하고자 하지 않을 때는 중심거리는 길게 하여야 한다.

제290 기타거리는 지형에 따라서 짐작(斟酌)하여야 한다. 지형이 개활할 때는 거리를 멀리 하고 또 적의 화력하에 있을 때는 정면이 넓은 대형을 취한다.

공격행동을 실행함에 있어 후방부대는 적화를 잘 피하지 못할 지라도, 보병은 집중사격이나 곡사화력을 피하기 위하여 동시에 중심의 2개 제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거리는 200m 이상이고 결전할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거리를 단축하여야 한다.

지형이 음폐(蔭蔽)될 때는 거리를 단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제1선을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휘관은 거리를 단축하는 효과를 상실하면 아니 된다.

정면을 좁게 하고 거리를 단축하여 밀집대형을 취하고 또 후방에 많은 예비를 두는 것이 이 경우에 적당하며, 이 방법은 특히 삼림전투에 적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 밀집부대 행동은 주로 도로를 따라서 하여야 한다.

야간전투에 있어서는 완전히 모든 지형지물의 효용이 달라지게 된다.

목표물을 향하여 정밀하게 조준사격이 잘 되지 못하므로 공격행동은 행진방향을 바꾸는 일 없이 목표를 확정하여 미리 지시하고 거리를 짧게 하며, 또 숙지하여 가능한 한 정해진 구역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가장 단일한 대형, 즉 중대중대를 병렬로 혹은 중첩하여 그 전면 앞에 소수의 산병을 가까이 배치하거나 또는 이를 배치하지 않고 접전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 중대선두로써 근거리에서 맹렬한 충격전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공격부대는 모두가 적을 교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뿐이다.

방어에 있어서는 그 점령한 위치에 정지하여 수비하고 새로운 제대구분은 불가하며, 충격전은 지근거리에서 시행하되 미리 주간에 적의 접근로를 중심 깊게 사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부대가 특히 야간공격을 받을 것을 알았을 때는 미리 전방경계선에 병력을 증가하여야 하며, 야간방어전투에 있어 인접부대의 협조를 얻는 것은 오직 적이 불의의 측면공격을 시행할 때에만 한한다.

제291 연병장에서의 중심거리는 흔히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 제한이 있으나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거리를 실제지형에 적응되도록 함으로써 지휘관 및 부대교련에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

제292 밀집부대의 행동은 각개 병사들의 행동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다.

밀집부대를 산병선에 근접시키는 것은 흔히 결전시기에 가까웠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사용은 산병선을 증가하거나 밀집대형 그대로 공격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밀집부대의 사용방법은 전투목적과 시간 그리고 기타 고려사항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0. 공격 및 방어

제293 공격은 조우전(遭遇戰)과 미리 방어 배치한 진지를 공격하는 것으로 구별함이 원칙이다.

제294 조우전은 이동간(移動間)⁴³⁾에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적의 주력부대가 전개중에 있을 때 이에 대하여 행군중대로부터 전개하는 사례가 많다.

이와 같은 전투에 있어서 선두부대는 후속부대로 하여금 그 전개에 요하는 시간 및 지역을 확실히 취할 수 있게 할 것이 요구된다. 이때에 하급지휘관은 부대 전체가 전개해 나아가는데 관하여 그 연계를 해치지 않도록 함을 규범으로 삼고 독단적인 일을 감당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위(前衛) 등 선두에 있는 부대는 이 요지에 따라 행동하되, 첫째는 적보다 먼저 전개하고 다음에는 상급지휘관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규범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우전의 초기에 지휘관이 선두에 있는 것은 더욱 긴요하고 그러한 때는 통상 전개명령 및 전투명령을 합하여 동시에 하달한다.

공격은 전개를 위하여 가능한 한 지연되지 않도록 함이 요구되므로 부대가 먼저 그 선상에 전개하고 다시 전진하는 것은 대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제295 적군이 거의 전개를 완료하고자 할 때 혹은 겨우 그 일부가 이미 진지에 자리를 잡았을 때, 선두부대는 일층 경계심을

43) 이동간(移動間) : 원문에는 운동전(運動戰)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전(戰)을 간(間)의 오자(誤字)로 보아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가지고 전개하며 전개해 나아감에 따라 전투정면을 확장하고 상급지휘관의 계획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지휘관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계획을 지시할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제296 이에 반해서, 완전히 전개하고 이미 준비한 방어진지를 향하여 공격할 때는 지휘관이 사전에 계획을 확정하여야 하고, 이때의 전개는 각자 독단에만 위임하는 것은 불가하다.

만약 적병이 아군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 명백할 때는 공자(攻者)는 마음대로 공격방향과 방법을 선정하는 이익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휘관의 의도에 따라 전투로 이행하기 전에 전개를 실시한다.

적이 소사(掃射)하는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므로 야간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통상 주간에 미리 적의 사격권 밖까지 전진하고 다음날 아침 미명(未明)에 다시 전진하여 여명 무렵부터 사격을 개시하여야 한다.

미리 계획한 공격은 적보다 우세한 사격을 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기대하지 못한다. 먼저 포병화력으로 적보다 우세를 점하고 이 화력에 의하여 보병의 공격 전진로를 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격정면 앞의 지점에 적당한 지탱점(支撐點)이 있을 때는 먼저 이를 점령하여야 하며, 이 지탱점 엄호에 의하여 일반전개를 실행하고 전방에 있는 부대는 지형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한 적의 진지에 접근하여 사격을 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격을 실행할 부대로써 강력한 산병선을 이루어 적진지에 접

근하여 사격으로써 적을 좌절하도록 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산병선으로부터 근거리에 이를 때에 증원부대는 가능한 한 그 배후에 근접하여 곧바로 투입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아군의 화력이 아직 적보다 우세하지 못하거나 혹은 적의 현저한 동요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커다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공격을 실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최후돌격을 하고자 할 때는 화력의 효과를 기다려야 하고 그 성과는 산병선상에서 가장 옳게 판정할 것이므로, 이 선상에서 첫째로 어떠한 시기와 장소에서 적의 저항력이 쇠퇴하는가를 관측하고 또 가장 신속히 제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돌격은 산병선으로부터 시작이 많고 그러할 때는 밀집부대는 곧 산병선에 신속하게 뒤따라서 이를 증원하고 또 적의 역습에 대비하여 반드시 경계임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격부대의 총지휘관은 호기에 때맞춰 돌격명령을 내리는 데 주의가 요구되며, 산병선의 근거리에 도달하여 연속으로 증가조치를 취하고 그 화력으로써 최고도에 도달하게 하여 충분하게 돌격을 준비한 때는 후방부대는 제1선과 공히 결전을 하기 위하여 적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격행동이 적의 눈을 피하지 못할 경우에 이르면 각 밀집부대는 모두 습보(襲步)로 옮기고 고수(鼓手)는 연주하는데, 이때 밀집부대를 병렬이거나, 중첩이거나 어떠한 대형을 취하거나 그리고 총지휘관이 예비를 오히려 안치하는 등의 일은 완전히 당시의 상황과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전의 짧은 시간에 공격하는 병력들은 오직 전진하는

방법 하나뿐이고 총지휘관은 적시에 나팔수로 하여금 돌격 신호를 취주(吹奏)하도록 하며, 때맞추어서 각 나팔수는 간단없이 연주를 반복하며 고수(鼓手)는 북을 치고 부대는 모두 돌격으로 이행하여 합성을 지르면서 적진 속으로 돌입한다. 이밖에 공격행동에 관하여 세밀한 방법을 정하는 것은 금한다.

제297 공격 성공후의 행동은 적진지를 탈취함으로써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점령한 곳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고 또 그 탈취한 진지를 경계하여야 한다.

만약 적의 진지내에 촌락, 삼림 등이 있을 때는 공격을 계속하여 그 후단(後端)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이후 추격은 통상 공격행동으로써 속행하지 않고 먼저 사격을 하는데, 이때에 돌격을 했던 부대는 곧 탈취한 진지를 점령하여 부대를 정돈하고 이후의 새로운 기도(企圖)에 따라 신속히 전투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298 포 위

공격의 성과를 얻기 위하여 아군의 화력으로 하여금 적보다 우세하게 하는 것은 포위의 방식이 가장 용이하다.

그러나 이 포위를 시행할 때는 여러 방향으로부터의 접근과 후방제대의 투입에 의하여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전개단계에서 준비하여야 한다.

제1선에서 이미 전개하거나 전투를 개시한 보병의 일부로써 포위를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지형에 특별한 이익이 있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한갓 그 병력을 분리하는 피해가 있을 뿐이다.

제299 방 어

방어와 같이 지형에 관계된 전투방법은 다른 전투방법에서 그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없고 방어를 시행하는 데는 촌락, 고지, 삼림과 애로(隘路)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릇 방어에 있어서는 특히 화기를 효과있게 사용하는 데 진력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 목적에 의하여 진지를 선정하고 또 인공(人工)으로써 견고하게 한다.

적의 공격방향을 알지라도 산병선에는 최초부터 전투목적 및 지형에 따라 진지를 고수하는 데 필요한 병력을 사용하여야 하고 산병호 및 기타 차폐물을 축조하여 그 전방의 주요지점에 이르는 거리를 측정하고 소행리(小行李)에 있는 탄약을 병사들에게 분배하여 방어선에 가지고 가서 신변(身邊)에 두도록 한다.

증원부대는 산병선에 접근하여 시기에 따라 그 배후에 밀접하게 위치하여 전체 중심거리를 단축하여야 한다. 다만 후방부대는 적의 화력을 피하는 것을 위주(爲主)로 하여 멀리 떨어져야 하지만 그 지역을 방어함으로써 긴급한 증원이 용이하도록 접근해 있어야 한다.

지역의 수와 그 넓이는 진지의 형상(形狀)에 의하여 변화가 매우 크고, 진지의 교통 및 관측의 곤란 정도에 따라 점점 그 지역수를 증가하고 그 넓이를 협소하게 하며, 모두 진지를 점령하는 데 중심제대의 구분을 반드시 하되 각 지역에 적응할 견제부대를 할당하여 각각 예비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총예비대가, 즉 일정한 지역에 사용하지 않는 부대의 위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가 요망된다.

“단순히 수비만 위주로 하는 방어(전초전, 후위전)는 통상

그 진지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으로 국한하고, 이에 반하여 승리를 기하려는 방어는 공격행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방어만 시행할 때는 결코 적을 섬멸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어지역에 사용하는 병력을 절약해서 사용하고 총예비대로 하여금 일반전황 및 지형에 따라 신속하게 공세이전이 용이한 지점에 집결을 요하며, 이 지점이 통상 한쪽 편의 후방이 되더라도 이 방법을 선정하여 사용할 때는 가장 두려워할 적의 포위를 저지하는 데 편리한 것으로 방어부대의 규모가 클수록 이에 따라 총예비대로 하여금 점점 원거리의 측방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전개할 수 있는 여유와 공격으로 이전하는 편리를 얻고 또 적의 측면을 위협하거나 적의 포위를 가장 용이하게 방호할 수 있는 연고이다.”

아직 적의 공격방향을 상세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진지에 병력을 모두 배치하는 것은 마땅히 경계할 일이다.

제300 대체로 실패시의 퇴각에 관하여는 일정불변한 법칙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적과 전투하는 부대가 격퇴를 당할 때는 그 퇴각방향의 선택이 불가능하고, 적의 추격을 받는 부대는 대형을 전환하지 않고 정면과 직각으로 퇴각하지만 이를 수습하지 못하는 사이에는 재차 적에게 저항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부대가 오히려 그 중심제대를 보유하고 있을 때만 퇴각의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결전을 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부대로 하여금 그 전력(全力)을 모두 전투 실행에 사용하지 않고 그 일부를 예비로

하여 퇴각을 엄호하게 하려는 것은 오류(誤謬)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 무릇 지휘관은 결전을 감행할 것인가 혹은 퇴각을 실행할 것인가를 적당한 시기에 결심하여야 한다.

수용진지는 저항력을 가진 진지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퇴각하는 전선이 궤멸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전선 근처에 이를 선정하여야 하고 또 수용진지는 퇴각선상으로부터 차라리 근접한 측방에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므로 지휘관은 부대중에서 새로운 정예병들을 선택하여 수용을 맡아야 할 부대로 지정하며 이 부대는 수용진지에서 적에 저항하여 퇴각하는 부대로 하여금 피해가 없이 재차 대오를 정돈하여 출발할 지역과 시간을 얻도록 하여야 하고 저항시간의 장단(長短)은 바로 이에 의하여 결정된다.

만약 새로운 정예부대가 와서 적시에 전투에 투입되어도 전황이 회복될 가망이 없을 때는 수용부대는 즉시 퇴각하여야 하며 많은 경우에서 이 부대도 또한 다른 부대에 수용을 의뢰하여야 한다.

퇴각전투를 지휘하는 필요성은 행군대형을 바로잡고 거리를 유지하여 후위를 갖추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휘관은 명확하게 행진목표를 지시하고 다음 수용 임무를 맡을 부대를 지정하고 또 수용할 지점을 명령하며, 연후에 지휘관은 전투지역을 이탈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 퇴각하는 부대를 기다려 재차 명령을 하달한다. 기타의 일은 모두 하급지휘관의 임무로서 대체로 퇴각하는 부대가 수용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적에게 정면으로 대치할 경우에는 많은 위험에 빠져 이로 인하여 적과의 이격(離隔)이 매우 곤란하기에 이르게 된다.

제301 조전은 특종의 전투법칙과 표준을 세운 것이 없으며, 지구전 혹은 양동작전에 있어서도 또한 이를 지시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들 행동은 상황에 따라 변화가 끝이 없는 것으로 각종 상황에서 적절히 이를 조치하는 것은 지휘관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지휘관은 상황을 잘 관찰하여서 중심에 어떠한 제대 구분을 할 것인지 혹은 어느 정도의 정면폭이 필요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第2章

.....

部隊戰鬪

第1節 中隊戰鬪

제302 중대는 중대장의 간단한 명령 혹은 구령에 따라서 산개와 집합, 즉 신속하게 산개대형으로부터 밀집대형으로 이전하는 것과 밀집대형으로부터 산개대형으로 이전하는 등의 행동을 시행함이 필요하다.

기타 산개전투에서는 각 소대 및 소대중의 각 분대는 명령받은 임무 혹은 전황으로 인하여 생기는 임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독단(獨斷)으로 적당한 수단을 이용하는 데 숙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황이 이미 산개대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소대는 곧 집합하여 중대에 합류하고 분대도 역시 그 필요가 없음을 알 때는 집합하여 그 소대 등에 합류하여야 한다.(제257을 참조할 것)

이 원칙의 실천은 연습에 의하여 숙달이 요구되며, 모든 소대장은 산개에 대하여 명령 혹은 구령을 받으며 또 전투간에 중대장은 방향전환 혹은 집합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명령을 전

달할 시간과 특별한 수단을 빠뜨리는 일이 흔히 있지만 전투대형을 갖추는 데 대하여는 소대 및 소대중의 각 분대가 적당한 위치에 있을 것이 요구되나 어떠한 경우가 적당하다고 미리 결정하지는 못한다.

제303 중대가 고립하여 전투를 실시하는 것은 예외의 경우로서, 즉 분전(分遣)되었을 때 뿐이고, 통상적으로 중대는 대대의 일부로써 전투한다.

그러나 중대가 단독으로 전투할 경우에 있어서는 중대장은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완전히 자신의 책임으로써 행동하고 대대 내에서 전투할 때는 타중대와 상호 연계하여 행동하는데 이때 중대장은 특히 전면 앞쪽의 상황에 주의하여야 함은 물론 측방과 배후에서의 타부대 상황에도 주의를 요한다.

대대가 수행하는 전투는 하나의 기본단위이며, 대대의 각 부서로 하여금 그 범위 밖으로 벗어나기를 허용하지 않지만 전투로 이행하면 이 범위내에서 중대는 독단의 여지가 커서 제한받는 사항이 전혀 없다.

그러나 후방으로부터 이르는 명령은 그 시기를 지연시키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명령을 대기하는 데만 얼마일 때 중대는 호기에 투입하여 적당한 전투 시행을 잘하지 못하게 된다.

독단 진행(專行)은 대대내의 연계 및 전투변화에 따라 적절한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표준을 삼는 것이 요구된다.

제304 전투초기에는 대개 병력을 절약하여 산개하는 것이 좋고 강력한 산병선으로써 위치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항상 곤란하며, 또한 적의 사격권내에 있어서는 피해를 보는 까닭으로 통상 산개는 축차로 소대단위로 시행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동시에 2, 3개 소대를 산개하고 또 이에 반하여 불의의 적습(敵襲)에 대하여 중대를 반드시 엄호해야 할 때와 같은 경우는 1, 2개 분대를 산개하는 일이 있다.

제305 전투가 진척됨에 따라 최전선의 화력을 증대하며 동시에 손실의 보충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하여 신예(新銳)의 병력으로써 산병선을 연신(延伸)하거나 혹은 그 오간을 증가하되 이 연신증가는 명령하달과 사격지휘에 편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이를 채용함이 요구된다.

그러나 오간의 증가는 여러 번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인접부대와 연계한 경우에는 산병선을 마땅히 연신할 여지가 없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대는 각 소대 및 분대가 뒤섞일 때라도 정확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교련하는 것이 요구된다.(소대장 및 분대장이 취할 행동은 제178을 참조할 것)

제306 중대 전체의 산개는 가능한 한 이를 피하거나 늦추어야 하며, 중대 전체가 산개할 때는 공격전투에 있어서는 이미 중대장의 장악하에서 이탈하고 진지에 있어서는 또한 이를 통일하여 지휘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러므로 중대장은 산병선의 배후에 밀집부대를 가능한 한 오래 보유하는 데에 주의가 필요하며, 중대장은 이로써 손실을 보충하고 공격 혹은 방어를 지원하거나 측면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

제307 중대가 산개할 때는 통상 밀집부대로서 증원부대를 편성하고 또 이 중간에 다시 아주 작은 증원부대를 나누어 배치하는 것은 산병선에 접근하여 이들의 배치가 필요할 때에만 국한하

고 또 측면엄호가 필요할 때는 특별한 부대를 산병선의 한쪽 후방에 배치하는 일이 있으나 이와 같은 구분은 항상 폐해(弊害)가 있으므로 예외의 경우에 국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밀집부대와 산병선과의 이격거리는 전황과 지형에 따를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임하여 최전선 지원이 확실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대형의 선택은 지형과 적의 화력에 관계되는데 적으로부터 육안으로 보일 때는 횡대를 사용하고, 이에 반하여 지형에 의하여 차폐될 때는 종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308 전투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대의 전력(全力)을 사용하는데, 이때에는 부대 전체를 산개하거나 혹은 최종시기에 밀집부대를 반드시 사용하는 것은 전투상황에 관계되고 어떠한 경우에 있는지 화력을 최고도에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결전으로 이전하기까지 노력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고립되어 전투하는 중대는 종국(終局)에 이르기까지 자체의 제대를 사용하고 또 그 측면을 경계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를 막론하고 밀집된 증원부대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중대가 만일 대대내에서 전투할 때는 공격 혹은 방어를 막론하고 각종 임무에 따라서 그 부대를 구분한다.

공격에 있어서는 사격의 성과를 얻은 후에 중대장의 구령으로써 적의 진지 중에서 지시된 주요 부분을 향하여 맹렬한 돌격을 감행한다.

제309 중대장은 중대전투 지휘를 장악하여 간단명료한 명령으로써 소대장에게 업무 할당을 지시하고 또 중대를 지휘하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하고 또한 중대장은 전장(戰場)에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배후로부터 운반해 오는 탄약을 보급 분배

하는 데 주의하여야 한다.

第2節 大隊戰鬥

제310 대대는 4개 중대를 적절히 구분함으로써 각종 전투 임무의 완수가 가능하다.

대대장은 전투를 지휘하기 위하여 각 중대에 임무를 지시하는데 오해나 과실 때문에 전투가 의도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확인할 때만 중대의 소대 등에 직접 간여한다.

대대장은 전투초기에 가능한 한 각 중대장을 면전(面前)에 집합시켜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이의 실행수단은 중대장에게 위임한다.

대대장은 이 원칙을 명심하여 전투를 지휘하고 오로지 각 중대로 하여금 상호 전투연계를 똑바로 지키도록 하는 일에 노력하고 각 중대도 또한 이러한 연계를 확보하여 그 임무를 완수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대대장은 적절한 시기에 명령을 하달할 시간과 특별한 수단이 결여되는 일이 자주 있으나, 전투의 종국에 각 중대는 적당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적당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제311 대대장은 많은 경우에 가능한 한 중대를 모두 오랫동안 산개하는 것을 피함이 좋고, 중대를 모두 산개할 때는 공격전투에 있어서는 이미 대대장의 장악하에 있지 않고 진지에 있어서는 또한 이를 통일하여 지휘하는 것이 어렵다.

만약 강력한 산병선을 필요로 할 때는 곧바로 모든 중대를 함

게 사용할 수 있으나 그러한 중대가 각각 그 증원부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중대가 너무 일찍 뒤섞이는 것을 예방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312 대대는 전투목적과 지형에 따라 그 제대구분을 규정하며 4개 중대를 제1선에 사용할 것인지 또는 1개 중대만 사용할 것인지, 장차 1, 2 혹은 3개 제대로써 전투에 이행할 것인지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원칙이 없으며 대대장은 상황에 따라 자유로이 이를 선택할 수 있다.

대대의 전투전개는 상황에 따라 기준중대를 지정하고 그 선상에서 행하거나 혹은 전진하면서 이를 시행하는데 전자(제1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오히려 이를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릇 이들 방법에 따르는 하나라도 모형(模型)을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

제313 대대장은 많은 경우에서 필요한 중대만 전개하고 대대의 잔여 병력은 그 장악하에 갈무리하여 두는 것이 좋다.

가령 조우전에서 중대로써 전투를 개시하고 다음에 한쪽에서 정면을 연장하기에 이르면 이에 제2의 중대를 투입하고 이어서 전투의 진척에 따라 어떤 방면에 주력을 사용할 것인지 혹은 어떤 쪽으로 위협을 당할 것인지 등등을 분별할 수 있을 때는 그 방면의 후방에 잔여부대를 적절히 배치하는 등과 같으며, 또 4개 중대가 공동행동의 방법과 전개 그리고 상호관계를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변화하는 것이다.

대대장은 항상 중심제대를 보존하여 그 필요성을 상세히 알 때 외에는 예하중대를 사용하는 일이 없으며, 전투상황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 대대장은 호기에 임(臨)하여는 충

분한 병력을 사용하여야 되나 일반적으로 그 사용이 너무 빠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314 전개하는 대대의 행동은 공동목표를 따라서 규정하는 것이다.

전투간 1개 대대 정면의 폭은 병렬한 4개 중대의 전개면(展開面)으로써 최대치를 삼지만, 이와 같은 때는 대대장은 전투 경과 중 병력의 대부분을 장악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고 또 타부대와 연계할 때는 이와 같은 정면을 확장하기 위하여 전개할 지역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대대가 단독 전투시는 전개할 여지가 있더라도 독립대대의 전투방법으로 적절히 그 정면을 협소하게 하고 또 제대간의 거리를 깊고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전투 정면은 대개 협소하게 함을 요한다.

중심에 재대구분을 할 필요성은 방어진지에서 가장 크고 다음에 독립전투를 하는 대대 및 모든 종류의 전개초기에 있으며, 전개할 전투정면이 점점 좁아짐에 따라 후방제대는 점점 멀리 측방에 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15 전투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대장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후방부대뿐으로, 이 부대는 어느 한쪽 후방에 있거나 중앙의 후방에 있기 때문에 대대장은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되며 그 제1선에 위치하는 것은 예외이고 통상 후방부대 근방에서 대대전투를 파악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중대의 사격에 관하여 대대장이 자주 유의할 사항은 최전선에서 소요가 가장 많은 지점에 탄약(彈藥)을 운반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제316 만약 예비로 있는 대대가 사전에 다른 부대의 전선에 의하여 준비한 공격을 직접 실행하기 위하여 차출될 때는 그 밀집대형을 이용할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모든 중대를 협소한 간격으로 전개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경우에 가장 적절한 대형이다.

第3節 聯隊戰鬥

제317 연대는 교육의 일치와 장교의 단결 그리고 편제에 기초하여 하나의 단위로 각종 전투임무를 실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부대로서 연대내에서 공동행동의 의기(意氣)가 가장 왕성하다. 그 편제는 연대장으로 하여금 적절하게 전투투입에 관하여 업무할당을 용이하게 하여 준다.

연대장은 각 대대가 필히 분담할 임무를 결정하고 그 실행방법은 대대장에게 위임한다. 각 중대의 행동에 간여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로 제한되는데, 가령 하급지휘관의 행동이 일반목적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와 지휘계통을 통하여 명령을 하달할 시간이 없을 때뿐이다.

연대장이 제1선에 사용하여야 할 대대의 전투행동으로 하여금 그 의도와 같게 시행되도록 하려면 방어에 있어서는 각 대대에 전투정면의 구역을 지정하고, 행군 혹은 공격행동에 있어서는 목표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각 대대에서 멀리 정면 앞에 있는 공동 행군 목표를 지시하거나 각 대대에 별도의 목표를 부여하고 또한 어느 대대에 행군방향이나 공격방향을 지시하고 다른 대대로 하여금 이에 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병립하여 전투하는 각 부대의 공동행동을 규정할 때는 항상 정면 앞에서 목표를 지시해 주고, 정면상에서 정돈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전투에 있어서 각 대대의 정돈은 불필요하지만 중앙 혹은 한쪽에 준하여 전투를 규정하여야 할 경우가 또한 자주 있다.

제318 연대장이 필요한 목적에 따라 정면 또는 측면으로 전투를 확장할 때는 후방부대를 사용하는 외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투 진척에 따라 전개가 필요할 때 외에는 결코 다수의 대대를 장악으로부터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

연대장은 이와 같이 자신의 담당 전투지역을 주재하고 또 전투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며, 특히 이 방법에 따르는 것은 적을 포위 하거나 혹은 측면공격을 저지하여야 하고 또 방향전환시에는 후방대대를 사용하지 않고는 시행할 수가 없다.

이는 이미 전투중에 있는 대대는 그 정면에 고착되어 다른 것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까닭이다. 일반적으로 교전할 부대가 점점 커짐에 따라 전선을 변경하는 것은 그 곤란함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연대장이 행군중대(行軍縱隊)⁴⁴⁾ 혹은 집합대형으로부터 가장 먼저 전투전개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능한 한 정밀하게 전투정면을 확정하여야 하고 이 정면의 확정과 인접부대와의 관계에 따라 정면 및 후방에 사용할 부대를 지정하는데, 최초 전개에서 정면이 협소함에 따라 후방제대는 차츰 멀리 떨어진 측방에 위치하게 된다.

제319 연대가 전투로 이행하는 데는 행군중대로 하는 것과

44) 행군중대(行軍縱隊) : 원문에는 행군중장(行軍縱長)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장(長)이 대(隊)의 오자이므로 수정하였다.

집합대형으로 하는 것에 따라 크게 구분이 된다.

행군중대로부터 전개하는데는 다음 대대가 전투지역에 들어갈 때에 선두대대는 이미 전체가 전투중에 있으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 선두대대는 중심의 제대구분을 실시하고 다음의 대대는 행군장경을 단축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종대대형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며 연대장이 지시한 위치에 진입할 동안에 전개해 나아가야 한다.

제320 적의 정면 앞에서 측면행동을 하려면 적 방향에 대하여 적절히 제대구분을 시행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개하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충분하고 안전하게 이를 실행할 수 없고 적의 유효사거리 내에 있어 지형에 의한 차폐를 못한다면 측면행동을 할 수 없다.

제321 연대 정면의 폭은 일정하지 않은데, 이 정면의 폭은 목적, 지형 및 인접부대와와의 관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 단독으로 전투하는 연대 정면의 폭은 최초에는 병렬하여 전개하는 2개 대대 정면의 폭을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다.

제322 공격전투를 실행함에 있어서 1차로 전개하는 연대행동은 직진(直進)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개후 측방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는 최초 전개에서의 과오를 바로잡아 고치려는 것으로 후방제대를 사용하여야 하나 이로 인한 결과는 항상 충격력을 감쇄(感殺)시키게 되는 것이다.

제323 연대장은 자신이 담당한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정면에 그 위치를 선정할 것이 요구되며, 전투를 개시할 때 특히 조우전에 있어서는 전방에 위치하여야 하고 또 전투 실행을 지휘하는데는 대개 후방제대의 근방 혹은 연대의 전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여단 내에서 전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위치를 선정하는데 여단장과의 통신소통을 확실히 유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第4節 旅團戰鬥

제324 여단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구령으로써 행동하도록 할 수 있는 최대 단위이다.

작은 휴대품을 지닌 전시병력 1개 대대는 550m의 행군장경을 가지므로 여단에 이르러서는 그 행군장경이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전투로 이행할 때는 간혹 강행수단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여단을 지휘하는 데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전개(展開)에 관계되기 때문에 전시 병력의 행군장경과 평시 적은 정원(定員)의 행군장경과의 비교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25 여단장은 전투목적에 따라 적어도 1개 대대를 갈무리하여 예비로 둘 필요가 자주 있다.

제326 여단장은 연대를 병립하여 전투하도록 하고 그 전투정면을 구분하여 연대마다 필요에 따라 전투에 투입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전투 구분방법이다.

그러나 이 구분방법은 최초부터 취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구분방법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주요한 전투의 계획수립을 좌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우전에 있어서는 제1선에서 신속하게 그 전개정면을 확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두연대는 곧바로 2, 3개 대대를 제1선에 병렬시켜야 하고 이 경우에 모든 대대는, 특히 중심의 제대

구분을 시행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선두연대는 결코 다음 연대가 자신의 전투정면에 지원된다는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연대는 각각 분담된 임무를 접수하고, 여단장은 그 명령을 연대에만 하달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또 모든 연대의 뒤섞임은 폐해가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그러므로 행군중대에서 후속하는 연대는 많은 경우에서 한쪽 후방에 길을 개설하여야 되는데, 그 상황이 전개초기에 신속하게 정면을 확장하는 일이 점점 필요해짐에 따라 결전에 투입하기 위하여 한쪽 후방에 병력을 집결하여 두는 것이 더욱 긴요한 것이다.

제327 여단은 그 병력과 전투정면 그리고 행군장경이 매우 큰 부대이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 대하여 동시에 통일된 행동을 하되 행군방향에서 전개할 때는 멀리 후방으로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또 한번 전개한 때는 그 정면을 측방으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체로 전개를 지휘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가 요구된다. 즉, 각 부대는 적시에 그 행군정면을 확장하고 후방부대는 계속하여 전방부대와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여단의 행군장경을 단축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각 부대는 일반적으로 전개에 무익한 지체(遲滯)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지시간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모든 연대는 전투명령에 의하여 공격목표 혹은 방어의지의 지정을 받으며, 그 방법이 단순할 때는 이에 따라 각 부대의 공동

행동은 또한 단순하게 되는 것이다.

제328 여단장은 위치선정을 긴요하게 하고 또 가능한 한 그 위치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여단장은 전투초기에 여단의 선두에 있어야 하며, 이는 여단장이 스스로 적정과 인접상황 그리고 지형을 목격하는 것이 필요하고 각종 보고 및 지도는 이를 보완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단장이 선두에 있을 때는 전투경과에 관하여 가장 긴요하므로 제일 먼저 시행하는 전개를 적절하게 지휘할 것이며, 또 적시에 결심하여 적에 대하여 이익을 지키고 아군부대로 하여금 우회로를 피하게 하고 또 정해진 방향으로 부대를 지도하고 선두부대 지휘관의 방자한 결심을 제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반하여 전투를 시행하는 경우, 여단장은 여단 전체를 감독할 수 있을 정도로 후방에 위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스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확보해 둔 부대의 근방에 위치하여 전투 경과를 통괄하고 또 차하급 지휘관(연대장)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황이 이 원칙에 의거할 수 없을 경우나 급속한 조치로 시행이 요구될 때는 대대에 직접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대장에게 통보하여 상호 연속관계를 똑바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타 전투 실행은 연대 및 대대전투에 개시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329 1개 여단(6개 대대)의 전투정면은 처음 전개에서 약 1,000 내지 1,200m이다.

제330 여단으로서 행하는 각종 행동 및 전투전개의 교련은 광대한 지역을 요하므로 이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곤란하다.

교련장에서는 전투 각 시기의 경과를 연습하는 것보다 생각과 판정을 바꾸서 각종 전개방법을 여러 번 연습하여야 하고, 대개 각종 목적에 따른 제대구분의 연습은 여단 교련에서 매우 긴요한 것이고 또한 전투 실행의 연습은 가능한 한 이를 야외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第3章

.....

結 論

제331 조전의 제식과 원칙이 단순한 것은 교련의 아주 좋은 기초이다.

이러한 제식 및 원칙은 전군(全軍)의 보병교련에 필요한 통일성을 충족시키고 또 그 단순함으로써 동원시에는 예비역 및 후비역(後備役) 등의 병사들을 소집할 경우 단시일내에 재차 숙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식 및 원칙의 실천은 야외와 전장(戰場)을 막론하고 상황이 허락하는 한 연병장에서 실시하는 교련과 똑같이 십분 엄격하게 보존할 것에 주의가 요구된다.

제332 이미 기술한 전투요령은 교련에 각종 변화를 주는 것으로 이를 간략하게 언급하면 가능한 한 간단하고 쉬운 전황을 상정함으로써 공격, 방어, 퇴각 혹은 포위를 시행하되, 그 한쪽은 타부대 혹은 지형에 의탁하거나 혹은 의탁하지 않고서 전개원칙을 실시하고 또 방향전환을 시행하며, 또한 하나의 전술행동으로부터 다른 전술행동으로의 이행 등을 연병장에서 지형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용하지 않고 연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3 모든 부대장은 예정된 교육기간에 조전의 제원칙을 연습시킬 책임이 있으며 여러 번 상황을 변경함으로써 전술교육을 향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정된 전투모형식의 훈련과 같은 것은 엄금한다.

제334 검열에 있어서는 상관으로부터 문제를 시험받는데, 이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상관된 자가 부대 및 각급지휘관의 전술상 숙달 정도에 관하여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제335 조전의 제식 및 원칙은 가장 단순한 상황에만 기초한 것으로 적의 앞에서는 상황에 따라 자주 이것을 변경하는 것에 명심하여야 하고 전투형세가 이를 요구할 때는 모든 지휘관은 각각 그 직책에 따라 물러나지 말고 신속하게 각종 상황에 적응할 업무할당을 하는 데 숙달하여야 한다.

행동을 취하지 않고 의심하며 주저하는 것은 그 방법의 선택을 잘못하는 것보다 오히려 커다란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뇌리(腦裏)에 새겨두고 또한 일정한 제식을 지키는 데만 급급할 때는 결코 현재의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데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336 모든 연습 및 교육기간의 전과정을 통하여 보병으로서 공격하기 좋은 기상을 발휘하고 또 이를 양성시키는 데 주의하여야 한다.

약간의 사격범위를 가지고 또 그 상황이 신속하게 결전을 요하지 않을 때는, 보병은 정지하여 정숙하게 시행하는 사격의 다대한 이익을 거두는 데 힘써야 된다.

그러므로 보병은 하시라도 전투 변화에 따라 화력을 신속하고 치열하게 하려고 노력한 연후에 적병에게 맹렬하고 또 유효하게

돌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요구된다.

제337 야외의 대부대 연습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병력을 사랑하고 아껴야 되며, 이 요지는 각 지휘관이 평상시 명심할 일이다. 필요시는 사랑이나 아낌이 조금도 없이 이들에게 매우 힘든 작업을 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제338 전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각 지휘관이 독단할 여지가 점점 커지므로 각 지휘관의 주의를 전체 범위 내에서 자기의 특별 임무의 완수를 위주로 하고 사소한 일은 그 감독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서로 하여금 동일한 수단을 사용하게 함과 같은 것은 그 가치가 전무(全無)하지만 하급 지휘관에게 부여된 독단의 여지가 결코 상급지휘관의 의도를 벗어나면 안 되고 또한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부대의 전투 서열과의 연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제339 제병연합연습 및 그 연합을 상정한 전투연습에 있어서는 전술상에 다시 여러 개의 상황을 제시하고 또한 이에 필요한 결단은 조전의 범위 밖에서 나오는데, 대개 조전은 전술학을 망라한 것이 아니고 다만 기본이 될 수 있는 법칙을 제시한 것뿐이다.

그러나 부대는 연습을 통하여 조전의 원칙을 상세히 알면 실전에서 제반임무를 모두 잘할 수 있으며, 만약 부대가 전쟁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또 연병장에서 습득한 것을 전장에서 결코 망각하지 않을 때, 이는 정확한 요지에 기인한 교련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보병조전 끝】

附 錄

軍旗 迎送

1. 총 칙

제1 군기 영송(軍旗迎送)은 연대의 1개 중대와 1개 대대의 고수와 나팔수로 시행하며 이를 군기중대(軍旗中隊)라고 부른다.

제2 군기를 유도(誘導)하는 데는 고참 부위(副尉) 1명과 호위하사(護衛下士) 2명을 사용한다.

제3 연대가 직접 군기를 보관하는 가옥 앞에 정렬할 때는 특별히 군기중대를 할당하는 일이 없고, 기수(旗手)가 군기를 받들어 가지고 고참 부위와 호위하사가 함께 지정한 시각에 가옥을 나와서 지름길로 그 위치에 이르고 이미 정렬한 연대는 제7의 방법으로 경례를 한다.

제4 장거리 행군을 실시한 뒤에는 기수와 호위하사 외에 장교 1명과 1개 분대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

제5 군기중대는 군기에 대한 경례를 할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람을 대하던지 경례를 하는 경우가 없다.

2. 군기 봉영(軍旗奉迎)

제6 군기중대는 고적(鼓笛)을 연주함이 없이 측면행진을 하며 고수와 나팔수는 중대의 선두에 서서 행진하되 군기가 있는 가옥 앞에 도착하여 횡대를 만들며 이때에 고수와 나팔수는 중대의 우측에 위치한다.

기수가 동행할 때는 고수와 나팔수의 후방에 서서 행진하여야

한다. 이때, 중대장은 고참 부위 및 호위하사 2명을 중대의 중앙 앞에 집합시킨다. 고참 부위는 호위하사를 인솔하고 기수와 가옥 내에 들어가 군기를 맞이한다.

제7 군기중대는 총에 착검하고 군기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며, 기수는 고참 부위 및 호위하사 2명과 함께 군기를 받들어 가지고 그 가옥을 나와 중대를 향하여 정지한다.(이때 고참 부위는 기수의 좌측에 위치할 것)

중대장은 곧바로 「받들어총」을 시키며 자신은 칼로써 경례하는데, 이때에 위관과 준사관은 칼로써 경례하고 정교(正校)는 봉도(捧刀)하며 고수와 나팔수가 팡파르(fanfare)를 1회 연주한 후 중대장은 「세워총」을 시킨다.

이때에 위관, 준사관 및 정교는 「어깨 칼」 하고 다음에 중대장은 중대중대를 만들며 기수는 좌우에 호위하사 각 1명씩을 거느리고 선두소대와 고수, 나팔수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때에 고참 부위는 정해진 위치로 돌아온다.

이어서 중대장은 중대로 하여금 행진을 시작하게 하며 동시에 고적을 연주하도록 하고, 군기의 전방에 위치하여 행진하며 연대의 집합장소에 도착한다.

만약 도로가 매우 좁아서 중대중대로 행진이 불가능할 때는 측면행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때에도 군기와 중대장의 위치는 앞의 요령과 다름이 없다.

제8 군기중대는 연대의 집합장소에 도착하여 연대와의 거리가 50보 되는 곳에 위치하며, 연대장은 연대로 하여금 총에 착검시켜 「받들어총」을 하도록 한다.

이때에 장교 및 준사관은 칼로써 경례를 하고 정교는 「받들어

칼」하며, 고수와 나팔수는 팡파르를 1회 연주하고 연대장은 연대의 중앙 앞 30보 되는 곳에 가서 정지하고 기수는 호위하사 2명을 거느리고 연대장으로부터 10보 되는 곳에 가서 이에 마주한다.

그리고 연대장은 군기에 대하여 경례를 하며 이를 마치면 기수는 그 정해진 위치에 나아가고 호위하사는 군기위병(軍旗衛兵)과 교체하여 소속중대에 복귀하며, 연대장은 「세워총」 구령을 내리고 이때에 장교, 준사관 및 정교는 「어깨칼」하고 군기 중대는 고적을 취주하지 않고 연대의 정해진 위치로 나아가야 한다.

3. 군기 봉송(軍旗奉送)

제9 군기의 봉송(奉送)은 봉영(奉迎)할 때와 반대 순서를 따라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군기 봉지법(捧持法) 및 경례

제10 기수가 열중(列中)에서 정지 혹은 행진할 때에 군기를 받들어 가지는 데는 깃대의 끝부분 쇠를 오른쪽 불기뿔 위에 붙이고 오른쪽 팔꿈치를 뒤로 하며 기의 꼭대기는 약간 앞으로 기울인다.

제11 군기가 경례를 해야 할 때는 다음 방법을 따라 하여야 한다.

군기가 수례자(受禮者)와 6보 떨어진 곳에서 기수는 오른손을 깃대에 연하여 눈높이로 올리고 깃대의 끝부분 쇠를 오른쪽 불기

빠로부터 떼지 말고 오른손을 앞으로 충분히 펴서 자못 깃대를 수평하게 하며 수혜자를 지나 6보가 되는 곳에 이르면 군기를 세워 정규 봉지법으로 복귀한다.

5. 군도 지법(軍刀持法)

제 12 부대를 지휘하는 장교와 대오(隊伍)에 정렬한 장교, 준사관, 견습사관 및 군도(軍刀)를 패용(佩用)한 하사는 칼을 뽑지만 오직 부관은 제외한다.

제 13 오른손으로 칼끝을 지나 칼손잡이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사이에 휴대하고 다른 두 손가락은 칼손잡이 등에 붙이되, 그 손을 오른쪽 볼기뼈 조금 아래에 붙이고 칼몸을 수직으로 세워서 칼등을 어깨의 오목한 부분에 의탁하고 팔을 조금 굽히며 팔꿈치를 뒤로 한다.

승마장교가 군도를 휴대하는 법도 역시 위와 같으나 다만 오른손을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놓고 칼몸을 조금 뒤쪽으로 기울이는 것이 다르다.

제 14 칼을 휴대하고 걸어가는 자는 행진간에 오른손으로 칼등을 잡고 수갑(手甲)을 앞으로 하며, 오른팔을 드리우고 칼몸을 수직으로 하여 어깨의 오목한 부분에 의탁하고 왼손으로 칼집을 잡고 손을 흔든다.

原文의 正誤表

1. 目錄 部分

頁	行數	誤	正	頁	行數	誤	正
1	4	탈자	9	6	3	105	104
1	5	탈자	9	6	5	탈자	114
1	7	탈자	10	6	7	탈자	115
1	8	탈자	10	7	2	탈자	119
1	10	탈자	12	7	9	의	에
2	3	탈자	25	8	8	탈자	148
2	4	의	삭제	9	3	탈자	153
2	9	탈자	(襲步)及突擊	9	4	탈자	153
2	9	48	47	10	9	탈자	176
3	3	탈자	56	10	10	의	삭제
3	5	탈자	58	11	4	탈자	186
3	6	의	삭제	11	7	탈자	187
3	8	의	삭제	11	9	탈자	191
3	8	탈자	66	11	10	탈자	191
3	9	의	삭제	12	4	탈자	203
4	2	72	71	13	3	탈자	231
4	4	81	80	13	8	탈자	273
4	6	탈자	82	14	3	탈자	317
4	8	84	83	14	5	탈자	317
5	5	91	90	14	6	319	318
5	6	列과	一列과	14	8	其	삭제
6	2	104	100	14	8	탈자	323

2. 本文 部分

頁	行 數	誤	正
22	9	右轉向	右(左)轉向
26	9	左足	右足
56	6	탈자	因
73	2	四十二	四十
73	5	十五	十四
86	10	(三)	(二)
99	8	탈자	散
110	6	탈자	一(層)
110	7	탈자	初期或有效(き)
110	8	탈자	(射)擊, 被(치안논), 應用(을)
110	9	탈자	(常)事, 蓋
110	10	탈자	效(力), 各(兵)
111	3	탈자	火戰中(에)命令(을)
111	4	탈자	手着及(戰鬪)動作(에)關한諸規則(嚴)
111	5	탈자	事件(을)
130	9	擬「견양」放	擬放「견양」
135	7	第九十二	第九十三
146	4	第九十三	第九十二
189	5	第二百十二	第二百十
217	4	銃氣	銳氣
223	1	力兵을	兵力을
254	9	運動戰에서	運動間에서
296	8	行軍縱長	行軍縱隊

- * 1. 본 정오표는 번역과정에서 발견된 誤脫字와 원문이 선명하지 않은 것을 譯者가 별도로 종합정리한 것이다.
2. 頁番號는 漢字를 아라비아 숫자로, 正誤內容은 세로쓰기를 가로쓰기로 표기하였다.
3. 탈자와 선명치 못한 부분은 모두 '脫字'로 표기하였다.
4. () 안은 찾아보기 쉽도록 참고로 삽입한 것이다.

譯者後記



역자(譯者)가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군사교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 도서관에서 한국 전쟁(韓國戰爭)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던 중, 고서적(古書籍)들을 별도로 정리해 놓은 서가를 접하고서부터이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역자는 그 이전에 이러한 서적들이 있는지조차 몰랐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계기로 당시에 발간된 자료를 수집한 결과 현재 20여 종류의 교범류를 당연구소에 비치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하여 자료 발굴에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제한된 이러한 자료들을 관 계기관이나 군부대에 널리 전파할 필요성을 느낀 나머지 감히 이에 대한 번역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자의 일천한 지식, 특히 한문에 조예가 깊지 못하여 돌출될 수 있는 오류나 어색한 표현 내용상의 불비한 점 등은 전적으로 역자의 책임이며, 아울러 독자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흔쾌히 받아들여 계속 발간될 교범들은 더욱 완벽을 기할 것을 약속 드린다.

이 책이 햇빛을 보도록 조치해 주신 당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자료의 수집 및 번역문의 수정보완에 적극 협조해 준 김순규(金舜圭) 선임연구원과 송양섭(宋亮燮) 연구원에게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步兵操典

詔曰發者所頒步兵操典一書豈爲軍
記之維持及教育之順序矣現今宇內
軍政日以進步誠不可獨守舊規茲將
原書參酌改訂頒示中外軍旅其各欽
遵無違勉臻精銳

光武十年八月 日

議政府參政大臣陸軍副將勳一等朴齊純

步兵操典目錄

總則

第一部 基本教練

第一章 各個教練

總則

徒手教練

不動姿勢

氣著

休息

轉回

一 九

十

十二

目錄

二

行進	十四
執銃教練	二十五
銃の操法	三十一
銃創の着脱	三十四
裝填	三十七
彈丸抽出	三十八
射擊	四十四
執銃行進	四十八
襲步	四十九
散兵教練	

第二章 小隊教練

行進及停止	五十
射擊	五十一
總則	五十七
密集隊次	
小隊の編成	五十八
格頓	六十一
小隊の背面向	
銃の操法及銃創の着脱	六十七
結銃及解銃	六十八

目錄

三

裝填	七十一
射擊	七十二
橫隊의 正面行進及背面行進	七十七
斜行進	八十一
驅步襲步及突擊	八十二
小隊停止	八十三
退步	八十四
方向變換	八十五
側面行進	八十七
側面行進間伍의 分解及重複	八十七

伍伍方向變換	八十八
停止及正面向	八十九
行進間右左向	九十
側面縱隊로 橫隊及橫隊로	九十一
側面縱隊에 移轉	九十一
二列로 一列과 一列로	九十二
二列에 移轉	九十二
散步	九十三
解散及聚立	九十四
散開隊次	九十五

目錄

六

散開

九十七

散兵線運動

一百四

散兵線射擊

百五二

聚立及併聚立

百十三

第三章 中隊教練

總則

百十四

密集隊次

中隊橫隊編成及區分

百十五

整頓

背面向

百十七
百十八

銃の操法

百十九

橫隊運動

側面縱隊

百二十

中隊縱隊編成

百二十二

橫隊より中隊縱隊に移轉

百二十四

半中隊縱隊編成

百二十六

橫隊より半中隊縱隊に移轉

百二十八

中隊縱隊より半中隊縱隊に移轉

百二十八

橫隊の移轉

側面縱隊より中隊縱隊及半

目錄

七

中縱隊及中隊縱隊及半中縱隊	百三十二
隊로側面縱隊에移轉	百三十二
中隊縱隊及半中縱隊의運動	百三十五
方陣	百三十九
射擊	百四十一
中隊縱隊及半中縱隊射擊	百四十二
突擊	百四十六
散開隊次	
散開及散兵線運動	百四十八
散兵線增加	百四十九

援隊	百五十一
聚立及併聚立	百五十三
第四章 大隊教練	
總則	
大隊基本隊形	百五十五
整頓	百六十一
銃의操法	百六十三
一의隊形으로他隊形에移轉	百六十四
重複縱隊로他隊形에移轉	百六十五
大隊縱隊로他隊形에移轉	百六十六

目録

十

縱隊橫隊로他隊形에移轉	百六十七
行軍隊形으로基本隊形에移轉	百六十八
同一의隊形으로間隔距離開閉	百六十九
基本隊形의運動	百七十
戰鬪展開	百七十三
第五章 聯隊教練	百七十六
總則	
聯隊의聚立隊形	百七十七

聚立隊形의運動	百八十
戰鬪展開	百八十一
第六章 旅團教練	百八十五
總則	
旅團聚立隊形	百八十六
聚立隊形의運動	百八十七
戰鬪展開	
第二部 戰鬪	百九十一
第一章 一般原則	
緒言	

目録

十一

練兵場効力	百九十四
散開隊次及密集隊次	百九十九
散開戰鬪	二百三
總則	
散開	二百四
射擊	二百十
運動	二百十七
聚立及併聚立	二百廿二
諸兵種에對호動作	二百廿三
工作器具使用	二百廿九

戰鬪間指揮官及兵卒의動作

二百卅一

指揮官

兵卒

二百卅五

戰鬪正面及梯隊區分

二百卅九

攻擊及防禦

二百五十四

第二章 部隊戰鬪

二百七十三

中隊戰鬪

大隊戰鬪

二百八十四

聯隊戰鬪

二百九十二

目錄

十四

旅團戰鬪

三百

第三章 結論

三百八

附錄

軍旗迎送

三百十七

總則

軍旗奉迎

三百十九

軍旗奉送

三百廿三

軍旗捧持法及其敬禮

軍刀持法

三百廿四

步兵操典

總則

第一 教練目的은指揮官及兵卒을訓練하야戰爭에供하느니故로諸般演習으로써戰爭에適合케함을要하느니라

凡戰爭에緊要無二者는全力을盡하야嚴正한軍紀及秩序를維持함에在하느니練兵場及野外의諸演習等은此特有한性質을養成함을主要하느니라

戰爭은百事簡單한者가能히成功을期할지라故

總則

一

로少數單一호制式을訓練하야應用함이足하고
此制式은嚴格히修習하야確實히施行함을要하
나니操典中法則은基本을示함뿐아니라其精神
을用하야반다시平戰兩時에相通함을知함이
可하니故로總히巧節에涉함은嚴禁하나니라
第二 中隊長以上諸隊長은操典을遵奉하야其
部下를敎育하는責任이有하니其敎育方法撰定
에就하야는아모조특별限을受치아니하고且直
轄上官은部下敎育의不進歩及過失을發見할時
는平矯正하는義務가有하니라

第三 中隊에서는步兵의固有한敎練을修得하
나니此敎練은大隊에서는擴張하야密集隊形에
及하고聯隊及旅團에서는다시聚立隊形에及하
나니라

大隊에서는戰鬪敎練의確固한基礎를養成하고
各中隊諸般戰況에應하야共同動作함은步兵諸
戰法에基礎가되나니라

聯隊에서는敎育及指揮에關한諸事를均一히養
成하나니聯隊가特히旅團에서行하는演習은高
等帥兵術端緒에屬하나니라

總則

四

各級指揮官은操典各部을演習에實施하고精神을川하야操典의要求를完備하는責任이有하니라

第四 同一호敎練를長時間續行하면兵卒의精神及身體가倦勞하니故로演習을交換하고其時間及方法은兵卒의能力及體力에適當判定함을要하니不然하면遲鈍할怠慢에因하야軍紀를害하니라

第五 諸種地形에就하야諸種演習을아모조로多行하야써練兵場敎練에不足함을補함이可하

니라

第六 戰時人員의部隊로써行하는演習은大效力이有하니故로此를行할機會가有할時는練兵場及野外에서施行함이可하니라

第七 號令을豫令及動令에分하니豫令은明瞭히長하고動令은快活히短케發令하고豫令動令間에適當한時間을存함이可하니號令이活潑할時는動作도活潑할지라故로號令은何等境遇를勿論하고同一호方法及活音으로써下함이可하니라

總則

五

豫令과動令은操典中에二字間距離를置어야區別하니라

將校는行進方向或行進停止를指示할際에刀로써記号를與하느니라行進에는刀를高舉하며停止에는刀를舉야아곳下하느니라

將校는呼角으로써射擊停止號令을換하며且伊後敎示를與하기爲야部下의主意를喚起하느니라

第八 操典에揭호號令及記号는반다시遵用하는法則이니라

號令으로其意를盡치 못할時는命令을川호하리라

總則

八

第一部 基本教練

第一章 各個教練

總則

第一 各個教練은部隊教練에基礎니體操를補助하야精密히用意하고嚴格히教授함을要하니各個教練이完全치못하면部隊教練에不及하니니라

新兵教育이不完全할時는服役間에矯正함이極難하니最初教授의感染을過失은恒常固結하야全히除去함이難하고部隊教練을因하야補綴함

基本教練 各個教練 總則

九

徒手教練 不動姿勢

十

을得지 못하느니라

兵卒를懇篤히敎育하야熟達에至케함은演習에
經過가急速치 안니함과復習을厭치 안니함에在
하느니라

徒手教練

不動姿勢

第二 號令

氣着

兩踵을一線上에齊하야着하고兩足은矩形보답
조금狹히開하야同樣으로外側에向하고兩膝

은凝結치 안케伸하며上體는正케腰上에靜持하
며또조금前으로傾하고兩肩은別로張함이없고
後方에引하야一樣으로下하고兩臂는自然이垂
하며掌은股에着하되無名指는袴에縫目後에着
하고頭는正하며且自然이保持하고頸을眞直히
하고腮는輕히頸에近하고兩眼은前을直視하
느니라

兩足を正히置하는事가甚히緊要하니此를因하
야上體의姿勢를正히保持함을得함이니若兩足
의位置가不正할時は肩의位置가從하야傾하느

徒手教練 不動姿勢

十一

徒手教練 不動姿勢 轉回

十二

니라

第三 休息할 때는 左에 号令을 下하느니라

休息

姿勢와 不動하느니 意를 勿拘하교 一足만 舊位에 置하교 其場에 立하야 休息하느니라

休息 號令이 有할 時外에 是教練中 任意로 動함을 不得하교 且 休息中이라 도 談話함을 禁하느니라

轉回

右(左)向及半右(左)向

第四 號令

右(左)向

右(左)

或은

半右(左)向

右(左)

右(左)足尖과 左(右)踵을 조금 上하교 右(左)踵과 左右足尖으로 環의 四分一或八分一를 右(左)에 回하교 後된 踵을 前踵에 引着하야 同線上에 齊列하느니라

右轉回

第五 號令

廻(도라)

右

轉回

十三

轉回行進

十四

右足を其方向後로引호야足尖을左踵에接호고
兩足尖을 조금上호고臑을屈함이업시兩踵으로
後에廻호야右踵을左踵에引着호니라

第六立銃에在호야轉廻를行할時는右手로써
銃을 조금上호야腰에支호고運動이終호면銃
을地에置호나니라

行進

平步

第七平步는一步의長이踵으로踵까지七十五
珊知米突이오其速度는一分時間에百十四步니

라

號令

前(앞)으로 進(가)

動令에左脚을輕히屈호야前方에出호되足尖을
조금下호며目外側에向호고上體를조금前에向
호야右足으로부터七十五珊知米突處에脚을伸
호면서चित地面을敲함이업고平히踏着호며臑
을地面에壓호야伸호고全히體重을踏着호足上
에移호고左足を踏着할同時에右踵을地에서離
호야左脚에說示호同法으로右脚을前에出호야

行進

十五

行進

十六

同距離處에 踏着호며 行進을 續行호느니 兩足은 交叉치말고 膝은 過高히나치말고 兩肩은 回轉말고 頭는 正히 保호고 兩臂은 自然히 振動호느니라

第八 號令

分隊 立

後된 足을 前된 足에 引着호야 立호느니라

第九 平步로 行進할 時에 行進을 容易케 호기爲호야 左의 號令을 下호느니라

步調止 보도곳처

正規의 步法을 守치 안코 平步의 速度를 用호야 姿

勢를 正히 列伍를 勿紊호며 銃을 正히 肩에 着호고 橫隊에 在할 時 列間距離를 八十 珊知米 突에 開호事호고 行進호느니라

再次 正規의 步法(定規의 列間距離에 復호事)을 取케 할 時는 左의 號令을 下호느니라

平步로 進가

停止間步調를 取치 안코 行進을 起할 時는 左의 號令을 下호느니라

步調업시前, 押호로 進가

退步

行進

十七

行進

十八

第十 退步는 小距離에 用하는바 其速度는 約 平步와 同하니라

號令

後「뒤로」 進「가」

左足を 後로 引으며 輕히 脚을 屈하여 前足으로 約 半步處에 踏着하고 次에 右足도 同動作으로 連續히 退却하니라

第十一 號令

分隊 立

前된 足を 後된 足에 引着하고 立하니라

驅步

第十二 驅步는 一步長이 約 八十五珊知米 突이 오其速度는 一分時間에 約 百七十步니라

號令

驅步로 進「가」

預令에 兩手를 握하여 腰高에 上하고 肘를 後로 引하니라

勅令에 左脚을 前에 出하니 其法이 脚을 조금 屈하며 膝을 조금 上하여 足尖으로 下하되 右足으로 부터 八十五珊知米 突處에 踏着하며 次에 左脚과

行進

十九

行進

二十一

同法으로써右脚을前에出호되恒常輕重을踏着호足에移호고兩肘는自然히振動호야連續行進호느니라

〔分隊立或平步로進號令에停止호거느或平步에移호고兩手를下호느니라

足踏

第十三 行進에在할時는左에號令을下호느니라

踏歩로

進가

連續히行進치말고조금膝를屈호야兩足을相交

踏着호되調法을取호고再次行進케할時는左의號令을下호느니라

前〔앞〕로

進가

換歩

第十四 行進에在할時는左의號令을下호느니라

換歩로

進가

上호足을前에踏着호고後호足을踏着호足後에引着호며前에踏着호足으로써行進호느니라

橫歩

行進

四一

行進

廿一

第十五 橫步는數步左右에移轉함이니其步幅은約二十五珊知米突이오其速度는約平步와同하니라

號令

右(左)橫步로 進가

右(左)方에進을時는右(左)足으로써步를起하고左(右)足을右(左)足에接하여連續히側方에進하고分隊立號令에立하느니라

行進間右(左)向斜行進及右轉回

第十六 號令

右(左)向前압호로 進가

左(右)足을前에踏着하고其足尖으로體를右(左)便에回하고右(左)足을新方向에踏出하여連續行進하느니라

第十七 號令

斜비키여右(左)로 進가

左(右)足을前에踏着하여其足尖으로體의半은右(左)便에回하고右(左)足으로써新方向에行進하느니라

再次直行進에復을時는前進號令을下하느니라

行進

廿二

行進

廿四

兵卒은斜行進할時와同法으로써正面에復하야
行進하느니라

第十八 號令

廻「도라」右便前「앞」로 進「가」

左足을前에踏着하야其足尖으로後에回하고右
足을左足에引着하고左足으로行進하느니라
第十九 右轉回하며곳停止케할時는左에號令
을下하느니라

廻「도라」右便 立

左足을前에踏着하야其足尖으로後에回하고右

足을左足에引着하야立하느니라

執銃教練

第二十 執銃教練은徒手教練이略熟後始行
훈을要하느니라

銃의操法

第二十一 惣히銃의操法은臂及手로써操作할
뿐이니他の体部는直히正直不動훈을要할거시
오銃을叩하야音響을發함과且床尾踵을地에撞
着훈을嚴禁하느니라

兩手が銃을同時에放함이엄고確實히保持하느

執銃教練 銃의操法

廿五

銃의操法

廿六

니其各舉動은平步의速度와同하니라

立銃에在하不動姿勢

第二十二號令

氣着

不動姿勢를取하고右手로써銃을握하되銃身을
拇指와食指間에置하고其他三指는食指와共閉
輕屈하야銃床에添하고銃口는右臂로부터一握
쯤(約十珊知米突)隔하야銃身을後로하고床尾
踵을左足尖傍에置하고銃身을眞直히保持하
니라

第二十三 立銃에在하야休息할時는左의號令
을下하느니라

休息

照星을磨擦치안케銃을保持하고其場에休息하
느니라其他는第三과同하니라

立銃으로肩銃

第二十四號令

肩(역시)銃

第一動 右手로써銃을握하야肩의高에上하며
銃身을右로하야眞直히하고同時に左手로써照

銃의操法

廿七

銃의操法

廿八

尺下를握고 肘를下야輕히体에接하느니라
 第二動 左手로써銃을조금上야銃身을前方
 에半向하고右手를伸야床尾板을握되食指
 及中指間에床尾踵을挾하느니라
 第三動 右手로써銃을右肩에擔되銃身을上
 으로하고左手를遊底上에附하고右肘는輕히体
 에接하고床尾翻鑲을体로부터一握을離하며銃
 은上衣의釦線과平行하고槓杆은大概第一第二
 釦中間의高와同하느니라
 第四動 左手를下하느니라

肩銃으로立銃

第二十五 號令

立세워

銃

第一動 右手를伸야銃을下되銃身을右方
 에半向하야眞直히하고左手로써照尺下를握하
 고肘를下야輕히体에接하느니라
 第二動 左手로써銃을下하고銃身을右로回하
 고右手로써木被中央部를握하느니라
 第三動 銃身을後로하고小指를木被上에着하야
 右腰에支하고同時에左手를下하느니라

銃의操法

廿九

銃의 操法

三十

第四動銃을 地上에 置하느니라

立銃으로 捧銃

第二十六 號令

捧[받드러]銃

第一動 右手로써銃을 上하야 體의 中央前에 特來로 하되 銃身을 後로 하야 眞直히 하고 同時에 左手로써銃을 握하되 食指를 木被下端과 平等히 하고 拇指를 銃床에 沿伸하야 左臂를 輕히 體에 着하되 水平케 하느니라

第二動 右手로써 輕히 銃把를 握하느니라

捧銃으로 立銃

第二十七 號令

立[세워]銃

第一動 右手로써 木被中央部를 握하되 右肘를 輕히 體에 接하느니라

第二動 右手로써銃을 下하야 右腰에 支하되 同時에 左手를 下하느니라

第三動 銃을 地上에 置하느니라

銃創着脫

第二十八 銃創着脫은 停止와 行進間에 共히 行

銃의 操法 銃創着脫

卅一

銃創着脫

卅二

하느니 着脫을 終하면 銃을 舊位置에 復하느니라
 銃創의 着脫은 兵卒로 하야 其 方法을 知케 할 事
 이니라

創着

第二十九 號令

着脫여 創

立銃時는 右手로써 銃을 左에 傾하야 銃身을 조
 금 右로 하고 銃口를 大概體의 中央에 置하되 胸으
 로부터 一握 隔하야 左手로써 創柄을 逆握하고
 創을 拔하야 確實히 銃에 裝着하고 兩手로써 銃을

起하야 立銃位에 復하느니라

脫創

第三十 號令

脫創여 創

立銃時는 着創과 同法으로써 銃을 左에 傾하야
 左手로 創柄을 握하고 右手를 上하야 其 拇指로 創
 柄의 趾筋頭를 押하고 左手로 創을 脫하야 右方에
 倒하되 創尖을 下로 하고 右手의 食指中指及 拇指
 로 創口를 挾持하고 其餘指는 銃을 保持하며 左手
 를 返하야 柄을 握하고 眼을 創口에 注하야 創을 完

創着脫

卅三

削着脫 裝填

卅四

全히鞘에插히고左手로써上帶下를握하고右手
를下하야木被中央部를握하고兩手로써銃을起
하야立銃位置에復하느니라

裝填

第三十一 裝填은屢屢히敎習하야熟達함을要
하느니라此는兵卒이停止와行進을關치안코又晝
夜의別이업시何等姿勢를勿論하고確實하며且
迅速히行함을要하느니라裝填의迅速을要할時
外에는恒常左方彈藥盒의彈藥을使用하느니라
然하느銃의毀損을防하기爲하야遊底에開閉

彈藥及擬製實包를用할時은實施하고其他는擬
製하느니라

地上에落호彈藥을收拾할時는此를淸拭하기
에注意함이可하느니라

立銃으로裝填

第三十二 號令

彈丸入탄환창여

銃

半右向하야右足을新線上右方約半步處에蹈固
하되其足尖은조금內側에向하며同時에右手로
써銃을上하면서前에倒하야左手로써約銃의重

裝填

卅五

裝填

卅六

點處를握호되其指는縱溝內에置호고銃口를眼의高와맞치호며銃把를右乳보담조금下로호고床尾를体에接호느니라

右手로써槓杆을握호되爪를上으로호고右臂는輕히銃床外面에接호고槓杆을起호야漸漸強호게後로引호느니라

右手를彈藥盒에入호야插彈子를撮호되彈頭를前으로호야垂直히受筒蓋上에持來호고後方으로引호면서插彈子溝에嵌入호고拇指頭를彈藥筒後部에當호야上으로壓호며彈倉에送入호느

니라(未熟者는裝填할時에眼을插彈子溝에注호도無妨호니라)

右手로써槓杆을握호느니라

迅速히遊底를進호야確實히槓杆을右方에倒호느니라

右手의食指로써副鐵鈎를漸漸後方에引호야右方에廻호고靜호게擊莖을進호야擊鐵을安靜段에鈎호느니라

右手로써木被中央部를握호고正面에

裝填

三十七

裝填 彈藥抽出

上全

向을 면서 立銃位 眞에 持來하고 左手를
下하느니라

銃을 地上에 眞하느니라

插彈子를 不附하 彈藥은 每發受筒 鉞上
에 眞하고 右手 拇指로 彈倉에 裝入하느
니라

彈藥抽出

第三十三 銃의 裝填하야 在할 時에 彈

藥을 抽出케 하면 左의 號令을 下하느니
라

彈丸抽[단환색여]

裝填의 姿勢를 取後 列兵은 距離를 閉하
고 擊鉄을 擊發段에 致하며 橫杆을 起하
야 徐徐히 進退하야 彈藥을 出하야 彈藥
盒에 入하고 左手를 用心 金에 近케하야
中指外 無名指로 受筒 鉞을 壓하고 藥室
을 閉하야 擊鉄을 下하고 立銃後 列兵은

彈藥抽出

三十八

彈藥抽出射擊

上全

舊位の復々々니라

射擊

立射

第三十四 立銃에在호時는左의號令
을下호々니라

立擬放셔셔甘양

銃

幾米突

射

擊

銃號令에裝填호時와갓치銃을擬호야擊鉄을
擊發段에致호고右手로써銃把를握호며食指를
用心金內에入호야伸호고若裝填치아닌時는裝
填호々니라照尺의使用과照準及發射의動作은步兵射擊教
範에從호이可호고跪射伏射에在호야도亦然호
니라擊號令에發射後는又次發의準備를行호며彈
倉의彈藥을全히射耗호時는다시裝填호々니라

射擊

卅九

射擊

四十

射擊을止케할時는左의號令을下하느니라

射擊止 사적곳쳐

第三十五 擊鉄을安靜段에鉤하고照尺을舊位에復할後立銃하느니라

「射」姿勢에在하야照準을中正케할時는左의號令을下하느니라

復 다시 銃

豫令에食指를引金에서脫伸하고動令에再次立射擬에復하느니라

跪射

跪射

第三十六 立銃하야在할時는左의號令을下하느니라

跪擬放하러견양 銃

纖米突

射

擊

「銃」號令에銃을提할디로半右向하고同時에右足을約半步後에引하되其足尖을左足延線上에直하고其方向은左足과約六十度角을成케하며

射擊

四十一

射擊

四十二

左手로써劍鞘을握하야前에出하고兩肩을張치
말고頭는直常正面하느니라

右足方向에右膝을地에着하고體를右踵上에載
하며劍鞘을捨하고右手로銃을前에倒하며左
手로約重點處에就하야銃을握하고左前臂는左
股上에支하며床尾面平面을右股内部에着하고
銃口를眼에高와갓치하야發射準備을行하느니
라

其他動作은立射에準하느니라

伏射

第三十七 立銃에在할時는左의號令을下하느
니라

伏擬放 업디여 검양

銃

幾米突

射

擊

銃號令에半右向하고銃床尾를右肩에對하야
前方約一步處에出하느니라

銃을出할方向에兩膝과左手를地에着하야伏臥
하고銃을左手內에倒하되銃身을上으로하고發

射擊

四十二

射擊 執銃行進

四十四

射準備을行하느니라

其他動作은立射에準하느니라

執銃行進

第三十八 執銃行進에在하야는〔進號令에銃을擔하고行進中은左臂을自然히振動하며〕立號令에停止하고 곧立銃하느니라

駈步를行할時는〔駈步로〕豫令에擔銃하고左手로써創鞘를握하야前에出하느니라

退步를行할時는銃을조금上하야右腰에支하느니라

第三十九 行進中立跪射姿勢를取할時는左의號令을下하느니라

立서서跪姿勢로擬放할양 立

立號令에停止하고次에右足を踏開하며同時에〔擔銃을뒤로跪姿를取할後〕立銃의第一動과맞치銃을下하야擬하고其他動作은立〔跪射와同하느니라

第四十 行進中跪伏姿를取할時는左의號令을下하느니라

跪姿부터伏姿언디여

執銃行進

四十五

執銃行進

四十六

跪姿를取할時는左足을前에踏出하며右膝을地에着하고跪射할時와갓치銃을下하야右膝前에立하되銃身을後로하고右手로木被中央部을握하며左手를左股上에實하고伏姿를取할時는停止하야立銃後伏射할時와갓치伏臥(一列에在할時前列은二步前進)하되木被中央部에就하야銃을左前臂에載하고槓杆을上으로하느니라

停止間에在하야도亦此에準하느니라

第四十一 跪姿或伏姿에在하야起立或前進할

時는左의號令을下하느니라

起이러나

或은

前압으로 進가

起或前으로號令에起立後列은距離를復하야立銃하느니라

第四十二 戰團中急히行進을要할時에休息姿勢에在하야는(或은)號令을省畧함을得하느니라然할時는豫令에긔不動姿勢를取하느니라

襲步及襲擊

執銃行進 襲步

四十七

襲步

四十八

第四十三 襲步의速度는一分時間에約一百二十步오其要領은平步와同하니라

號令

襲步로進

第四十四 號令

突擊

號令 突擊을야할時는立鎗의第一動에準호
事에右手로下帶下部를取호야銃을提호되床
尾板을地面에서조금離호야銃口를約右肩前方
에在케호고駈步와同要領으로行進호니停止

號令이有호면射擊姿勢를取호니니라

散兵教練

第四十五 散兵教練目的은兵卒로호야금散兵
動作即地形을利用호야行進停止及射擊호는事
를知得케호니니라

第四十六 新兵이行進과銃의操法과裝填及射
擊方法에若干熟達할時는散兵教練을始함이可
호니如此호면는最初에平易호地形에서故參兵
卒을使用호야散開戰鬪要領에就호야單簡호方
法을說明함이可호니라

襲步 散兵教練

四十九

行進及停止

五十

行進及停止

第四十七 散兵은恒常銃에裝填하야適宜케提
하되銃口를上으로하고步調엄시自由姿勢로運
動하며停止할時는銃의最大威力이可히顯得할
位置를擇하야아모조로身體를遮蔽함을要하느
니라

第四十八 散兵은特히溝渠、崖岸、牆壁及生籬
等을超越攀登할事에熟함이可하고又各散兵은
遮蔽하야潛行하며或位置를稍隔하며或身體를
屈하며或俯倒하야地物을利用함을要하느然하

느許多境遇에捷路를取하느事가가장有利함을
銘心함이可하니라

射擊

第四十九 諸種景況及姿勢에在하야裝填과射
擊方法을懇篤히敎授함을要하되伏姿跪姿又遮
蔽物의背後或地物에依托하느射擊姿勢의適川
은各兵卒의体格、地形、目標種類及戰鬪景況에
關하느니라

第三十四第三十六第三十七에揭호伏射跪射及
立射의姿勢外에藥左에示호方法을適川함이可

行進及停止 射擊

五十一

射擊

五十二

호니라

第五十 伏射를確實且便利케 하기爲호야銃을
依托호은大호價値가有호니라

依托伏射호는伏射姿勢를取호야銃의下帶下部를
依托호고左手로써銃床尾를握호느니其法은拇
指를內側에付호고他四指호는外側에付호고銃을
肩에引着호며体호는全히兩肘上에托호고右手로
써強히銃把를握호야照準호느니라

第五十一 跪射姿勢에在호散兵은臀部를右踵
으로上호고肘를托호호는事일시射擊호느니此時

左手호는銃의重點을握호느니라

第五十二 樹木後方에在호야立射或跪射를行
호時호는아모조록右肩을後로호야射擊호되且樹
木이巨大호時호는左手의前臂를樹幹에托호고樹
木이小호時호는左掌을樹幹에付호지니第一境遇
에호는銃을掌裡에置호고第二境遇에호는拇指와食
指間에托호느니라然호는樹木은僅히前面을遮蔽
호고側方을遮蔽치못호는故로散兵이伏射에自
由射擊界가無호時만此射擊을行호느니라

第五十三 胸牆에據호射擊은左臀部를崖徑에

射擊

五十三

射擊

五十四

托는든지或右足を退호야身體의左側을內斜面에接호고或兩肘를崖徑에托호고銃은依托伏射와갓치胸牆에托호니라

第五十四 其他牆壁溝壕僅少호凹凸及生籬等을利用호야敵眼及敵彈을遮蔽호며或銃을依托호고又安全히裝填호는法을敎授호지니라

第五十五 兵卒이伏臥호야自由射擊界를得지 못할時는發射할際에만跪射或立射姿勢를取호고射擊後에다시伏臥호니라

第五十六 上の諸演習을理解호기爲호야敵兵

을設置호고遮蔽의價值가有함을證明호이可호니此演習目的은兵卒노호야금諸種位置에서一日에其地形利害를判別호야此를應用케호니라

遮蔽應川의要領은射擊効力을爲主호고次에遮蔽効用을顧慮호니라

第五十七 散兵射擊을敎授호必要는敵兵으로호야금射擊의諸規則을遵守호야精密히照準호고沈着호야射擊호면好成績을得호니라不正호照準과不靜肅호射擊은効力이無호事를知解

射擊

五十五

射擊 小隊教練

五十六

계함에在하니라

第五十八 凡散兵은停止間에大衆伏臥함을要하노然하노平時演習에는衛生上等을顧慮하야或跪射、伏射의姿勢를取치안이하노事가有하니如此호境遇에는指揮官은兵卒에게如何호理由를問하야實際와反對動作을行함을明瞭히理解케함이可하니라

策五十九 以上演習과同時에射擊學科를實地에施行하며距離測量을行함이可하니라

第二章 小隊教練

總則

第六十 小隊教練은中隊教練의一部나中隊編入의準備함으로써目的을삼느니라

新兵이各個教練을畢호後는小隊教練에移호기爲하야若干新兵으로써一列或二列의分隊를編成하야小隊一部를作하야第二章을施行하되但號令中小隊의語를分隊로換하느니라

小隊或此보다大호部隊에서第一列正面과第二列正面에不關호며右翼先頭와左翼先頭을不關호고又伍의混淆호境遇에도恒常確實호고正整

總則

五十七

總則 密集隊次 小隊編成

五十八

正히運動함이可하니라

第六十一 停止間에隊形及方向을變換할時는
右手로써銃을右腰에支히고步調을取함이업고
若駢步를써行할時는豫令次에「駢步」號令을加
하되行進間에在하야는恒常駢步를川하느니라
規則은中隊에도適用하느니라

第六十二 小隊長은教練間에適當處를占位
함이可하니라

密集隊次

小隊編成

第六十三 小隊는兵卒身幹順序를從하야六十
珊知米突(前列兵의前或背變으로부터)距離를
隔하야二列의編成하나니其前後에立하二人을
伍라稱하고各伍中其長大한兵卒를第一列에置
하며小隊兵員이奇數될時는左翼第二列를缺하
야此를缺伍라稱하느니라

上等兵은大概身幹順序에從하야小隊中에配賦
하느니라

後列兵은正히前列兵에重疊하야同方向에位置
하느니라

密集隊次 小隊編成

五十九

密集隊次 小隊編成

六十

各兵卒間隔은互相肘가接觸치안케하야銃에使用及運動을妨碍치안케함을要하니(此間隔은左手를腰에付하되肘를側方에張하야僅히左隣兵右臂에觸하게함으로써度을삼나니라)

小隊各伍는第一列正面에在하야右로左에番號를付하니니라

小隊를若干分隊에分하야小隊中에右翼으로부터順序로番號를付하니其分隊兵員은四乃至八伍로하니니라

小隊前列兩翼에下士二名을置하니其右翼에在

하者를右翼下士라稱하고其左翼에在하者를左翼下士라稱하고其他下士는分隊中央의後列後二步處에位置하야此를押伍라稱하니以上下士는散開隊次에移할時에分隊를指揮하고下士가不足할時는上等兵으로써此에代하니니라

整頓

第六十四 整頓이完全할時에各兵卒은整頓線上에正規姿勢를取하야頭를整頓翼에右(左)로轉할時는右(左)眼으로써其右(左)隣兵을視하고其他眼으로써全線을通視하니니라

密集隊次 小隊編成 整頓

六十一

整頓

六十二

兵卒이 整頓線에 就할 時는 上體를 前後에 出함이
엄시 正호 姿勢를 要하느니 若 兵卒中에 足의 位置
가 不正호 者가 有하면 自然히 兩肩位置가 整頓線
에 不在호야 其害가 自己에 만止할 事아니라 隣兵
에게 도 及하느니 如此호 者는 몬저 兩足을 見케하
야 此를 修正호고 드디여 各兵卒로 호야 各 整頓要
領을 知得호야 整頓正否를 스스로 識別케 함이 可
하니 然호 時는 迅速호고 또 正當호게 整頓호야 上
官이 展屢히 前호로 或 後로 呼호야 兵卒을 進退
케호는 事가 無호기에 至함이 可하니라

第六十五 整頓要領을 知케할 時는 몬저 基礎兵
를 出호야 此에 整頓케하느니 此를 爲호야 左의 號
令을 下호느니라

右(左)二伍(二人)三步(四步五步)前(앞호로)
進(가)

右(左)翼下士及右(左)二伍(二人)는 指示호 步數
만 前進호되 其二伍(二人)는 翼下士에게 整頓호
고 小隊長은 其 整頓을 正호하느니라

右(左)로 準(나라니)

整頓

六十三

整頓

六十四

直「바루」

「準」號令에各兵卒은前進호되最後一步를縮호야조금整頓線後方에止호고次에頭를右(左)方에廻호며腦을屈치말고小步로蹈호야靜肅히整頓線에就호고銃을地에置호니但後列及押伍列은몬져正히前方兵卒에重疊호야距離를取호然後에右(左)方에整頓호고翼下士는自己에近호者로逐次整頓을正호니라

「直」號令에各兵卒은頭를正面호고(或左手를下호니라)

第六十六 翼下士를前進케호야整頓을行호時는左에號令을下호니라

嚮導三步(四步五步等) 前「앞호」로

右(左)로 準「나라니」

直「바루」

嚮導三步(四步五步等)「前호」로號令에二名翼下士는指示호步數만前進호고小隊長은其位置를正히호며「準」號令에右(左)翼下士는要호면自己에近接호二三名兵卒을低聲으로進退케호야前列整頓을補助호니라

整頓

六十五

整頓 小隊背面向

六十六

第六十七 其位置에서 小隊整頓을 正할 時는 左에 號令을 下하느니라

右(左)로 直(바루) 準(나라니)

第六十八 整頓은 平行或斜行으로 하느니라
小隊背面向

第六十九 號令

廻(도라) 右

右 號令에 小隊는 背面向하고 缺伍及翼下士는 前列에 就하느니라

第七十 停止或行進할 時에 押伍列을 後方에 移할 時는 左에 號令을 下하느니라

押伍後(뒤로)

各押伍는 驅步로 最近翼을 經하야 後列後方에 移하야 舊位에 對하느니라

銃의 操法及銃創着脫

第七十一 銃의 操法은 小隊가 齊一히 行함을 要하느니라

銃創着脫은 各兵卒이 아모 조로 迅速케 行함을 要하느니라

小隊背面向 銃의 操法及銃創着脫 六十七

銃의操法及銃創着脫 結銃及解銃 六十八

下十兵卒과共히銃의操法及銃創着脫을行하
느니라

結銃及解銃

第七十二 結銃할時는銃創을付着한後에左의
號令을下하느니라

結銃의 銃

奇數伍의前列兵은左手로써上帶下를握하고床
尾踵을右足尖으로부터床尾鉞三倍前에出하
되銃身을左로하고右手를放하며左手로써銃을
左方에傾하느니라

偶數伍의前列은左手로써上帶下를握하고床尾
踵을左足尖으로부터床尾鉞三倍前에出하되
銃身을後로하고右手를放하며左手로써銃을右
方에傾하야右隣兵創鉞과交結하느니라

奇數伍의後列兵은左手로써上帶下를握하고右
足을踏出하야其創鉞을既結한前列兵創鉞에交
結하고床尾踵을左隣兵과間隔한中央前에置하
느니라

偶數伍의後列兵은左手로써上帶下를握하고銃
身을前으로하며左足を踏出하야其銃口部를奇

結銃及解銃

七十

數伍前列兵創鐔에依托하고銃은奇數伍後列兵의銃과並行한다니라

第七十三 結銃을解할時는左의號令을下한다니라

解(푸러)銃

豫令에偶數伍의後列兵은左足を踏出하고右手로써其銃을取하고其他三名(奇數伍의後列兵은右足を踏出)은左手로써上帶下를握하고右手로써下帶上을握한다니라

動令에銃을上하야交結를解하고不動姿勢를取

한다니라

裝填

第七十四 裝填은各兵熟達程度에應해야아모조록迅速히行함을要한다니但下士는必要할時만此를行한다니라

「彈丸入」號令에後列兵은右前方約一步을閉하고銃號令에右翼下士는半右向한다니裝填을畢後에右翼下士及後列兵은舊位에復한다니라

射擊

裝填 射擊

七十一

射擊

七十二

第七十五 小隊正面은目標에對하느니方向과아
모조록直角되기를主하느니故로要할時는미리
方向變換을行하느니라

第七十六 射擊을一齊射擊과各個射擊으로分
하느니一齊射擊은「射擊」號令을從하야行하며各
個射擊은「緩」連續或急射擊「號令」을從하야行하
느니라

第七十七 小隊長은實包射擊에在하야는射擊
効力을觀測하기便宜한地를占位함이可하느니라
下士는立射에在하야는立銃右翼下士는半右

向하고跪射伏射에在하야는兵卒과同一姿勢
勢를取하되其銃의保持法은第四十二에準하고
又射擊은必要할時만行하느니라

第七十八 「立」跪射擬放「號令」에後列兵은第七
十五에揭호와가치距離를閉하고次에「銃」號令
을下하느니라

第七十九 小隊行進間에速히射擊을行케할時
는左에號令을下하느니라

立「서서」跪「부러」擬放「견양」 立廻「도라」
右便 立

射擊

七十三

射擊

七十四

「立」號令에 小隊는 停止(右轉回)하고 後列은 距離를 閉하여 銃을 擬하고 押伍列이 火線前에 在할時

는 第七十에 準하여 後列後方에 移하니라

第八十一 齊射擊號令一例

前面에 보이는 縱隊

立서서(跪)「부러」擬放(견양)

銃

七百米突(七百米八百米突)

射擊

射擊을 續行케 할時는 左에 號令을 下하니라

射擊

混用照尺은 通常前列兵은 低호 照尺, 後列兵은 高호 照尺을 用하니 散開할時도 亦此에 準하니라

第八十一 各個射擊號令一例

森林右便에 在호 砲兵

立서서(跪)「부러」擬放(견양)

立

八百米突

緩(連續)(急)射擊

射擊

七十五

射擊

七十六

「緩射擊」號令에 兵卒은 隣兵과 交互하야 緩徐히 射擊을 行하느니라

「連續射擊」號令에 兵卒은 隣兵을 顧慮치 말고 隨意射擊을 行하느니라

「急射擊」號令에 兵卒은 迅速히 射擊을 行하느니라

第八十二 射擊을 止케 할 時는 左에 號令을 下하느니라

射擊止 곳저

小隊는 第三十五와 맞치 立銃하고 右翼下士及後

列兵은 舊位에 復하느니라

第八十三 伏射는 一列로 行하느니라

橫隊正面行進及背面行進

第八十四 行進은 恒常右方으로 嚮導를 取하느니라 或左方으로 取할 時는 特히 此를 指示하느니라 小隊長은 行進目標을 右(左)翼下士에게 指示할 後 左의 號令을 下하느니라

前[앞]으로 進[가]

次에 要하면 左에 號令을 下하느니라

嚮導左로

射擊 橫隊正面行進及背面行進 七十七

橫隊正面行進及背面行進

七十八

小隊는 一齊行進을 起호야 嚮導에 準호되 正面과 直角으로 行進호며 嚮導는 列兵에 關치말고 正規 步長과 速度를 保호고 目標을 向호야 前進호니라

各兵卒은 嚮導方에 整頓호기爲호야 頭를 轉치말고 恒常隣兵에 注意함을 要호니라 然호나 一般整頓은 步長及 速度의 齊一함과 間隔保存에 依호야 保持함이 可호니라

第八十五 行進中 嚮導를 他翼에 取할 時는 嚮導 左(右)로 號令을 下호니라

第八十六 背面行進을 行할 時는 第六十九에 從호야 小隊를 背面으로 向케호고 第八十四에 從호야 行進케호니라

小隊行進中에 背而 行進을 行할 時는 第十八及 第六十九에 準호야 施行호니라 要호면 嚮導 左로 號令을 下호니라

第八十七 行進間 兵卒의 可히 遵守호 規則은 左와 如호니라

嚮導는 何方에 在호든지 恒常 頭를 正히 保持호 事

橫隊正面行進及背面行進

七十九

橫隊正面行進及背面行進 斜行進 八十

整頓翼으로押來할時는此를從호고反對方으로押來할時는此를抵抗함이可할事

整頓線보담進或後호거는又間隔을失할時는漸次回復함이可할事

若違步할時는速히嚮導方隣兵의步에準함이可할事

第八十八 長距離에善良호正面行進은恣히密集部隊運動에基礎가되니라

斜行進

第八十九 號令

斜_{〔〕}밧기여_{〔〕}右_{〔〕}左_{〔〕}로 進_{〔〕}가_{〔〕}

斜行進方向은通常正面과四十五度角을要호니라

斜行進에서各兵卒位置가正할時는其肩이互相平行호니右斜進에在호야는各兵卒右肩이其右兵左肩後方에在호고左斜行進에在호야는此와反호니라

各兵卒은恒常斜行호는方向에整頓함이可호니라

第九十 再次直行에復할時는左의號令을下호

斜行進

八十一

斜行進 駢步襲步及突擊 小隊停止 八十二

느니라

前「압호로」 進「가」

駢步襲步及突擊

第九十一 兵卒이 正面行進 背面行進 及 斜行進
에 熟할 時는 駢步로써 此運動을 行함이 可하니라
第九十二 小隊로 襲步及突擊을 行케 할 時는 第
四十三及第四十四에 從함이 可하니라

小隊停止

第九十三 小隊를 停止할 時는 左의 號令을 下하
느니라

小隊 立

各兵卒은 停止하야 各自嚮導方에 整頓하고 頭를
正面하느니라

第九十四 背面向과 背面停止케 할 時는 第十九
及第六十九에 準하야 施行하느니라 兵卒은 各自嚮
導方에 整頓하느니라

退步

第九十五 退步는 第十에 從하야 施行하느니라
호면 嚮導左로 號令을 下하느니라

方向變換

駢步襲步及突擊 小隊停止 退步 八十三

方向變換

八十四

第九十六 號令

右(左)로方向換, 박약위 進(가)

停止間에在호야는右(左)翼下士는右(左)向호고
各兵卒은半右(左)向호고步度を伸호며捷路를
從호야逐次新整頓線에到호야停止호고其右
(左)隣兵方에整頓호느니라

行進間에在호야는右(左)翼下士는右(左)向호고
行進을繼續호며各兵卒은上의方法에準호야駈
步로써新線에就호야右(左)隣兵에準호야行進
호느니라

第九十七 小角度에方向變換을行호時는可히
變換호方在호翼下士에게新目標을示호고第九
十六에從호야施行호느니其行進間에在호야角
度가微少호時는「目標右(左)로」號令을下호느니
嚮導는新目標을向호야行進호고各兵卒은步度
를伸縮호야新線에就호느니라

側面行進

第九十八 號令

右(左)向 右(左)

前(앞)으로 進(가)

方向變換 側面行進

八十五

側面行進

八十六

右(左)號令에 小隊는 右(左)向하고 次에 偶數兵(奇數兵)은 奇數兵(偶數兵) 右(左)에 出하야 四(二)兵卒이 互相並列하야 輕히 其肘를 接하야 左(右)方에 整頓하느니라

進號令에 小隊는 行進을 起하되 各兵卒은 恒常 右(左)方에 整頓하고 嚮導後方에 在하 兵卒은 正히 其跡에 就하야 行進하고 其他 各兵卒은 列中에서 互相重疊하야 其直前에 在하 兵卒의 頭로써 其前方兵卒의 頭를 掩함과 갓치 行進하느니라

側面行進에서 先頭 四(二)兵卒의 整頓이 不正할

時는 其害가 各列整頓에 及하느니라

小隊로 하야 金伍를 重複하느니 事일시 側面行進을 行케 함을 得하느니라

側面行進間伍의 分解及重複

第九十九 伍를 分解할 時는 左의 號令을 下하느니라

行伍各各解 푸러 進가

各列中重複하 兵卒은 步를 縮하야 自己位置에 入하고 後列은 其前列兵方에 整頓하느니라

第百 伍를 重複할 時는 左의 號令을 下하느니라

側面行進 側面行進間伍의 分解及重複 八十七

伍伍方向變換

八十八

行伍各各併아울러 進가

第九十에 準하야 伍를 重複하느니라

伍伍方向變換

第一百 停止或行進할時는 左의 號令을 下하느니라

行伍各各右左로 進가

先頭伍는 小호 環形으로 步하되 恒常 旋回 軸方에 整頓하면서 右左로 方向을 變하고 行進翼에 在하 兵卒은 正規 步長으로 行進하고 旋回 軸에 在하 兵卒은 最初 數步를 縮하고 各伍는 其 先行 伍變

換處에 到하야 同法으로 右 方向을 變換하느니라

停止及正面向

第二百 號令

小隊 立

右左로 正面

「立號令에 小隊는 停止하야 不動하고 正面號令에 右左方에 向하야 伍를 解하며 各自 嚮導方에 整頓하느니라

小隊를 停止하며 右 正面에 向케할時는 左의 號令을 下하느니라

伍伍方向變換 停止及正面向 八十九

行進間右左向

九十

右(左)向 立

行進間右(左)向

第三百三 號令

右(左)向前(앞으로) 進(가)

各伍는右(左)向하고重複或分解한다니라

小隊가正面行進에複할時는要하면嚮導左로

號令을下한다니라

第四百 駈步로써側面行進을行하는要領은平

步로行함과無異한다니라

側面縱隊로橫隊及橫隊로側面縱隊에移轉

第五百 停止或行進하는側面縱隊를同方向에

橫隊로編成할時는左의號令을下한다니라

右左로羅列(병렬) 進(가)

先頭에在하下士는不動하거나或繼續行進하고

各兵卒은伍를解하여右(左)肩을前에出하고步

度을伸하며或駈步로捷路를經하여逐次新線에

就하여右(左)隣兵에整頓하거나或此에準하여

行進한다니라

第六百六 橫隊로行進하는小隊를同方向에側面

縱隊로移할時는左의號令을下한다니라

側面縱隊로橫隊及「下上」移轉 九十一

二列로 一列及 一列로 二列에 移轉 九十二

右(左)向行伍各各左(右)로 進가

第九十八及第百一에 準하야 施行하느니라

二列로 一列及 一列로 二列에 移轉

第百七 停止或行進際에 二列로 一列에 移할時
는 基準伍(通常中央伍)를 示하고 左의 號令을 下
하느니라

單列로 進가

基準伍는 不動하거늘 或繼續行進하고 其他諸伍
는 左右로 所要間隔을 取하고 後列兵은 前列兵左
에 出하야 各自基準方에 整頓하거늘 或此에 準하

야 行進하느니라

第百八 二列에 復할時는 基準兵을 示하고 左의
號令을 下하느니라

二列로 進가

一列에 移하든 反對順序로써 二列을 編成하느니
라

散步

第百九 號令

散步로

此號令은 野外要務令定規에 從함이 可하느니라 (各

二列로 一列及 下上 移轉 散步 九十三

散步 解散及聚立

九十四

兵卒間隔은第六十三에準호고橫隊의列間距離
는第九에從호事

解散及聚立

第一百十 結銃後或銃을携호되로解散케호時
는左에號令을下호니라

散_{〔호쳐〕} 進_{〔가〕}

結銃호고解散호時는兵卒이結銃에觸호을禁호
니라

第一百十一 小隊를聚立호時는左에號令을下호
니라

聚立

各兵卒은直時結銃호處에聚立호야靜肅히自己
位置에就호니라
銃을携호時는速히小隊長立호處에聚立호야對
面호고番號順序에從호야二列을成호고各自右
方에整頓호니라

散開隊次

第一百十二 散開隊次教練도亦各個教練으로부
터直時小隊教練에移호는事일시몬저若干兵卒
或分隊로써教練을要호는니此教練에當호各

解散及聚立 散開隊次

九十五

散開隊次

九十六

散兵은 小隊一部로 其動作을 習得하고 但 其長官의 指揮만 從호는 아니라 停止及 行進間에서 其隣兵을 顧慮함을 要하니라

第百十三 野外에서 運動하는 各散兵으로 하여금 遮蔽物을 利用케 함은 指揮官의 特히 注意할 비로然하니 何等境遇든지 一二兵卒의 遮蔽를 顧慮하여 全隊 一般運動을 妨碍하는 事가 無케 함을 要하니라

此理由에 基하여 連繫한 散兵運動은 教練의 가장 必要한 事件이니라

散兵線의 伸張及 稠密에 從하여 其運動이 漸漸困難을 故로 最初教練은 其線을 短縮하고 又 疎散케 함을 要하니라

散開

第百十四 散開는 諸種隊形으로 부터 諸方向에 施行하니 其順序를 正히 하고 且 靜肅迅速함을 要하니라

散開할 時에 各散兵의 間隔은 一步乃至 二步가 定規니라

第百十五 停止或 行進하는 小隊全部或 其一部

散開隊次 散開

九十七

散開

九十八

를前方에散開할時는左의號令을下하느니라

散(호치)

中央에在한一伍는眞直히前進하고其他諸伍는
駈步로써左右로斜行進하며後列兵은其前列兵
左側에出하느니라

一翼又某伍를基準하야散開함도有하느니라

散兵은(立跪姿)(伏姿)號令이有하기까지前進
하느니라

第一百十六 其位置에서散開할時는左의號令을
下하느니라

左右(右)左向散(호치)

基準伍는不動하거나或停止하고其他諸兵은側
面向하고駈步로써間隔을得하기까지行進하며
後列兵은其前列兵左側에出하느니라

第一百十七 退却하느小隊를散開할時는몬져正
面으로轉回하고次에散開號令을下하느니라

第一百十八 側面縱隊로停止或行進하느小隊를
開할時는左의號令을下하느니라

右(左)로散(호치)

先頭伍는行進을起하거나或繼續行進하고其他

散開

九十九

散開 散兵線運動

一百

諸伍는分解하여跣步로써右(左)斜行進하며捷
路를經어야新線에就어야散開하느니라

第百十九 定規外에間隔으로散開할時는「散
쳐」前에「幾步」號令을加함이可하느니라

斜方向으로散開할時는假令「一個松을向하여
散쳐」號令을下하느니라

散兵線運動

第百二十 散兵線行進은通常平步의速度를川
하느니라

前進或退却할時는左의號令을下하느니라

前「압호」로「後」뒤로

斜行進할時는左의號令을下하느니라

斜「밧기여」右(左)로

行進間에整頓及定間隔을默守함을要치안코運
動을起함에當하여射擊中이어든各散兵은表人
을倒하고其長을基準하여行進되若銃에裝填
치안하할時는行進中에裝填함이可하고小隊長
及分隊長은其部下中央前敵方에位置함을要하
느니라

急速히行進할時는左의號令을下하느니라

散兵線運動

百一

散兵線運動

百二

前(앞)後(뒤)斜(빗기여)右(右)斜(빗기여)左(左) 駢步로

行進間에는單히駢步號令을下하느니라

行進하는散兵을停止할時는左의號令을下하느니라

立(跪姿(꾸티)(伏姿(엎터여))

各散兵이停止하면恒常敵方으로面하여射擊을取하고小隊長及分隊長은其部下後方適宜處에位置하느니라

第二百一十一 停止或行進하는散兵線의方向을

變換할時는新目標을指하고左와號令을下하느니라

右(左)로方向換(바꾸워)

軸翼分隊長은右(左)二兵을其方向에停止케하고各散兵은駢步로新線에到하여停止하느니라
微小한角度方向變換은號令을川치안코部隊長의誘導로써行하느니라

第二百二十二 躍進을行할時는(散兵線을二部에分할時는部隊를指示後)左의號令을下하느니라

散兵線運動

百三

散兵線運動 散兵線射擊

百四

躍進 前[앞]으로

「躍進」號令에 散兵(指示할 部隊의 散兵)은 裝填을
了하고 表尺을 倒하며 前進準備을 要하니라
「前」으로 號令에 散兵은 伏姿、跪姿에 在할 時는 速
히 起立하여 駢步로써 伏姿(跪姿)로 立號令이 有하
기까지 躍進하니라 其一躍進距離는 通常百米突
을 超함이 無하니라

散兵線射擊

第二百二十三 散兵線射擊은 恒常停止하여야 行하
느니라

第二百二十四 各兵은 若干 其長의 指揮外 隣
兵의 景況에 應하여 散兵線上에서 射擊하기 最良
한 位置를 撰定하기에 熟達케 함은 數多演習을 要
하니 但一地에서 左右로 運動함은 아모조록 避
함이 마하니라

如何할 時는 지 命令을 照尺은 가장 精密히 裝置함
을 要하니라

第二百二十五 號令의 言詞는 아모조록 短簡히 하
되 最初에 方向目標요次に 照尺其次에 射擊種類
를 指定하니 目標의 名稱은 各兵率로 하여금 誤

散兵線射擊

百五

散兵線射擊

百六

隊長은 隊員가 無케 하고 散兵의 部隊을 指示을 하되
는 散兵隊이 目標을 도를 指示함이 可함이 假令砲
隊在 前이라 圖차 明白 右便砲車라 圖함과 如하느니

라

連隔을 分隊長은 要하면 其號令을 復令함이 可하
니라

一齊射擊號令一例

前面山上에 在 잇는 右便砲車

八百九百米突

射

擊

各個射擊號令一例

前面에 伏 「업틴」 散兵

五百米突

緩(連續)(急)射擊

第百二十六 射擊을 中止케 할時는 「射擊기
러」號令을 下하거니 或聲音이 達치 못함시는 小
笛을 用하느니 各散兵은 銃에 裝填하고 姿勢를 變
치말고 號令을 待하느니라

第百二十七 射擊效力은 正히 銃을 使用하느니라

散兵線射擊

百七

散兵線射擊

百八

에射距離射擊界中에在호目標位置其大小、厚薄、疎密及天候에關호니라

某時間에서一目標에射擊威力을集호이漸多호기이隨호야敵兵의志氣를沮喪호이益大호니라
第二百二十八 射擊指揮는勉호야長時間確實히持續함이可호고銃器眞價를得호은持揮官手裡에掌握함에在호고又射擊指揮를容易케호는디
는아모조록小隊를聚結호되此鄰小隊外難隔호야一區域에占領함을要호는니라

距離를確實히判定호만호時間及機會가無호時

는其近傍에서射擊호는砲兵或步兵이在호면此
에諮問호고又地圖를考査호며或目標으로써距離測定함을要호는니라

屢次히目標을變換호時는射擊을錯亂호는故로
아모조록此를避함이可호니라

第二百二十九 射擊緩急은戰鬪目的、目標景況及彈藥現數에從호야規定함이可호고又天候에依호야射擊速度를規定함이屢屢히有호니라
中距離에在호低目標에對호야는緩徐호射擊을行호고急速호射擊은近距離에서少時間有利호

散兵線射擊

百九

散兵線射擊

百十

目標에對할時에만施行되砲兵에對하야는千
米突距離에서 또此射擊을行함이有하니라
一齊射擊은軍隊를確實히掌握하고彈着點을識
認하야照尺撰定을容易케하는利가有하니然하
는戰團喧噪에當하야는雖密集小隊라도오히려
聲音을達키難하니散開한小隊에在하야는一層
더욱困難한故로一齊射擊은戰團의間에當하
敵의射擊을被치안하고小時間에原形을復원시키다
散兵線射擊은各個射擊을行함이當이라散兵大
隊力을得함은此射擊과如함이無하니此는散兵

수가精密히照準하며好機會를待하야發射함을
得는緣故니라

第百十一 射擊軍紀는大體로命令을確實히
施行하고總의命令에戰團의命令에對한規則嚴
守함을訓함이니射擊軍紀는其總左의命令을要
함이니라一敵火下에在하야總射치 못할時는自
若히不動을事하고射擊方法에地形을利用하며命
中力을增大케하고恒當其指揮官及敵兵을注
視할事、目標가消滅을든지或指揮官의小節을
聞는든지又其他方法으로써射擊停止命令이有

散兵線射擊

百十一

散兵線射擊

百十二

할時는速히射擊을停止할事等이니라
善히射擊軍紀를養成할時는戰團中假令指揮官
의射擊指揮가行치못할境遇라도火線上에서兵
卒의勇敢判斷에依하야他兵에게標準을與하야
依然히射擊効力を維持함을得하는故로獨斷專
行을養成하야各兵率로하야급射擊指揮가行치
못할戰況이라도可爲할處置에慣熟케함을要하
느니라

第百三十一 射擊効力の觀測은가장緊要한者
이니此를爲하야望遠鏡을川할時는始終의彈着

을熟視하며敵의動作을監視하야照尺及照準點
의撰定을適當히하고射擊威力을增大케하는等
事를爲하야精密修正함이有利하니若火線으로
直接히觀測치못할時는側方에特別히觀測者를
配置함이可하니라

聚立及併聚立

第百三十二 散兵을聚立(併聚立)할時는刀를
舉하야左의號令을下하느니라

聚立(併)아울너聚立

散兵은駟步로써小隊長所在處에聚立하야番號

散兵線射擊

聚立及併聚立

百十三

聚立及併聚立中隊教練總則 百十四

順序(順序에不拘하고)로써橫隊를編成하고小隊長이停止할時에停止하고行進할거든續하야行進하느니라

第三章 中隊教練

總則

第三百三十三 中隊教練의主旨은中隊로써恒常中隊長手裡에在하야其號令及命令에注意할지니假令敎習지 못할運動이라도其意圖와如히實行을得케하느니라

第三百三十四 中隊長은敎練間適當한處에占位

함이可하느니라

小隊長은要하면其小隊의可爲할動作을小聲論導함도無妨하느니라

鼓手喇叭手는第一小隊와갓쳐運動하되恒常定距離를保持하고戰鬪線에在할時에預備隊에付하야運動하느니라

密集隊次

中隊橫隊編成及區分(第一圖)

第三百三十五 中隊는兵卒身幹順序에從하야二列로編成하고此를四小隊로分하느니伍數가四

中隊教練總則 密集隊次

百十五

密集隊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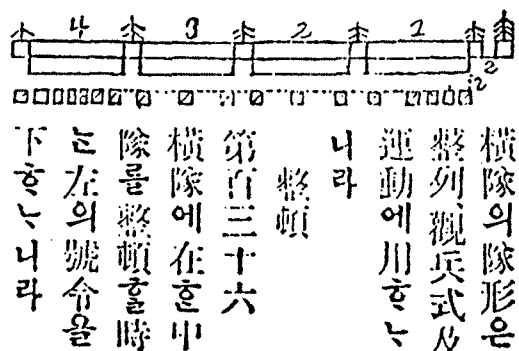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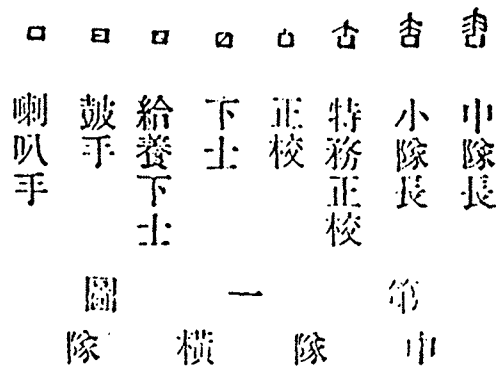
百十六

等分이 못될時는第四小隊에一伍를減호고次에
第一小隊에一伍를減호는니라

上等兵은大概身幹順序에從호야各小隊에分配
호는니라

小隊는中隊中에右翼으로부터番號를附호는니
라

將校下士를各小隊에配賦호은中隊長의任務니
若將校에缺員이有호時는持務正校見習尉官或
故參下士로써此를代호는니라



密集中隊整頓

百十七

整頓 背面向

百十八

嚮導三步(四步五步等)前[앞]으로

各小隊長及翼准士官은指示할步數만前進하고
其他는第六十五及第六十六에准하니各小隊
長은몬저其小隊를整頓하고次에他小隊中自己
의近接할伍를正하니라

背面向

第三百三十七 橫隊의背面向은第六十九에准하여
施行하니라

第三百三十八 押伍列을後方에移할時는第七十
에准하여施行하니中間에在할各小隊長은押

伍를通過케하기爲하여二步前進하고各押伍及
鼓手喇叭手는其小隊의最近翼으로通過하니
라

銃의操法

第三百三十九 銃의操法은第七十一에准하여施
行하니라

橫隊運動

第四百十 正面行進、背面行進、斜行進及駢步
는第八十四乃至第九十一에准하고停止及退步
는第九十三乃至第九十五에准하여施行하니

背面向 銃의操法 橫隊運動

百十九

橫隊運動 側面縱隊

百二十

라

第四百十一 方向變換은 第九十六及 第九十七에 准하야 施行하느니 其 行進間에 在하야는 中隊 右翼에 在하 尉官(准士官)은 踏步하고 兵卒은 跣步로써 逐次新線에 就하야 踏步하고 中隊長은 方向變換이 終할 時에 前進號令을 下하느니라

第四百十二 行進間 障礙物을 遭遇하 小隊는 其 長의 號令으로써 第四百六及 第四百五에 從하야 側面縱隊로 行進하고 다시 開進함이 可하느니라

側面縱隊

第四百十三 側面縱隊의 行進及 此에 屬하 諸運動은 第九十八乃至 第四百六에 從하야 施行하되 但 行進間 側面縱隊로부터 同 方向에 橫隊를 編成할 時는 第四百十一에 准하야 施行하느니라

側面縱隊에 在하야 小隊前頭에 在하 翼下士는 前列前에 出하야 嚮導가 되고 小隊長은 其 外側에 接하야 位置하고 翼准士官은 右側面向에 在하야는 後尾伍와 左側面向에 在하야는 先頭伍와 齊頭하야 押伍列에 位置하고 中隊長은 先頭小隊長 外側二步處에 位置하느니라

側面縱隊

百廿一

側面縱隊 中隊縱隊編成

百廿二

第四百十四 側面縱隊는 行軍及運動에 用하는 隊形이니라

行軍間 平步行進或「步調止」號令에 行進하는 部隊는 其勞若를 減하기爲하야 「換刃銃」號令을 下하야 銃을 他肩에 移케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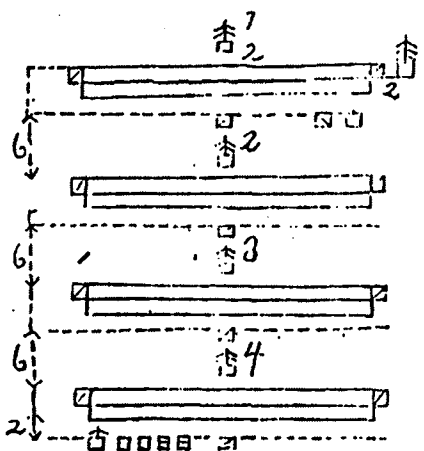
行軍中 道路廣狹에 從하야 四列側面을 三列側面과 二列側面을 一列側面에 移하느니라

中隊縱隊編成(第二圖)

第四百十五 中隊縱隊는 四小隊가 互相六步距離을 守하야 前後에 重疊함이 定規나 時宜에 因하

야 六步距離을 伸縮하느니 定規外距離로 重疊할 時는 中隊縱隊前에 幾步로 號令을 加하느니라

圖 二 第 中
隊 縱



中隊縱隊編成

百廿三

橫隊로中隊縱隊에移轉

百廿四

翼小隊를先頭을삼고縱隊를編成함을得호니
然할時는此에近호小隊로부터順次重疊호니
라

中隊縱隊의隊形은運動及聚立又觀兵式에用호
니니라

橫隊로中隊縱隊에移轉

第百四十六 號令

右(左)로中隊縱隊 進가

停止間에在호야는翼小隊는不動호고小隊長及
翼下士는定位에就호고其他小隊는伍를重複호

는事일시兵卒이各自히右(左)向호야步度を伸
호고捷路를輕호야翼小隊로부터六步十二步十
八步距離를隔호야縱隊定位에至호야停止正面
向호고右方으로整頓호니整頓翼에在호下士
는先頭에在호下士에重疊호야距離를取호야整
頓호는責任이有호고小隊長은速히自己定位에
就호야小隊運動을監視호니니라

行進間에在호야는翼小隊는續行호고其他小隊
는各自히適時에右(左)斜行進호야駈步로써翼
小隊後方に重疊호고右方을準호야行進호니

橫隊로中隊縱隊에移轉

百廿五

半中縱隊編成

百廿六

라

第四百十七 中央小隊를基準삼아縱隊를編成할時는左의號令을下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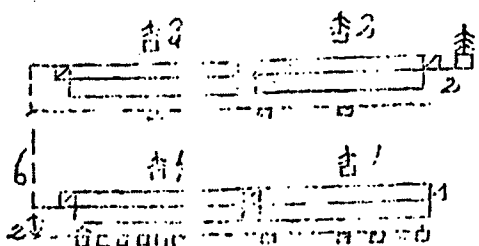
第二(第三)小隊基準中隊縱隊 進가

基準小隊는不動을거느或續行을고其他近을小隊로부터逐次後方에重疊하느니라

半中縱隊編成(第二圖)

第四百十八 半中縱隊는四小隊를二로分하야互相六步距離를存하야重疊하느니라中隊縱隊運動과畧同하니라

第三圖 半中縱隊編成



定規配置에在하야는第二第三小隊를先頭삼고半中縱隊를編成하느니라然할時는第一第四小隊는順序重疊하느니라半中縱隊의隊形은密集隊次聚立運動及四列射擊

半中縱隊編成

百廿七

橫隊로半中縱隊에移轉

百廿八

에川호는니라

橫隊로半中縱隊에移轉

第百四十九 號令

半中縱隊 進「가」

中央兩小隊는不動호거는或續行호고其他小隊
은第百四十六의准호야後方에重複호는니라
第百五十 號令兩小隊를先頭삼고半中縱隊를編
成호호는左의號令을下호는니라

右「左」로半中縱隊 進「가」

中隊縱隊와半中縱隊로橫隊에移轉

第百五十一 號令

右「左」로中隊橫隊 進「가」

先頭小隊는不動호거는或續行호고各官은定位
에就호며後方小隊는右「左」斜行進호야橫隊線
에進호야先頭된小隊方에整頓호는니라

第百五十二 中央小隊가先頭되야橫隊에移轉
호호는左의號令을下호는니라

中隊橫隊 進「가」

第百五十三 新方向으로開進호야橫隊를編成
호호는미리方向變換호後에此를行호거는或預

中隊縱隊와半中隊縱로橫隊에移轉 百廿九

中隊縱隊와 半中縱隊로 橫隊에 移轉 百三十

令前에 新方向을 指示하느니 其例는 左와 如하느니라

某屋 아모 집을 向하야 中隊 橫隊 進가

先頭小隊는 各 指示하 方向에 就하코 後方小隊는 開進하면서 新方向에 就하느니라

第百五十四 射擊하기 爲하야 開進케 할 時는 豫令前에 射擊姿勢를 指示하느니 其例는 左와 如하느니라

立서서 跪부러 擬 射양 放 中隊 橫隊 進가

先頭小隊는 不動하거느니 或 停止하야 射擊姿勢를 取하코 後方小隊는 駈步로 開進하야 同一호 射擊姿勢를 取하느니라

中隊縱隊로 半中縱隊와 半中縱隊로 中隊縱隊에 移轉

第百五十五 號令

右(左)로 半中縱隊 進가

中隊縱隊에 在호 先頭兩小隊는 不動하거느니 或 續行하코 後方兩小隊는 第百四十六에 准하야 各其前方小隊右(左)新線에 就하야 右方小隊에 整頓

中隊縱隊로 半中縱隊와 下上移轉 百卅一

上全

百卅二

호는니다시中隊縱隊에復할時는左의號令을下
호는니라

右(左)로中隊縱隊 進가

半中縱隊에在호翼兩小隊는不動호거나或續行
호고右(左)兩小隊는第百四十六에准호야舊位
에復호는니라

側面縱隊로中隊縱隊及半中縱隊와中隊縱隊
及半中縱隊로側面縱隊에移轉

第百五十六 號令

中隊縱隊 進가

或은

右(左)로半中縱隊 進가

先頭小隊嚮導는不動호거나或續行호고各小隊
는第百五에準호야前列方에開進호고後方(三兩)
小隊는距離를閉縮호는니半中縱隊를編成할時
는後方兩小隊는第百五十五에準호는니라
第百五十七 側面縱隊로每小隊가逐次開進호
야某方向에中隊縱隊及半中縱隊를編成함을得
호는니如此호境遇에는미리先頭小隊가停止호
이可호位置를指示호고左의號令을下호는니라

側面縱隊中隊縱隊半中縱隊移轉下上 百卅三

側面縱隊中隊縱隊半中縱隊移轉「下上」百卅四

中隊縱隊聚立

或은

半中縱隊聚立

「聚立」號令에各小隊長은逐次로號令을下하야
中隊縱隊及半中縱隊를編成하느니라
第百五十八 다시同方向에側面縱隊를編成할
時는左의號令을下하느니라

右(左)向行伍各各左(右)로 進「가」

各小隊는第百六에準하야施行하되後方各小隊
는前方小隊에繼續하야前進하느니라

中隊縱隊及半中縱隊에在할時에中隊長은各小
隊長의계命令하야某方向으로每小隊를逐次로
側面縱隊에移케함을得하느니라

中隊縱隊及半中縱隊의運動

第百五十九 中隊縱隊及半中縱隊의正面行進、
背面行進、斜行進及駢步는第八十四乃至第九十
一에準하야停止及退步는第九十二乃至第九十
五에準하야施行하되後方各小隊의嚮導는其前
方小隊의足跡을踏하며恒常六步距離를保持하
는責任이有하느니라

中隊縱隊及半中縱隊의運動

百卅五

中隊縱隊及半中縱隊의運動 百卅六

中隊縱隊及半中縱隊가背面向하야在할時에押
伍後로號令에小隊長은其小隊右翼을廻하야中
央前에出하고押伍는最近翼을廻하야舊位에對
하야位置하느니라

第百六十 號令

右(左)로方向換박컨 進가

停止間에在하야는先頭小隊는第九十六에從하
야方向變換하고其他小隊는兵卒이各各自己의
可히占領할位置에至하야右(左)方에整頓하느
니라

行進間에在하야는先頭小隊는第九十六에從하
야方向變換하고後方小隊는先頭小隊의同處에
到하야號令업시逐次로方向을變換하느니라
第百六十一 方向變換할角度가小할時는第九
十七에準하야施行하되後方小隊는前方小隊運
動에從하느니라

第百六十二 部隊側面行進을行할時는第九十
八에準하야施行하되前面方에在할小隊嚮導는
目標들向하야行進하고其他嚮導는此에整頓하
야恒常定距離를保持하고其他는第百四十三에

中隊縱隊及半中隊縱의運動 百卅七

中隊縱隊及半中縱隊의 運動

百卅八

準하느니라

第百六十三 側面向에在호中隊縱隊의 方向을
變換할時는 左의 號令을 下하느니라

左(右)로 方向換박켜 進가

行進間에在호야는 旋廻軸에在호小隊는 行伍各
各右(左)로 方向을 變換호야 新方向에 進호고 他
小隊는 駈步로써 遂次其齊頭에到호야 旋廻軸에
在호小隊에準호야 行進하느니라

停止間에在호야는 旋廻軸에在호小隊는 其深만
新方向에 進호야 停止호고 他小隊는 遂次其齊頭에

到호야 右(左)方에 整頓하느니라

小角度方向變換은 미리 口票를 指示호後 施行호
되其角度가 微小할時는 第百六十一에 準호야 施
行하느니라

第百六十四 中隊縱隊로호야 行進間 右(左)
向을 할時는 第百三에 準호야 施行하느니라

方陣

第百六十五 停止或行進호는 中隊縱隊가 騎兵
襲擊에 對호야 方陣을 作할時는 左의 號令을 下하
느니라

中隊縱隊及半中縱隊의 運動 方陣 百卅九

方陣

百四十

騎兵防禦「막아」方陣 進「가」

豫令에 速히 先頭小隊長은 其小隊後方에 位置하고 後尾小隊押伍列은 其小隊前方에 至하며 進號令에 先頭小隊는 不動하고 或停止하고 後尾小隊는 背面向하고 中央兩小隊는 半部式左右로 方向을 變換하고 其空間을 塞하고 各兵卒은 銃에 創을 著하고야 立射姿勢을 取하고 中隊長及翼下士는 方陣中에 入하느니라

方陣을 編成할 時는 規則에 拘泥치 말고 但 各面으로 하고야 急速히 射擊准備을 行함이 緊要하느니라

第百六十六 中隊縱隊에 復할 時는 左의 號令을 下하느니라

中隊縱隊 進「가」

中隊는 最初隊形에 復하느니라

射擊

第百六十七 射擊은 橫隊、中隊縱隊、半中縱隊及方陣에서 施行하느니라

射擊의 種類及方法은 第七十五乃至第八十三에 准하느니라

橫隊射擊

射擊

百四十一

射擊 中隊縱隊及半中縱隊射擊 百四十二

第一百六十八 射擊은 中隊或小隊마다 行하느니라
 小隊마다 行할時는 小隊長은 其小隊後方에 至하
 야 號令을 下하되 몬저 其小隊의 番號를 示함이 可
 하니라

中隊縱隊及半中縱隊射擊

第一百六十九 停止間에 在하야는 左의 號令을 下
 하느니라

四列射擊 銃

四列射擊 號令에 前方兩小隊長及先頭小隊押
 伍列은 速히 翼에 移고 第二線小隊는 駈步로써

列間距離을 閉縮하며 各後列은 其距離을 閉하고
 號令에 先頭小隊는 跪卧와 第二線小隊는 立
 射姿勢를 取하고 後方兩小隊는 其位置에서 不動
 하느니라

半中縱隊에 在하야는 先頭兩小隊及後方兩小隊
 는 中隊縱隊의 前方兩小隊動作에 准하느니라

射擊止 號令에 第八十二에 准하고 第二線小隊
 後方兩小隊는 舊位에 復하느니라

第一百七十一 行進間에 在하야는 左의 號令을 下하
 느니라

中隊縱隊及半中縱隊射擊

百四十三

中隊縱隊及半中縱隊射擊

百四十四

四列射擊廻도라〔右便〕立

「立」號令에 中隊는 停止 右轉廻호야 四列射擊姿
勢를 取호니 但各後列은 距離를 閉호後 停止호
느니라

第七十一 中隊縱隊에 在호야 後方兩小隊을
一翼에 開進케 할時는 左의 號令을 下호느니라

四列射擊右〔左〕로 半中縱隊 進가

停止間에 在호야는 「半中縱隊」號令에 後方兩小
隊는 前方兩小隊에 準호야 動作호야 「進」號令에
右〔左〕翼에 開進호야 前方兩小隊의 動作과 同一

히 行호느니 行進間에는 停止호後에 行호느니라

方陣射擊

第七十二 方陣射擊에 서는 左의 號令을 下호
느니라

前〔後〕〔右側〕〔左側〕面一齊射擊〔各個射擊〕

次에 中隊長號令과 小隊長에 게 命令호는 디 關치
안코 左의 號令을 下호느니라

馬胸〔말가슴〕

三百米突

射

中隊縱隊及半中縱隊射擊

百四十五

中隊縱隊及中半縱隊射擊 突擊 百四十六

擊

銃創突擊

第七十三 密集하야在호中隊가銃創突擊을行호時는第九十三에準호야襲步로突擊に移호되鼓手及喇叭手는侵襲譜를鼓奏호고適當호距離에達호면左의號令을下호니라

突擊

此號令에各人은吶喊호며敵을向호야突進호고鼓手及喇叭手는間斷시엄鼓奏호니라演習에在호야는立號令外지吶喊突進을繼續호니라

最前線에在호各小隊는銃을擬放호야射擊을準備호고敵을擊退호되야모조속速히號令으로써追擊射擊을開始호이可호니後方小隊는地形의許給되로開進호야追擊射擊에加호을要호니라此에加치못호小隊는立銃호이可호니라

第七十四 突擊호後에退却을要호時는密集部隊及散兵은同時에退却호되其密集部隊는隊伍를嚴肅호을要호고또戰況에妨害가無호면速히正面으로轉迴호거는或新隊形을編成호이可호니라

突擊

散開隊次 散開及散兵線運動 百四十八

散開隊次

散開及散兵線運動

第百七十五 散開法及散兵線運動은 第百十四乃至 第百二十二에 準호야 施行호니니라

散開는 中隊縱隊、半中縱隊、側面縱隊及橫隊로 行호니니라

〔散〕號令에 別命令이 無호時는 中隊縱隊、半中縱隊及側面縱隊에 在호야는 先頭에 在호일 小隊는 散開호고 橫隊에 在호야는 米리 散開호 小隊를 指示호니니라

第百七十六 中隊殘餘는 援隊가 되여 散兵線으로 부터 必要호距離에 停止호고 特務止校와 正校와 給養下士及喇叭手一名은 中隊長을 隨從호고 其他鼓手喇叭手는 援隊에 屬호니니라

射擊

第百七十七 射擊은 第百二十四乃至 第百三十一에 準호야 施行호니니라

散兵線增加

第百七十八 散兵線의 增加는 或散兵線을 延伸호며 或伍間에 增加호니니 此을 爲호야 左의 號令

散開及散兵線運動 散兵線增加 百四十九

散兵線增加

百五十

을下令하니라

第何小隊右(左)로延伸增加

第何小隊伍間增加

小隊는 各小隊長의 號令으로 散開하니 延伸
增加에 在함이 散兵線의 翼으로 부터 約十步間
隔을 取하고 伍間增加에 在함이 散兵間隔內에
入할시 其位置에 至하고 伍間增加에 在함이
各小隊의 混淆를 避치 못하고 故로 中隊는 速히
新編成할 事에 慣熟함을 要하니 即 各小隊長은
其部下를 區分하며 各分隊長도 亦 其部下를 區分

함이 可하니라

前進는 增加兵이 敵의 射擊을 受할 時는 駐步로
써 一進一止함이 可하니라

援隊

第百七十九 援隊의 任務는 戰鬪正面을 擴張하
여 火線을 援助하고 或 敵襲의 虞가 有할 側面을 掩
護하는 데 在함故로 援隊는 狀況에 從함이 適宜한
地를 占位함이 可하니라

第百八十 援隊外 散兵線距離는 時機에 依함이
伸縮함이 是요 規則을 一定치 못하니 其 主는 必한

散兵線增加 援隊

百五十一

援隊

百五十二

時機를失치 말고 火線을 援助함에 在호니 地形을
利用치무호演習에 在호야는 最初散開에 約百二
十米突을 通則을 습호니라

第百八十一 援隊는 橫隊或縱隊로 編成호고 又
梯隊로 區分호야 散兵線運動에 從호야 通常步調
언시 運動호는 然호나 敵의 有効射擊下에 在호야
는 步調를 取호고 아모 조속隊形變換을 避호고
又 停止間은 跪姿或伏姿를 取호야 敵火効力을 減
殺함을 要호는니라

二 小隊가 相合할 時는 故參小隊長이 此를 指揮호

호니라

聚立及併聚立

第百八十二 中隊長이 下호「聚立號令에 各小
隊는 通常中隊縱隊로 聚立호는니」中隊長은 速히
基準小隊를 示호고 各小隊는 到着할 時로 逐次其
後方에 聚立호는니라

散兵線의 併聚立은 第百三十二에 準호야 施行호
는니 然호면 小隊마다 行케호는니라

第四章 大隊教練

總則

聚立及併聚立 大隊教練 總則 百五十三

大隊教練總則

百五十四

第百八十三 四個中隊縱隊로써編成한大隊는 戰爭要求에應을單一한制式이라此制式은諸般 時機에서大隊長의號令或命令으로써整正確實 히統率하느니라

第百八十四 大隊長은號令及命令을下하거나 或豫令만下하느니라命令、勅令을共下함은各中隊 가同時에同一한動作을行할時에만限하고其他 境遇에在하야는大隊長은다만豫令或命令을下 하느니라總을한各中隊長이此에適當한號令을 下하느니라

第百八十五 練兵場에서基本隊形의運動及一 의隊形으로他隊形에移하느運動은通常步調를 取하느니라

戰鬪하기爲하야展開하느諸中隊運動은大隊長 의規定에從하야步調를取하거나或步調를取치 안이하고嗣後諸運動은步調없이施行하느니라若 敵의有効射擊下에在하야는步調取함을要하느 니라

大隊基本隊形

第百八十六 大隊는地形과目的에應하야中隊

大隊教練總則 大隊基本隊形 百五十五

大隊基本隊形

百五十六

縱隊를 橫接或重疊하느니라
 第百八十七 大隊의 基本隊形
 은 左와 如하느니라

重複縱隊(第四圖)

大隊縱隊(第五圖)

縱隊橫隊(第六圖)

圖에 示하 者는 定規에 配置라 三
 隊形에서 總히 中隊는 順序를 拘
 처 안코 配置하느니라

총 大隊長

총 中隊長

총 副官

총 小隊長

上 大隊旗

押 伍列

。大隊 鼓手長

。鼓手 喇叭手

第 四 圖
重 複 縱 隊 圖

大隊基本隊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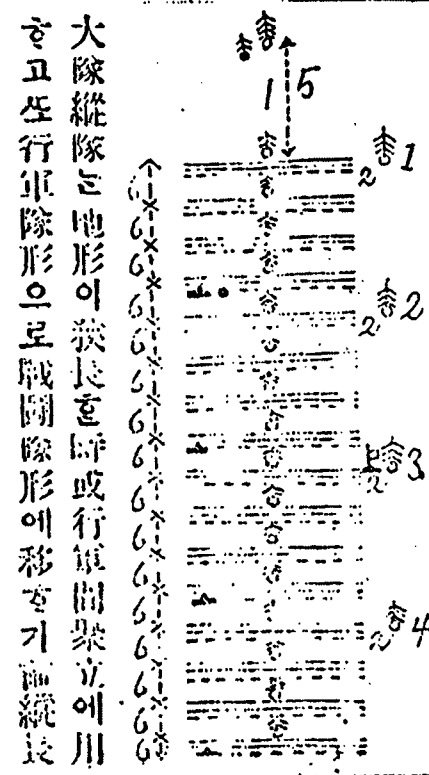
百五十七

大隊基本隊形

百五十八

第五圖

大隊縱隊



大隊縱隊는地形이狹長을時或行軍間聚立에用
하고生行軍隊形으로戰團隊形に移하기而縱長

短縮을不要時運動

及觀兵式行進에用호니

니라

中隊長이

徒步할時

는第三圖

外가치位

置호니

라

圖六第
隊橫隊縱



大隊基本隊形

百五十九

大隊基本隊形

百六十

縱隊橫隊는 觀兵式及運動其他地形과 又展開種
類에 依하야 縱長보 當正面廣을 要할時에 用하며
又別命令이 無하면 戰鬪後 聚立隊形에 用하느니
라

基本隊形은 要하면 各中隊間의 間隔距離를 伸縮
하느니라

第百八十八 大隊長과 中隊長及副官의 位置는
第四圖乃至第六圖에 示함과 如하느니라 然하느니라 大隊
長은 狀況에 應하야 位置를 指定함이 미하고 副官
은 恒常大隊長을 隨從하느니라 戰鬪隊形에 移할時

는 要하면 喇叭手一名이 大隊長에 附하고 鼓手
長은 預備隊에 移하느니라

第百八十九 大隊旗는 第四圖乃至第六圖에 示
함과 如하되 戰鬪間은 預備中隊에 立하느니라 此中
隊가 戰鬪線에 至할時는 共히 火線에 進入하느니
라

大隊旗는 大隊長의 撰拔하 下士一名으로 此를 保
持케 하느니라

整頓

第百九十 重複縱隊及縱隊橫隊에 在할時는 左

大隊基本隊形 整頓

百六十一

整頓

百六十二

의號令을下하느니라

旗手嚮導線에

中「가운데」로 準「나라니」

直「바루」

〔線〕號令에旗手及先頭小隊翼下士는三步前進하야旗方에整頓하느니라大隊長或副官은其位置를正하고〔準〕號令에各中隊는大隊中央에整頓하느니라後方에在할諸小隊는前方小隊로부터距離를取하야整頓하느니라
大隊縱隊에在할時는左의號令을下하느니라

嚮導三步(四步五步等)右(左)로

右(左)로 準「나라니」

〔右(左)로〕號令에各小隊右(左)翼下士는指示할步數를右(左)方에進하느니라大隊長或副官은其位置를正하고〔準〕號令에各小隊는右(左)翼下士에整頓하느니라

其他整頓은第百三十六에準하느니라

銃의操法

第百九十一 銃의操法을演習함은大隊가齊히施行함으로制限하느니라

頓整 銃의操法

百六十三

一의隊形으로他隊形に移轉 百六十四

一の隊形으로他隊形に移轉

第百九十二 一の隊形으로他隊形に移할時는各中隊는順序를正히하고捷路를取야運動하느니라

第百九十三 六步外間隔及距離를存할隊形に移할時는號令中에基本中隊(要할時)及步數를示하느니假令重複縱隊에在할時에第何中隊左로二十步에縱隊橫隊라唱호과如하느니라
重複縱隊에在하야는間隔距離를共히同歩數로開閉하느니라

廣호間隔을取할隊形に移할時는停止間에서行함이良하느니라

重複縱隊로他隊形に移轉

第百九十四 大隊縱隊에移할時는一側에在할二個中隊는不動하거나或續行하고他側에在할二個中隊는其後方に重疊하느니大隊長은左의號令을下하느니라

右(左)로大隊縱隊

第百九十五 縱隊橫隊에移할時는先頭二個中隊는不動하거나或續行하고後方二個中隊는右

重複縱隊로他隊形に移轉 百六十五

大隊縱隊로他隊形에移轉

百六十六

或左의一翼或右左兩翼에併列하느니大隊長은
左의號令을下하느니라

右(左)로縱隊橫隊

大隊縱隊로他隊形에移轉

第百九十六 重複縱隊에移할時는先頭二個中
隊는不動하거늘或續行하고後方二個中隊는先
頭二個中隊左或右에併列하느니大隊長은左의
號令을下하느니라

右(左)로重複縱隊

第百九十七 縱隊橫隊에移할時는先頭中隊는

不動하거늘或續行하고其他中隊는其一側에併
列하느니大隊長은左의號令을下하느니라

右(左)로縱隊橫隊

同時에後方中隊를先頭中隊左右에併列함을得
하느니大隊長은左의號令을下하느니라

右(左)로縱隊橫隊第何中隊左右로

縱隊橫隊로他隊形에移轉

第百九十八 重複縱隊에移할時는指示를併立
二個中隊는不動하거늘或續行하고其他中隊는
背後에重疊하느니大隊長은左의號令을下하느

縱隊橫隊로他隊形에移轉

百六十七

行軍隊形으로基本隊形에移轉 百六十八

니라

中「가우디」(右)左로重複縱隊

第百九十九 大隊縱隊에移轉時는指示호中隊는不動호거나或續行호고其他中隊는第百四十호에準호야重疊호되第三의中隊를先頭삼을時는左翼中隊를第二의中隊라호호니大隊長은左의號令을下호호니라

右(左로(第何中隊에)大隊縱隊

行軍隊形으로基本隊形에移轉

第百 號令

右(左로重複縱隊

大隊縱隊

右(左로縱隊橫隊

先頭中隊는縱隊를編成호야停止호고其他中隊는行進間에縱隊를編成호야其位置에停止호호니라

미리先頭中隊에目標를指示호時는合意호方向에基本隊形을編成호호니라

同一의隊形으로間隔距離閉

第百一 基本隊形에서間隔과距離를閉開호

同一의隊形으로間隔距離閉 百六十九

基本隊形の運動

百七十

時に指示する中隊は不動を거나、或續行を거나、大隊長은左의號令을下하거나

第何中隊에幾步廣〔넉넉〕〔狹좁히〕

基本隊形の運動

第二百二 正面行進、背面行進、斜行進及停止
는第百五十九에準하야施行하고縱隊橫隊와重
複縱隊의間隔은時宜에因하야一時此를失함도
無妨하나라

重複縱隊及縱隊橫隊에在하야는旗方에整頓하
고大隊縱隊에在하야는通常右方에整頓하거나

라

部隊側面行進은第百六十二에準하야施行하
나라

第二百三 方向을變換할時는左의號令을下하
거나

右〔左〕로方向換박키

縱隊橫隊에在하야는基準中隊는停止或行進間
에方向變換을行하거나行進間에在하야는約中
隊深더로前進하야停止하고其他中隊는逐次方
向을變換하야其位置에停止하거나

基本隊形の運動

百七十一

基本隊形の運動

百七十二

重複縱隊에在하야는右(左方先頭中隊는行進間에方向變換을行하느니(停止間에在하야는몬저行進을起하야方向變換을行하事)約縱隊深되로前進하야停止하고其他中隊는逐次로方向을變換하야其位置에停止하느니라

大隊縱隊에在하야는行進間에서各中隊가逐次方向을變換하느니라

小角度方向變換은미리目標을示하야施行하느니其角度가微小할時는第百六十一에準하야施行하느니라

戰鬪展開

第二百四 大隊中諸中隊를戰鬪線에展開케하느니方法이數多하느니許多境遇에必要를從하야中隊를逐次戰鬪線에入케하고其殘餘는合하야豫備隊를삼아大隊長指揮下에在케하느니라然하느니時機에依하야最初부터四個中隊를一時戰鬪線에就케하느니事도有하느니라

瓦展開는前進或退却中에서는行進方向에서行할이가장簡便하고其線上에서展開할은停止間에만限하느니라

戰鬪展開

百七十三

戰鬪展開

百七十四

戰鬪隊形에 移케 할 時는 大隊長은 命令으로써 基準中隊를 定호고 同時에 展開함이 可호 中隊의 位置及 中隊間의 間隔을 示호느니 此 中隊는 捷路를 經호야 展開호느니라

通常最初 展開에 在호야는 正面보다 縱長을 大케 호야 漸次 戰鬪力 增加함을 顧慮함이 可호니 此를 爲호야 小호야도 一個 中隊의 豫備隊를 存호미 可호니라

展開호 大隊 運動은 共同 目標에 代호야 規定호느니 其 目標가 未定호 時는 基準 中隊에 據호고 且 行

進 方向을 轉移함을 要호 時는 其 目標을 示함이 可호니라

方向 變換을 行호져 호 時는 新 正面을 指示호느니 此 指示에 從호야 各 中隊는 其 方向 變換을 行호고 且 各 中隊에 互相 配置를 變호 時는 大隊長은 命令으로써 規定호느니라

大隊를 聚立호 時는 通常 行進에는 行進 方向으로 停止에는 其 線上에 서 行호되 各 中隊는 捷路를 經호야 基準 中隊方에 聚立호느니 要호면 隊形을 指定함이 可호니라

戰鬪展開

百七十五

戰鬪展開 聯隊教練總則 百七十六

一定할時機에一定할戰鬪展開法을固定함을禁하느니라

中隊戰鬪은全히中隊長手裡에存하느니라 第百七十五乃至第百八十二에揭할原則을從함이可하느니라

第五章 聯隊教練

總則

第百五 大隊教練에揭할運動은大隊가孤立할時뿐아니라他大隊와連合할時에도整正히實施함이可하고聯隊教練에서는整正하고且行軍

隊形으로聚立及戰鬪隊形に移하며或此에反할隊形變換을容易히行하고且大部隊中에서密集運動을行할目的이라하느니라然하느니라實戰에臨하야聯隊의密集隊次로써齊一할運動을行함은稀할者나惟獨大隊에서만此를行할을得하느니라故로聯隊에서는極히簡易할運動만行하느니라

第百六 聯隊長은豫令或命令을下하느니라大隊長은此에適當할號令을下하느니라

聯隊聚立隊形

第百七 各大隊는通常重複縱隊로써一線二

聯隊教練總則 隊聚立隊形 百七十七

聯隊衆立隊形

百七十八

線或三線에 配置하느니라

三箇大隊로 成을 聯隊를 二線에 配實할 時는 一箇
大隊는 他三箇大隊間 隔前方或後方에서 其中央
에 占位하고 二箇大隊로 成을 聯隊에 在하야는 前
後에 重疊하느니 定規 配實에 在하야는 大隊番號
順序로 配實하고 (第一線으로 第二第三線) 其他
는 番號順序에 拘치 안코 配實하느니라
各大隊間 隔及距離는 通常二十步니라
地形과 目的에 從하야 大隊隊形은 大隊縱隊或縱
隊橫隊를 用하느니라

聯隊長은 聯隊先頭部隊前二十步에 占位하고 聯
隊副官은 其左方後에 占位하느니 聯隊展開할 時
에 要하면 喇叭手一名이 聯隊長의 게 隨從하느니
라

第二百八 軍旗는 三箇大隊聯隊에 在하야는 第
二大隊요 二箇大隊聯隊에 在하야는 第一大隊에
實하느니 此大隊는 大隊旗를 川호이 無하되 만일
軍旗를 出치 아니할 時는 大隊旗로써 此를 代하느
니라

聯隊長의 撰拔한 一等兵五名으로 軍旗衛兵을 編

聯隊聚立隊形

百七十九

聯隊聚立隊形 聚立隊形の運動 百八十一

成호니此衛兵은軍旗傍에在호되其二名은左右에併列호고他三名은其後에列호니니라

軍旗位置는第百八十九와同호되但其戰鬪隊形에移호時는聯隊豫備隊에眞호니니라

聚立隊形の運動

第二百九 單一호前進、退却、方向變換及部隊側面行進은大隊教練에準호야施行호되前進及退却에는基準大隊를定호니니라

聯隊運動에在호야는大隊마다步調를齊一호고且併列호中隊先頭諸小隊는正히一線上에整

頓호을要호니니라

聯隊를一線에配眞호時에方向變換을(八分以上의方向變換은行치안니호事)行호時는基準大隊는第二百三에從호야方向을變換호고比隣各大隊는捷路를經호야其齊頭에到호니니라

聯隊를二線或三線에配眞호時는第一線은方向을變換호야二線或三線의深디로前進호고第二第三線에在호大隊는捷路를經호야其位置에占호니니라

戰鬪展開

聚立隊形の運動 戰鬪展開 百八十一

戰鬪展開

百八十二

第二百十 聯隊는縱長의配置를拂호으로써主要를合하니聯隊中諸大隊를戰鬪線에展開호는方法이數多호는通常聯隊長은臨機호야必要호大隊만使用호고自餘는手裡에貯眞호를要호니니라

豫備大隊는梯隊가되야一翼或兩翼後方에占位호고或中央後에位眞호는事도有호니最初戰鬪正面이漸漸狹窄호에隨호야後方部隊는漸漸遠히側方에位眞호를要호니此는後方大隊의加入호를因호야戰鬪止面을擴張케호를爲호이니

라

前進에在호야는先頭大隊退却에在호야는後尾大隊에準호야行進方向에展開호니行軍隊形으로展開호는時機에應호야適宜케은져大隊마다開進호니니라

聯隊聚立隊形에在호야停止호는時는其線上에展開호를得호니니라

何等境遇에在호는지展開運動을爲호야可히基準될大隊를指示호니運動中에展開호는時는可히後方梯隊될大隊는停止호야必要호距離와適

戰鬪展開

百八十三

戰鬪展開

百八十四

當其位置를保存함이可하니라
縱長距離는狀況에應하야定하니第一線에在
하各大隊間隔은任務、目的及地形에從하야變化
하고最初展開에在하야는命令으로써間隔을定
하니니라

展開는捷路를經하야施行하니라
展開를聯隊運動은各大隊을爲하야共同或各個
行進目標을指示하며或必要한境遇에在하야는
中央或一翼에基準됨이可함을指小하니라
方向變換은大概後方梯隊를適宜케展開하고正

面을變換하니必要할時는第一線으로써後方
梯隊를合으니라

聯隊를聚立할時는通常行進間에在하야는行進
方向停止間에在하야는其線上에서行하니各
大隊는捷路를經하야基準大隊方に聚立할時
宜에從하야其隊形을指示하니라

大隊中에서諸中隊戰鬪展開는大隊長手裡에存
함者니第二百四에揭한原則에從함을要하니
라

第六章 旅團教練

戰鬪展開 旅團教練

百八十五

旅團教練總則 旅團聚立隊形 百八十六

總則

第二百十一 第五章에揭호聯隊教練은旅團에
도適用호니라 旅團長은豫令或命令을下호
나其他는第二百六에準호니라

旅團聚立隊形

第二百十二 旅團配置는各聯隊를橫接或重疊
호니라 定規配置에在호야는番號少호聯隊를右
力或前方에位置호고定規外는聯隊番號를拘치
안호호니라
各聯隊間隔及距離는通常三十步니라

旅團長은旅團先頭部隊中央前三十步 旅團副官
은其兩側後에占位호호나 旅團展開호時에要호
면喇叭手一名이旅團長에게隨從호호니라

聚立隊形の運動

第二百十三 聚立隊形에서旅團運動은가장單
一케호이可호나其方法은聯隊運動에準호호니
라

戰鬪展開

第二百十四 戰鬪正面內에서獨立戰鬪任務를
部下聯隊長에게與호은旅團展開에基礎가되호
나

聚立隊形の運動 戰鬪展開 百八十七

戰鬪展開

百八十八

니其實施方法是情況에從함이可하니라

旅團長이旅團과併行하야行進目標을聯隊마다
與함時는展開는가장簡便하고且整正히行함을
得하느니라

最初一聯隊만展開함時는後方에在함聯隊는一
翼或兩翼後에梯隊를作하야適當호位置를占함
이可하니라

旅團長은通常一個大隊를豫備로其手裡에貯置
함느니라

展開호旅團運動을規定함은聯隊마다行進目標

를指示함느니라

其他는總히聯隊戰鬪展開에揭호原則에從함이
可하니라

聯隊中에서諸大隊戰鬪展開는聯隊長手裡에存
함者니第二百十二에揭호原則을從함이可하니
라

戰鬪展開

百八十九

戰鬪展開

百九十一

第二部 戰鬪

第一章 一般原則

緒言

第二百十五 第一部에規定한單一한制式을嚴正히遵守함은步兵敎練을齊一周到케함은基礎니라

然한나此制式을遵守함며同時戰爭要求에巧히適當케應川치안이함면此는其本旨에違悞함비니라

第二百十六 演習場에서는完全히戰場의顯象

戰鬪 一般原則

百九十一

一般原則

百九十二

을呈함이能치 못하니 卽損害와 其他實地不利호
感情은總히顯치 못하니라

此等顯象은 通常軍隊精神을沮喪호는者니 其程
度는志氣振否及損害多少에由호야差別이有호
니라

第二百十七 故로 平時教練의 主要호目的은 軍
隊志氣를養成起호고 軍紀를維持함에在호니
故로 有效호方法은總히實施에在호고 諸般演習
에該制式을實行함이嚴肅호時는此目的의大部
分을達호는니라

第二百十八 演習場에서些少호演習이라도前
掲호方針에等閑히호時는但戰爭要求에不適호
뿐안이라 도로혀害가有호니라

戰況에由호야要호時는基本隊形을廢호기에躊
躇치안이호미可호니 諸部隊의混淆호事가有호
야도반다시嚴格及秩序를維持함이可호니라

第二百十九 此를要호면演習으로호야 實戰
에適切케호은現時狀況에應호야適當호隊形을
撰擇함에在호니 此隊形撰擇호은實戰과갓치몬
저我兵器効力을大熾케호고 次에敵火効力을減

一般原則

百九十三

一般原則 練兵場効力

百九十四

殺害事に願慮함이緊要하니其隊形으로써此三個要領이合할時는演習이實戰에適當하다云々
나니라

上文主旨으로써漸次自小移大함이其順序가漸漸正齊하면實戰에至해야 더욱確實히戰鬪諸感情을可히克하니라

練兵場効力

第二百三十一 練兵場은操典制式을演練하는所이니라

第二百三十二 總히戰鬪는目的 兵力 時間及

地形에應해야施行함을要하니라

此要點中目的은重要함을니指揮官決心에影響을及하는事가最大함지라卽其目的에由해야或攻擊하며或防禦하며或退却함을要하는故로練兵場에서는其目的을示해야演習에特別히價値를與함을主要하니라

然호는練兵場에서諸制式の應用은展開와梯隊區分及戰鬪實行에關해야一般適用하고戰術上可得할原則은演習으로限하고此를爲해야練兵場地形如何에留意해야함을要하니其故는

練兵場効力

百九十五

練兵場効力

百九十六

戰鬪任務及他隊關係에依호야適當호隊形을撰定호은地形應用에比호면가장緊要호니라

第二百二十二 然호는練兵場地形을實戰과갓치應用호機會가有호면其利用호이可호니故로可爲호時호狀況을想定호야高地、村落、桑林을攻擊호며高地에防禦配備를行호고又隘路를經호야前進或退却호는等事를演習호이可호니라然호는地形을應用호이戰鬪任務를實行호만가지못호故로練兵場에서호는地形應用호는演習回數를少케호는니라

練兵場地形를應用호時호미리演習호部隊에告知호이可호니라

第二百二十三 練兵場은地物이乏호고且同一處衛戍地에서호는恒常演習情況이자吳一定호야敎練應用이不變호局地戰術演習이니終乃一個模型에陷호는故로特히此을注意호이可호니라

此와反호야一般了解호기易호斷絶部或隘路等을假定호時호는其所爲에從호야練兵場演習을變換호는利益이有호니라

練兵場効力

百九十七

練兵塲効力

百九十八

第二百二十四 練兵塲演習을屢屢野外에서施行함이最緊要하니一般原則及隊形撰擇法을了解함이十分其基礎를成후後野外演習을行할時는著호利益이有하니檢閱法도此趣旨에從호야練兵塲及野外와交互施行함이可호니라

第二百二十五 諸種戰鬪演習에在호야는小數兵員及若干標旗로써敵線을表함이緊要호고或此假設敵에稍稍多數兵員을附與호야後方部隊位置及運動을標示호고又同兵數된兩部隊로호야금對抗演習을行케함이可호니라

散開隊次及密集隊次

第二百二十六 歩兵은人의可히跋涉호地는如何호處든지戰鬪함을要호하니假令十分武裝호時에巨大호障礙를遭遇호지라도決斷호送巡함이不可호니散開隊次는特히此要求에適當호니라

第二百二十七 歩兵戰鬪는火力으로써決戰함이常例라火力을十分發揚호은散開隊次와如호者—無호고密集隊次로써射擊호은例外니라
第二百二十八 大호密集部隊가有效호敵歩兵

散開隊次及密集隊次

百九十九

散開隊次及密集隊次

二百

의射擊을受할時는其時間이短小하야도許多損害를免치못하는故로密集部隊가直接戰鬪에參與할時期는短少하고散開戰鬪는長時間을要한다니라

第二百二十九 密集隊次目的은橫隊와縱隊를勿論하고狹小한區域에集團을號令으로齊一한動作을行한다니라

第二百三十 散開隊次에在한散兵은一定한位置姿勢及銃의操法等固守함을要치아니하고輕捷勇敢하야判斷及自信力이富하고武器使用及

地形利用을巧히하며恒常其指揮官에게注意함을要한다니라

第二百三十一 地形의斷絶、蔭蔽及戰鬪에生한喧噪紛亂을因하야散開隊次指揮는漸漸困難하니此困難을除함은教練의가장難한者니라故로散開隊次動作은軍隊教練精粗及軍紀張弛如何를判定한다니此는各兵卒이指揮官의指揮가遠함을從하야其獨斷專行하는事가漸漸多大한다니라

第二百三十二 散開戰鬪及散開密集兩隊次의

散開隊次及密集隊次

二百一

散開隊次及密集隊次

二百二

變換動作은密集隊次應川모담屢屢演習을要
하느니此密集隊는散兵援助됨에不過하느니라
第二百三十三 散開隊次는現今戰鬪에主用
는法式이니此法式으로써戰鬪를開始하며又結
局하느는境遇도多하느니라

故로散開隊次는步兵의主要한戰鬪法이니라
第二百三十四 然하느는密集隊次는戰鬪準備와
散兵援助及增加又時機에依하야決戰에有效不
缺을者니最前線에서亦例外로用함이有하느는然
하느는密集隊次는散開隊次의連係가無하면決코

戰鬪를實行함이能치못하느니라

散開戰鬪

總則

第二百三十五 散開戰鬪效用이增大하면其指
揮法에特殊한價値가有하느니라

各散兵은運動及武器使用을自由로許함은其職
務를盡함이便易케함이니라

教練할時에兵卒로하야금散開戰鬪는密集隊次
에比하면其職務가重要한事를知得케함이可하
니如何한境遇를勿論하고各自全力을盡치아니

散開戰鬪總則

二百三

호면好結果를不得함을銘心케함이니凡散兵姿
勢에大호自由를與함은耳目을活動해야瞬間判
定하고獨斷處事케함이니라

兵卒理解力에應해야判斷及自信하는精神을養
成하고就中兵卒로해야금敵에게背를向함은第
一危險事로信認케함은將校의責任이니라

散開

第二百三十六 凡戰鬪는散鬪로써爲始하니라
戰鬪에當해야는몬저敵과觸接함을求하고且我
動作의自由를保持함이緊要한故로最初散鬪는

兵力을節約하고且輕率함이無케함이니라

不意敵襲을避할라면危殆한方向에少數散兵을
展開하고임의敵襲을受할時는迅速히適當한兵
力으로써對抗함이可하니此는動作自由를回復
코져함이니라

第二百三十七 嗣後決斷은戰鬪를持久하는데지
又決戰함에在하니其決戰한境遇에는計劃을確
定해야其必要한兵數를展開하고且適當한共同
動作이가장便利한配置를取할事에躊躇함이不
可하니大抵戰鬪를實行함에當해야所要에充치

散開

二百六

무술兵數를漸次增加함은大히過失이니諒如斯
호時는恒常寡兵으로써衆兵과戰鬪하야스사로
優勢호利益을放棄함이니한갓損害만受호뿐아
니라軍隊志氣를挫折하느니라

第二百三十八 凡決戰을行호時는展開함이可

호地域을悉皆利川하야濃密호散兵線으로써此
를占領하고戰鬪實行을要하느니라

此地域은地形及隣接호戰鬪部隊에因하야定하
느니라

第二百三十九 戰鬪開始에指揮官은戰鬪實行

하기爲하야多數兵力을貯存하야嗣後使用에供
코저호時는最初適宜케狹少호正面을占有함이
緊要하느니라

最初散開는種種疎密하고又如何호時든지正面
이過廣호를避하느니라其故는濃密호散兵을配置
하야戰鬪를繼續함이難하느니라此는死傷을爲함이
尤且確實호火力을維持함이能치 못호故로戰時
人員一中隊正面幅은白米突을著히超過치 못하
느니라

平時戰鬪演習에서도亦一中隊正面幅이約百米

散開

二百七

散開

二百八

突이니此正面幅은平時中隊兵數에比하면過大
하니然하니平時에在하야는死傷을因하야減員
이無호므로써此差가有하니라

第二百四十 散兵은指示호間隔을遵守함이不
可하고十分地形利用호目的으로써一時密하며
或離隔하니射擊開始前前進中에在하야는特
히然하니此를爲하야行進方向及速度를變함이
無하고又全正面을著히擴張함이不可하니라

第二百四十一 孜孜히整頓에注意호은間隔을
維持하는것보담一層價値가無하니但散兵線中

에互相各部運動及射擊을妨害치아니할뿐이니
라

然하니小部隊에在하야는戰鬪開始後에敵狀이
未詳할時는其指揮가容易호기爲하야散兵線中
一部隊를指示하고此에準하야動作케하느니라
第二百四十二 散兵線射擊을行함이可호位地
에近接하든지或散開하야可호占領할時는下
級指揮官은其占領호區域內에서各散兵으로호
야금武器效力을顯하고且其部下를誘導하야遮
蔽함이가장適功호地位에就케함이可하니라

散開

二百九

散開射擊

二百十

線翼을隣隊或矢然障礙物에依托치 못할時는恒
常熟練을長에게若干兵卒을附하야戰鬪斥候로
側方監視에任함이可하니라

第二百四十五 散兵損害를受호散兵線의火力을可
히維持할時或다시火力을可히増大할時又前進
을可히獎勵할時는散兵을増加함이必要하니라

第二百七十八及第三百五를參照할事

射擊

第二百四十四 散開隊次射擊은步兵의主要호
戰鬪手段이니此射擊은敵兵을防支호고又我攻

擊을準備할뿐아니라時機에依하야戰鬪局을
結호고許多境遇에서近距離로부터優勢호射擊
을決勝點에聚注하야突擊호기에至호면敵兵은
임의退去호거나或僅히防支호陣地로向호기에
不過하니라

如此호射擊效力을利用할時는各人の沈着射擊
熟練及射擊軍紀에在하니라

第二百四十五 散兵線의射擊效力을逞할時는
多數銃器을用호고指揮統一함에在하니라
散兵線은諸部로하야금恒常同種의射擊을行케

射擊

二百十一

射擊

二百十二

함을 요하는時機에因하여各部隊에各異한目標을指示하고各別한射擊을行케함도有하니라
第二百四十六 連發射擊應用의適切한時機은
左와如하니라

攻擊에서는突擊前最後準備를行할時

防禦에서는敵의突擊을擊攘할時

騎兵을防禦하거나或戰鬪中繼然間敵과衝突할時(堡壘近傍,村落森林內等戰鬪)

退却하는敵을向하여追擊射擊을行할時

連發射擊은通常三百米突照尺을川하니然하니

千米突以內距離에서少時間特別한利益이有한
目標가現出하여偉大한射擊效力을可히顯得할
境遇에만用할時機에因하여例外로此射擊을
用하는事도有하니라

第二百四十七 射擊應用은如何境遇를勿論하고
確實한射擊界內에在한敵의軍隊를照準치아
나하면著한効力이無함을銘心함이可하고敵의
兵種을撰하여射擊함은必要치아나하니然하니
許多境遇에서는敵의步兵을第一主要한目標요
且砲兵을射擊함도亦疎忽함이不可하니目標撰

射擊

二百十三

射擊

二百十四

定은몬저戰術要旨에從호야判定호고次에高深、廣、密을擇호야其効力을圖호느니라

精練호軍隊는雖敵火下에在호야도我射擊効力을現치못할時는自苦히駐止호야閒漫히應射치아니호느니라

第二百四十八 間接射擊으로써効力을得호은極稀호니此射擊은已知距離에서目標가不動호고彈道의彎曲을利用호야好成績을期得할時에만用호느니假令堡壘內에在호敵에對호과如호니라

第二百四十九 射擊指揮에任호은通常火線에在호小隊長或中隊長은이오其他上級指揮官은戰鬪에서他職任을擔負호으로서部下指揮官職域內에上與호기爲호야自己職任을疎忽호이不可호고其射擊에可히干與할時는戰鬪線中火力을增大호거느或火力을聚注케호는디適當호地占에必要호兵力을配置호는等에在호느니라然호는演習에서上級指揮官은部下指揮官의射擊指揮適當與否를監督호느니라

第二百五十 戰鬪가久亙할時는散兵線에在호

射擊

二百十五

射擊

二百十六

指揮官이多數滅殺함으로射擊指揮가屢屢히完
수치 못함이니如斯境遇에至함야射擊軍紀를維
持함이緊要함니蓋敎育周到와軍紀嚴正함軍隊
는各兵卒이思慮와特히勇敢함야經驗이多함者
를標準함야火線의動作을規定함면我와同하
기困難을境遇에在함敵에게對함야有利함戰鬪를
續行함니라

第二百五十一 火戰始初부터恒常其携帶彈藥
數가有限함事와若干彈藥을射耗함면即戰鬪力
若干을減衰함事를顧慮함야만다시有效함境遇

에만發射함을要함고又一方에一目標을可히射
擊함을決定함면其目的을達함이必要함彈藥을
十分使用함이可함니成績이確實치 못함射擊은
我軍隊의志氣를挫折함뿐아니라敵兵의銃氣를
增加함는緣故니凡彈藥은適當히節用함야(特히
遠距離或中距離에서)決戰할時機에好結果를得
함기必要함彈藥을十分使用함이緊要함니라
戰鬪間彈藥補充에關함야는野外要務令規定에
從함이可함니라

運動

射擊運動

二百十七

運動

二百十八

第三百五十二 散兵線運動은 恒常敵과 觸接하는故로 極히 單一함이 可하니라

敵의 射擊界外에 運動은 秩序及 連繫維持함을 主要하고 其 射擊界內에 運動은 捷路를 經야 敵에 接近함을 主要하니라

第二百五十三 前進或退却運動은 指示를 行進方向을 保持함이 特히 緊要하니 敵火를 受함이 小할時는 斜行進으로 써 僅히 行進方向을 偏移하니 然한 敵火下에서 長한 側面運動을 行함은 不可하니라

射擊界內에서 方向變換을 行함은 全히 例外라 若 他正面에서 散兵線을 設함 必要가 有할時는 後方에 在한 密集部隊를 新正面에 展開하고 舊散兵線中 不用에 屬한 部分은 聚立함이 可하니라

第二百五十四 散兵線運動은 通常 平步의 速度를 用한 敵의 直前에서 一地部에 達코져할時及 敵火의 危險界를 通過코져할時는 驅步를 用하니라

經過할 行程이 長할時는 驅步로써 若干距離를 通過할적마다 停止하여 伏臥하고 有效射距離內에

運動

二百十九

運動

二百二十

到하면散兵은停止間에射擊을行하야嗣後前進運動을準備하느니此躍進(第百二十一를參照)을行하기에當하야散兵線一部는敵에對하야射擊으로써他部의前進運動을容易케함을要하느니敵前에서一躍進距離는諸種狀況(土地의形狀軍隊의狀態敵火의強弱等)에關하나라

第二百五十五 然하느니此種攻擊運動은甚히困難하고且前進이遲緩키易함을顧慮할지니蓋有効한敵火下에在하야一地에占據한散兵線으로다시前進케함은甚히困難함으로써躍進마다其

度を增加하느니故로躍進은輕舉히行함이不可하다如何한境遇에든지敵火效力을顧慮하야間斷없이前進할만할時는繼續行함이可하나라故로演習에서도躍進運動은遠距離로부터開始함이無하고又平地에서前進하기爲하야惟一한方法으로써練習함이不可하고此를爲하야射擊을十分準備하고間斷없이前進함을勉하면好結果를得할事와能히遮蔽한敵의射擊下에久止할時는夥多한損害를受할事와又退却은全히自滅에陷할事를服膺함이可하나라

運動

二百廿一

運動 聚立及併聚立

二百廿一

第二百五十六 側面或瞰臨地에서 優勢를 射擊을 行하야 敵火를 制壓함은 間斷이 無호前進運動에 가장 有利호니라

聚立及併聚立

第二百五十七 戰鬪結局後及追擊射擊을 終호後에 散兵線을 聚立호니 退却에 當야호는 敵의 追擊을 受치아니 할地에 聚立함이 可호니라

第二百五十八 聚立은 敵에 面호야 密集部隊所在地及運動中이 어든 行進方向으로 行함이 原則이니라

第二百五十九 併聚立은 戰鬪中力兵을 一地에 聚立하야 用호니 各兵卒及各小部隊는 其舊位에 復함을 要치안코 但迅速히 密集隊로 聚立함을 要호니라

諸兵種에 對호動作

第二百六十 步兵이 步兵에 對호戰鬪勝利는 精神上活動外에 射擊教練, 射擊軍紀及射擊指揮에 在호니라

指揮官의 職任은 射擊하기爲하야 아모 多數의 銃을 用호고 或擴張호戰鬪線火力을 猛烈히 要

聚立及併聚立 諸兵種에 對호動作 二百廿二

諸兵種에對호動作

二百廿四

占에聚注호에在호니라

我兵이敵線他部에對호야遮蔽호時는上의要領을實施함이甚히容易호니라

第二百六十一 一步兵은開豁호平地라도射擊을準備호時는一騎兵보다優호느니라假令多數騎兵에對호야沈着熟慮호며終始敵을注視호야適當히火器를使用호면此亦畏호미無호니라步兵은自若히堅確호姿勢를保호時는假令優勢호騎兵이라도畏호미無호니라照準이精確호且沈着射擊호야火力을逞호면如何호隊形이라도騎

兵을防禦호기에適當호니騎兵의가장危險호者는아모조록多數火器를排列호는되在호故로隊形變換及方向變換은此目的으로만施行함이可호고且後方梯隊射擊의因호야其側面이安全호지라도擴張호正面으로써騎兵에對치못호時는假令方陣을編成호야도其効力을奏함이無호니라

第二百六十二 驅步中에在호散兵은騎兵에對호야抵抗力이無호되此外反호야沈着히射擊을行호면其襲擊에對호야도十分自信力이有호고

諸兵種에對호動作

二百廿五

諸兵種에對한動作

二百廿六

若地形이騎兵에對한야障礙及遮蔽物이有한면
더욱散兵力을增加함이니如何할時든지敵의步
兵과戰鬪한는散兵은假令騎兵脅迫을遭할지라
도아모조로密集隊形을取치아니함이可하니라
第二百六十三 步兵은敵의優勢한騎兵에對한
야砲兵或步兵의援護가無할時及閑豁한原野에
서各方面으로優勢한騎兵의襲擊이數線으로來
할時라도毫末도顧慮함이업시前進함이可하니
라

第二百六十四 假令軍隊가彈藥을射盡할時或

損害가多할戰鬪後에其隊伍가動搖할時或閑豁
地를退却함에當한야優勢한騎兵의脅迫을不絶
히被함과如할特別할時機라야方陣을編成함이
適當하니라

總히其他境遇에서步兵은左의要旨를銘心함이
可하니卽自己運動을不得不中止할時或有效한
射擊을行치못할隊形에在할時는騎兵에若干成
果를收得케함이니라

第二百六十五 砲兵에對한戰鬪는遠大한距離
에서는砲兵의火力이步兵보단優하고約千米突

諸兵種에對한動作

二百廿七

距離에至한야비로소其效力이相等하고千米突
以下距離에서는步兵이砲兵보담優하니라
故로步兵은地形을利用한야아모조로敵砲兵에
接近한야몬저곳目視를駕馬를射擊하고大에砲
卒을射擊하니步兵은遠距離에서도砲兵에對
한야射擊을行함이有效한境遇가有하니然한
如此境遇에至한야는巨額彈藥을要하니라
步兵은決코遠大한距離에서砲兵과其威力을競
함이不可하니如斯한動作은한가彈藥만虛費함
뿐이니라

工作器具使用

第二百六十六 現今火器效力에對한야人工遮
蔽物의效力이頗大하니諒適切한時機及位置에
設置함이緊要함을顯하니라時로決함이不可한
然한니此를設置함은專히指揮目的에適當케하
고又其指揮를掣肘함이不可하니若其目的이確
定치못한야몬저工事を始할時는其遮蔽物을造
成하기爲한야指揮를掣肘하기에至한니故로總
히地形을堅固케함은有害한者이니又運動의自
由를妨碍한者이니其指揮官된者는器具使用

工作器具使用

二百三十

의如何를知悉함이니라何等處所와何等時機에
서器具應用與否를知함이可하니此를爲하야戰
術上에攻究함이必要하니라

人工遮蔽物中가장單簡함이니掩堡라其築設法
은步兵工作敎範規定에從하느니防禦에在하야
는掩堡를築設함과同時に前地距離를測定하야
此를標示함이可하고攻擊에在하야도임의奪畧
할地區를維持하며且堅固케하기爲하야器具를
使用하면大效川이有하니라

演習에在하야는想定한戰況에由하야器具의使

用을要함이有하느練兵場及野外를勿論하고
掩堡를築設치못함이屢屢히有하니如斯한境遇
에在하야는少하야도準備作業을行하고其築設
은此를想定함을지니라

戰鬪間指揮官及兵卒의動作

指揮官

第二百六十七 凡指揮는指揮官이最下級者에
至하기外지干與함과及其號令을用하는事가漸
漸少하기에從하야困難度가漸增하는故로戰
鬪中命令을下함은가장容易한方法을求함이可

戰鬪間指揮官及兵卒의動作 二百卅一

戰鬪間指揮官及兵卒의動作 二百卅二

호니此를爲호야指揮官은適當호位置를撰定호
이可호니라

故로各級指揮官은演習에서도實戰에서可取호
姿勢及位置에在호야命令을下호나然호나敎練
上의必要호時는此原則에據치안코上級指揮官
은自己所欲에從호고要호면下級指揮官도亦如
斯히自由를許호나니라

然호나乘馬將校는或下馬호時에此로由호야指
揮가困難호故로此에慣熟호이可호고且兵卒노
호야급猛烈호敵火下에在호야指揮官이徒步호

時라도此를認識케호이可호니라

第二百六十八 散開戰鬪를指揮호기에當호야
各級指揮官은特히連繫秩序及方向을止히保持
호事에注意호고其他上級指揮官은其部下軍隊
가軍裡에脫逸치 못호事를監督호며下級指揮官
은其分擔호任務를畢호後는速히其所屬隊에合
호거나或上官의使用에應케注意호이可호니라
以上要求를充호기爲호야指揮官은必要호者外
에는命令호이不可호고又實施者는其指示호目
的에向호야共同動作을行호고其獨斷에屬호餘

戰鬪間指揮官及兵卒의動作 二百卅三

戰鬪間指揮官及兵卒의動作 二百卅四

地는專恣誤用에不陷을要하니라

如斯을範圍內에서適當을獨斷專行은戰時에好成績의基礎이니라

此要領은最下級指揮官外지適用을可하니라
 第二百六十九 小隊長은其小隊射擊効力を可히監視을地에占位야指定을位置에其小隊를部署하고又指示에從야或獨斷으로射擊目標을規定야恒常敵兵의動靜을注意하고且戰鬪線中隣接을諸小隊와協力을勉하고又何等方法으로射散兵線의全部或一部를進야敵에

게接近을든지或包圍를試을든지或敵의弱點을利用함이可을事를預先探知을要하니凡散兵線上에在을小隊長은能히地形及敵에對야占有을利益을看破을事가多을故로自己責任으로써如斯을利益을收得을程度를明知을이可하니라

第二百七十 分隊長은小隊長을補翼야指定을區域內에散兵配布、武器使用、照尺裝置及彈藥消費에關을責任이有하니라

兵卒

戰鬪間指揮官及兵卒의動作 兵卒 二百卅五

兵卒

二百卅六

第二百七十一 兵卒은行軍及勞動後戰鬪에移
흥이常例라故로戰時에서는此에缺乏이有하야
一層困難을增加하느니故로兵卒은剛毅勇猛하
야思慮及果斷을有흥이可하느니此性質은最大危
險한時機에在하야兵卒에가장必要한者이니敎
育에因하야此를養成흥이緊要하니라

兵卒은善良한敎育에依하야其性質을鞏固하고
獨斷에慣하야能히그를克하고且漸次慣習으로
서艱難勞勩에堪耐하고單簡한戰鬪方法에習熟
할時는悲慘한戰鬪感情에不搖하야眞兵卒을得

하느니라

第二百七十二 兵卒은前進中假令敵의火力이
熾大하야損害가極多할時라도命令없이停止흥
은嚴禁하느니總司退走는殲滅에陷하느者오猛
烈果敢한攻擊은恒常成果를得하느니라

第二百七十三 防禦에在하야兵卒은其可保한
位置에停止흥을要하느니兵卒은敵兵이接近한
디隨하야我火力이漸漸敵을殺傷할事가多흥을
確信할지니故로散兵은彈藥을節用하야近距離
에서確實한成績이有할時에만使用흥이可하느니

兵卒

二百卅七

兵卒

二百卅八

라

第二百七十四 各兵卒은其所屬部隊를離치아
 니함이可호니任務를不帶호거니或負傷치아니
 호고汗漫히戰鬪部隊後方に停止호거니又戰鬪
 中命令을受치안코負傷者를運搬호는者는怯懦
 호罪를免치못호니兵卒이若其所屬部隊所在
 處를失호時는最近호戰鬪部隊에合호야其將校
 或下士命令에從호야服從함을所屬上官과갓치
 함이可호고戰鬪를終호後에곳其所屬部隊를搜
 索함이可호니라

第二百七十五

戰鬪喧噪中에在호야氣力及思
 想을失호兵卒은其所屬將校를仰視함이可호고
 임의此將校가現在치아난時는下士或勇敢호兵
 卒을標準호야其身을處함이可호니라

戰鬪正面及梯隊區分

第二百七十六 軍隊戰鬪正面은孤立호야戰鬪
 함과他隊와連繫호야戰鬪함이各異호니第二境
 邊에在호야는其兩翼或一翼을他隊에依托함을
 得호니라

其他攻擊防禦或退却을行호기에應호야正面廣

兵卒 戰鬪正面及梯隊區分

二百卅九

戰鬪正面及梯隊區分

二百四十

狹에差異가有하니라

第二百七十七 孤立하야戰鬪환경遇는情況變遷에從하야漸次展開를施行함이緊要하니故로最初부터其兵力을舉하야第一線에使用함은無하니라

通常은저緒戰에依하야戰鬪實行의影響이可及할情況을詳悉함이必要하니라

第二百七十八 是以로縱長에서梯隊區分은少하야도二部에分하야其前方에在함兵力은寡少하야緒戰에任하느니此를依하야情況을分明히

하고戰鬪實行에關함處置를決할時는오히려不時事變을準備하고且決戰에使用하기爲하야兵力의一部를分하야豫備로置함이緊要하니然할時는縱長에서三部의區分을生하며又情況에依하야此보다尙多함區分을要할事가有하니假令特別히側面掩護에必要할等事가有하느니라然하느此數多함區分은아모조로避함이可하니豫備使用이得宜하면如此함區分은概不用에屬하느니라

第二百七十九 縱長에서各梯隊兵力은諸種狀

戰鬪正面及梯隊區分

二百四十一

戰鬪正面及梯隊區分

二百四十二

況에依호야變化호는然호는緒戰에任호者호야
모조로兵員을寡少히호고豫備로留호者호야모
조로其兵員을衆多케호이原則이라蓋緒戰을爲
호야全員四分一보담多川호이無호고豫備를爲
호야全員四分一보담少호이無호는然호는此比
例호一般標準을指示호호이요又諸隊建制를分
割호는事가업시使用호이미호니라

第二百八十 前掲を區分은戰團經過中에此를維持할비아니라몬져戰團實行에定호部隊를一時或漸次縮戰部隊에增加하고豫備隊는必要에

應호야 最後決戰或退却掩護에 使用호니라
此戰鬪加入은 通常戰鬪正面을 擴張호기에 至호
니라

第二百八十一 故로緒戰에當하야는展開正面을適宜히狹小함을要하느니不然則戰鬪實行에際하야正面이過度히擴張하든지或先期하야諸單位の混淆함을免치 못하느니라

故로戰鬪展開의部署함은몬저何等梯隊配分을
要함이又其正面은如何히狹小케함이考慮함을
要함니라

戰鬥正面及梯隊區分

一百四十三

戰鬪正面及梯隊區分

二百四十四

孤立호야戰鬪호는軍隊는敵의包圍에對호야我
兩側面이安全할時만正面展開의兵力을多用할
이可호니라

第二百八十二 他隊와連繫호야戰鬪호는軍隊
는概其正面廣狹을限定호는者이니此는軍隊가
一翼에在할時는側面脅迫을當할事도無호고又
側面攻擊을自行할事도亦無호故로如此境遇에
在호야直히第一線에許多兵力을展開호고寡少
豫備를備호는거나或全히備치아니호는니라
故로兩翼을依托호軍隊는가장多數兵力을正面

에展開호는니라

一翼을依托호軍隊는許多境遇에서縱長梯隊區
分及正面擴張을其暴露호一翼에就호야行할事
를勉함이可호니라

第二百八十三 射擊에精熟호步兵은射擊에依
호야正面으로敵의攻擊을擊攘함이可호니攻者
가一次敵을擊退케할時는著大損害를受호야크
게志氣를沮喪호는故로攻擊을更試할事가難호
니라

第二百八十四 敵의射擊에由호야生호는損害

戰鬪正面及梯隊區分

二百四十五

戰鬪正面及梯隊區分

二百四十六

를掛慮치 말고其突擊에對하야沈着射擊을施行
할지니步兵이若地形을利用하며或器具를適當
히使用하면他的援助가無하야도其正面은堅固
하니라

第二百八十五 上과如하步兵이라도一의弱點
이有하니即地形或他隊에依하야掩護치 못하
는側面이니라

故로側面警戒는缺함이不可하要件이니라
側面警戒의가장有効한方法은縱長의서適當한
梯隊區分을行함에在하나然하나戰鬪目的을達

하기爲하야何等位置에後方部隊豫備隊를配
置함이可하느니라此를顧慮함이甚히緊要하니라
第二百八十六 後方部隊가若正面中央後에占
位할時는戰鬪線을向하야行하느敵火에因하
야數多損害를受할念慮가有하고後方部隊로하
야此害를避케하랴면後方遠處에位置케함이
可하나然하나好機에際하야適當히此를使用하
기難하니라

第二百八十七 故로特別한狀況에依하야他方
에位置케할必要가無할時는後方部隊는戰鬪線

戰鬪正面及梯隊區分

二百四十七

戰鬪正面及梯隊區分

二百四十八

翼後에位置함이適當하니라

第二百八十八 何翼後에豫備隊를位置케함이
可함은지狀況과地形에關함이特히決戰을豫期
點에注意함이可함니라

又豫備兵力을側方에偏移함은時間을多備함과
敵火下에서運動함이不可함을考慮함지니라
第二百八十九 後方部隊距離는戰鬪目的에從
함을爲主함이니라

決戰에移하기前에在함이는密集部隊은아모조
尋敵火를避함을要함이니라

決戰을行코저할時는戰鬪經過中에後方部隊距
離를短縮함을要함이니此時에在함야는最下級
指揮官外지協力함야勝利를期하기爲함야一意
前進함을勉함이可함니概結局時間은短小함者
아직使用치아니함軍隊를區處함은此一瞬時間
함에在함니라

아직決戰을行코저아니할時는縱長距離는大케
을要함이니라

第二百九十 其他距離는地形에從함야斟酌함이
可함니라

戰鬪正面及梯隊區分

二百四十九

戰鬪正面及梯隊區分

二百五十

地形이開豁할時는距離를遠大케하고且敵火下에在할時는正面이廣하隊形을要하느니라
 攻擊運動을行하기에當하야後方部隊는敵火를避하기能치못할時라도步兵은集束彈或榴霰彈을避하기爲하야同時에縱長二梯隊를損害치안토록注意함을要하느니라此를爲하야必要한距離는二百米以下이니次戰할時期에至하야비로소距離를短縮함이可하니라
 地形이險峻할時는距離를短縮함이可하니라如此한境遇에在하야는屢屢히第一線을連히援助할

必要가有함으로써指揮官은距離를短縮하느니라益을通失함이不可하느니라正面을狹小케하고距離를短縮하야密集隊形을取하고且翼後에衆多한豫備를置함은此境遇에適當하느니라此方法은特히森林戰鬪에適用함이可하느니라此時에密集部隊運動은主하야街路에依함이可하느니라

夜間戰鬪에在하야는全히諸種地物效用을異케할지니決勝點을向하야精密히照準하야射擊함이能치못하고攻擊運動은行進方向을變하느니라
 역시目標를確定하야미리指示하고距離를短少

戰鬪正面及梯隊區分

二百五十一

戰鬪正面及梯隊區分

二百五十二

케 하며 且熟知야 아모 조록 限界호 區域內에서
行軍을 限호니 나가장單一호 隊形卽中隊縱隊를
併列或重疊호야 近히其正面前에 僅少호 散兵을
配布호고 或此를 配布호는 事없이 接戰을 準備호
이 最良호니 其縱隊先頭로써 近距離에서 急劇호
火戰을 交호미可호고 自餘의 攻擊部署는 皆錯亂
을 生호기에 至호출은 防禦에 在호야는 其占領
호 位置에 止호야 防守호고 新區分호는 不可호며
火戰은 最近距離에서 施行호되미리 晝間에 敵의
行進路를 縱射호 位置를 認識호야 行호미可호니

故로 若軍隊가 特히 夜間攻擊을 受호 事를 認호時
는미리 前方警戒線에 增員호미可호니 夜間防禦
戰鬪에 在호야 比隣軍隊協力을 得호는 다만 不意
側面攻擊을 行호는디 만 限호니라

第二百九十一 練兵場에서 縱長距離호는 恣히其
地區關係에 由호야 制限이 有호는 此制限이 無호
境遇에 在호야는 其距離를 實地에 適應케호야 旣
指揮官及軍隊敎練에 利益을 得케 호미可호니라
第二百九十二 密集部隊動作은 散兵動作에 應
호야 施行호미 常例니라

戰鬪正面及梯隊區分

二百五十三

攻撃及防禦

一百五十四

密集部隊를 散兵線에 近接케 함은 每決戰時機에 近함을 表함이니 其使用은 散兵線을 增加케 하며 密集隊次로 攻撃을 行케 함이니라

密集部隊使用法은 戰鬪目的과 時間及其他 顧慮에 由함이 決定함이 可함니라

攻撃及防禦

第二百九十三 攻撃은 遭遇戰과 미리 防禦配備을 陣地를 攻撃함으로써 區別함이 原則이니라
第二百九十四 遭遇戰은 運動戰에서 屢屢히 發生함은 者니 敵兵의 大部가 開進中에 尙在함 者에

개對함이 行軍縱隊로부터 展開함은 事가 多함니라
如斯함 戰鬪에 在함은 先頭部隊는 後續部隊로

함야금 其開進에 要함 時間及 地域을 確實히 得케 함을 要함이니라

此際에 下級指揮官은 全隊가 展開進步에 關함이 其連繫를 失치 아니함으로써 度를 合고 獨斷事에 從함을 要함은 故로 前衛等 先頭에 在함 部隊는 此 要旨에 從함이 動作함되 一은 敵보다 먼저 展開함고 一은 高等指揮官 意圖를 妨害치 안케 其度를 維

攻撃及防禦

一百五十五

攻擊及防禦

二百五十六

持함이可하니라

故로遭遇戰初에指揮官이先頭에在함은甚히緊要하니然할時는通常開進命令及戰鬥命令을合하야同時에下하느니라

攻擊은展開를爲하야아모조록遲緩치아니함을要하느니軍隊가본저其線上에展開하고다시前進함은概時間을徒費하느니라

第二百九十五 敵兵이거의其開進을了코져할時或僅히其一部를임의陣地에占位할時는先頭部隊는一層戒心하야展開를行하고開進進歩에

隨하야戰鬥正面을擴張하고高等指揮官의計畫을待함이可하니故로指揮官은時機를勿失하고其計劃을示함이適當한位置에在함은極히緊要하니라

第二百九十六 此와反하야全히展開하고임의準備한防禦陣地를向하야攻擊할時는指揮官이미리計畫을定함이可하고此際展開는各自獨斷에만委任함이不可하니若敵兵이我를攻擊지아니할事가判然할時는攻者는隨意로攻擊方向及方法을撰定하느니利益이有하니如斯한境遇에在

攻擊及防禦

二百五十七

攻撃及防禦

二百五十八

호야는指揮官意圖에從호야戰鬪に移호기前에
開進을行호니라

敵火의掃射호는地를通過호은甚히困難호으로
써夜間을利用호야接近호이必要호事가有호니
此境遇에는通常晝間에미리敵의射擊界外까지
前進호고翌朝未明에다시前進호야拂曉로부터
射擊을開始호이可호니라

미리計劃호攻撃은敵보다優호射擊을行치아니
호면其奏功을期치못호니라

은저砲兵의火力으로敵보다優勢됨을勉호고此

火力에依호야歩兵의攻撃進路를開케호이可호
고又攻撃正面前土地에適當호支撐點이有할時
는은저此를占領호이可호니此支撐點掩護에依
호야一般展開을行호고前方에在호軍隊는地形
許限되로아모조로敵陣地에接近호야射擊을開
始호이原則이니라

攻撃을實行호部隊로써強大호散兵線을作호야
敵에陣地에接近호야射擊으로써敵을挫折호을
勉호이可호니散兵線으로부터近距離에至할時
에援隊는아모조로其背後에近接호야附加호

攻撃及防禦

二百五十九

攻擊及防禦

二百六十

準備를行할位置에在함을要하니라

我火力이아직敵보다優치못하거나或敵의著大
 運動搖를見치못할時는大損害를被함이無하
 면攻擊을實行할事가能치못하니故로最後突擊
 을行코저할時는火力의成果를待함이可하고其
 成果는散兵線上에서가장善히判定할지니此線
 上에서第一如何할時機와如何할處所에서敵의
 抵抗力の衰退與否를見고且가장迅速히諸般
 利益을收得함이可하故로突擊은散兵線으로부
 터起함이多하니然할時는密集部隊는곳散兵線

에跟隨하야此를支援하고且敵의逆襲에對하야
 可히警備할任務를負擔할지니라

然하니一般攻擊部隊의總指揮官은好機에際하
 야突擊命令을下하기에注意함을要하니散兵
 線이近距離에達하야陸續增加함을得하고其火
 力으로써最高度에達케하야十分突擊을準備할
 時는後方梯隊는第一線과共히決戰을行하기爲
 하야間斷없이敵을向하야前進함이可하고此攻
 擊運動이敵眼을避치못할境遇에至하면各密集
 部隊는다襲步에移하고鼓手는鼓奏하니此時

攻擊及防禦

二百六十一

攻擊及防禦

二百六十一

密集部隊는 排列하거늘 重疊하거늘 如何한 隊形을 取하거늘 總指揮官이 豫備를 尙貯하느는 등事는 全히 現時狀에 關하느는 者이라 此 決戰 瞬間에 在하야는 攻擊兵은 다 前進하느는 一方法뿐이요 總指揮官은 適時에 喇叭手로 하야 突擊號音을 吹奏케 하느니 於時에 各喇叭手는 間斷없이 復奏하고 鼓手는 鼓奏하고 全隊는 다 突擊에 移하야 吶喊하고 敵陣中에 突入하느니라

此外 攻擊動作에 關하야 細密한 方法을 定함은 禁하느니라

第二百九十七 攻擊奏功後動作은 敵의 陣地를 畧奪함으로써 足하다 말고 尙其 占有한 地를 確實케 함을 要하느니 此를 爲하야 退却하느는 敵을 追擊하거고 且 其得한 陣地를 警備함이 可하느니 若 敵의 陣地內에 村落森林等이 有할 時는 攻擊을 續하야 其後端에 至함을 要하고 嗣後 追擊은 通常 攻擊運動으로써 續行치 말고 은저 射擊을 行하느니 此際에 突擊을 行한 軍隊는 突略奪한 陣地를 占領하야 部隊를 整頓하고 嗣後 新企圖에 應하야 速히 戰鬪를 準備함이 可하느니라

攻擊及防禦

二百六十三

攻擊及防禦

二百六十四

第二百九十八 包圍 攻擊成果를得을기爲을야我火力으로을야금敵보담優케함은包圍에依함으로써가장容易을다을然을此包圍를行할時는諸方向으로부터接近함과後方梯隊加入에依을야施行함을不拘을고最初展開에서準備함이可을니라

第一線에서임의展開을고或戰鬪를開을步兵의一部로써包圍를試코저함은地形에特別을利益이有치아니할면其目的을達치 못을고을것其兵力을分離을는害가有을니라

第二百九十九 防禦 防禦와如을地形에關係을戰鬪法은他에其類를見함을無을니防禦를行할는되는村落高地森林隘路等을川함을必要을니라

凡防禦에在을야는特히火器效用을竭力함이緊要을니此目的에依을야陣地를撰定을고且人工으로써堅固케을니라

敵의攻擊方向을知을지라도散兵線에는最初부터戰鬪目的及地形에從을야陣地를固守함에必要을兵力을用함을可을고掩堡及其他遮蔽物을

攻擊及防禦

二百六十五

攻撃及防禦

二百六十六

築設을 야前地要點에 至한距離를測定하고小行李에在한彈藥을兵卒에게配賦한야防禦線에接近한야其身邊에置케하고援隊는散兵線에接近한야時機에依한야其背後에密接位置한야總히縱長距離를短縮함이可하니但後方部隊는敵火를避함을爲主한야遠隔함이可하느니라然하느其地區를防禦함으로써急히應援하기易로接近한야在함을要하느니라

地區數及其幅員은陣地形狀에依한야變化가著大하니陣地交通及展望困難에從한야漸漸其地區數를增加하고其幅員을狹小케하느니總히陣地를占領하느니縱長梯隊區分을川함을要하되各地區에適應한建制部隊를部署한야各自히豫備를置함이可하니라

總豫備隊가卽一定한地區에用치안는軍隊의位置에關한야는次項에注意함을要하느니라單히防支만爲主한는防禦(前哨戰後衛戰)는通常其陣地를保守함으로써爲限하고此와反한야勝利를期한防禦는攻撃動作을併行치아니함이不可하니但防禦만行할時는決코敵을殲滅하지

攻撃及防禦

二百六十七

攻擊及防禦

二百六十八

吳호는故로防禦地區에用호는兵力을而用호고
 總豫備隊로호야금一般戰況及地形에從호야速
 히攻勢에轉호기容易호地點에聚立호을要호는
 니此地點은通常一翼後에在호을取호지라此方
 法을撰用호時는가장可畏호敵의包圍를防支호
 는디便利호者니防禦軍隊가大호디隨호야總豫
 備隊로호야금漸遠호側方에位置케호을要호는
 니此에依호야展開餘地及攻擊에轉호는便利를
 得호고且敵의側面을脅威호며或敵의包圍를가
 장容易히防護호을得호는緣故니라

아직敵의攻擊方向을詳知치못호고陣地에守兵
 을全히配置호은可히戒心호事니라

第三百 凡失敗時에際호야退却에關호야는一
 定不變호法則을設호이不能호니라

凡敵과戰鬪호는軍隊가擊退를富호時는其退却
 方向을撰擇호을不得호고敵兵의追擊을受호軍
 隊는隊形을變換치말고正面과直角으로退却호
 는其收容치못호間은再次敵에게抵抗호을不得
 호는故로軍隊가오히려其縱長梯隊를有호時만
 退却의部署를施行호을得호는然호는決戰을可

攻擊及防禦

二百六十九

攻擊及防禦

二百七十

行할任務을有할軍隊로하야금其全力을舉하야
戰鬪實行에用치아니하고其一部를豫備하야退
却을掩護케하랴함은誤謬됨을免치못하느니總
히指揮官은決戰을可行할는지或退却을實行할
는지適當할時機에서決心함을要하느니라

收容陣地는抵抗力을有할陣地를可川할者는然
하느니退却하느니戰線을潰亂치안케하기爲하야아
모조로戰線近處에此를撰定함이可하고又收容
陣地는退却線上으로부터차라리接近할側方에
撰定함이有利하느니故로指揮官은軍隊中新銳한

者를撰擇하야收容에可任할部隊로指定하느니
此部隊는收容陣地에在하야敵과抵抗하야退却
하느니軍隊로하야금損害를被함이無케再次隊伍
를整頓하야出發할地域과時間을得케함이可하
고抵抗時間長短은即此에依하야定하느니若新
銳한軍隊가來하야適時戰鬪에加入하야서戰況
을恢復할所望이無할時는收容部隊는即退却함
이可하느니許多境遇에서는此部隊도또는他隊의
收容을賴함이可하느니라

退却戰鬪을指揮하느니必要는行軍隊形을整齊하

攻擊及防禦

二百七十一

攻擊及防禦

一百七十一

고距離를保持하고後衛를備하는디在하고此를爲고야指揮官은明瞭히行進目標을指示하고次에收容에可任할部隊를指定하고此收容할地點을命令하고나然後에指揮官은戰鬪地를去하고適宜할地에在하고야退却하고는軍隊를待하고야更히命令을下하고나其他事는總히下級指揮官의任務라凡退却하고는軍隊가收容部隊를援助하기爲고야無益히敵에게正面할時는多히危殆에陷하고나此를因하고야敵과離隔할事가極히困難하기에至하고나라

第三百一 操典은特種의戰鬪法則及標準을揭할事가無하고持久戰或陽戰에在하고야또는此를指示할事가無하고나此等動作은狀況에從하고야變化가無極하고者나各時機에서適當히此를處置함은指揮官의職任이라故로指揮官은時機를觀察하고야縱長에如何할梯隊區分을行할는지或如何할正面幅이必要할는지決定함을要하고나라

第二章 部隊戰鬪

中隊戰鬪

第三百二 中隊는中隊長의單簡을命令或號令

部隊戰鬪 中隊戰鬪

一百七十二

部隊戰鬪 中隊戰鬪

二百七十四

에依호야散開와聚立即迅速히散開隊次로부터
密集隊次에移호과密集隊次로부터散開隊次에
移호는等の動作을施行호를要호니니라

其他散開戰鬪에서는各小隊及小隊中の各分隊
는受命호任務或戰況에因호야生호任務를實行
호기爲호야獨斷으로써適當호手段을用호事에
熟練호이緊要호니戰況이임의散開隊次로在호
을要치안키에至호면命令을不待호고小隊는各
聚立호야中隊에合호고分隊도亦其必要가無호
을知호時는聚立호야其小隊等에合호이可호니

라(第二百五十七를參照호事)此原則의實踐은
演習에依호야慣熟호를要호니總히小隊長은
散開에當호야命令或號令을受호는者一요又戰
鬪間中隊長은方向變換或聚立호기爲호야適當
호時機에命令을傳호時間과特別호手段을缺호
는事가屢屢히有호는然호는戰鬪結局에當호야
는小隊及小隊中の各分隊는適當호位置에在호
을要호는니如何호境遇로써適當호다호은豫定
치못호는니라

第二百三 中隊가孤立호야戰鬪를實施호은例

部隊戰鬪 中隊戰鬪

二百七十五

部隊戰鬪 中隊戰鬪

二百七十六

外の境遇を分遣할時뿐이니通常中隊는大隊內에서戰鬪할者一然하느孤立할境遇에在하야는中隊長은其任務를盡하기爲하야全히自己의責任으로써動作하고大隊內에서戰鬪할時는他中隊와互相連繫하야動作할者니第二境遇에서中隊長은特히正面前狀況에注意함이可하느然하느側方及背後에서他隊狀況에도注意함을要하느니라

大隊에서行할戰鬪는一單位를成할者니其大隊의各部로하야금其範圍外에超逸함을不許

하느然하느戰鬪에移하면此範圍內에서中隊는其獨斷의餘地가大有檢束할事가露無할者一然하느後方으로부터達할命令은其機에遲緩할事가屢屢히有하故로命令을待하기에만拘泥할時는中隊는好機에投하야適當할戰鬪를施할事가能치못하느니然하느其獨斷專行은大隊內의連繫及戰鬪變遷에從하야適當할位置를保存함으로써標準함을要하느니라

第三百四 戰鬪初에當하야는大概散兵을節約히散開함이良하니強大할散兵線으로써位置或

部隊戰鬪 中隊戰鬪

二百七十七

部隊戰鬪 中隊戰鬪

二百七十八

方向變換을行함은恒常困難하며在敵의射擊界
內에在함야는損害를被함는緣故라通常散開는
逐次小隊마다行함는者이니然함는特別한境遇
에在함야는同時에二三小隊를散開함고又此와
反함야는不意敵襲에對함야中隊를可히掩護할時
外如함은一二分隊를散開함는事가有함니라

第三百五 戰鬪進歩에從함야最前線火力을增
大함며同時에損害를補充함을要함는此를爲
함야新銳한兵力으로써散兵線을延伸함거나或
其伍間에增加함되此延伸增加는命令下達과射

擊指揮에便利함故로可行한範圍內에서아모조
로此를採用함을要함는然함는伍間增加는屢屢
히行함을不得함는此比隣部隊와連繫한境遇에
서는散兵線을可히延伸할餘地가無함事가多함
緣故라故로中隊는各小隊及分隊의混淆할時라
도精確한指揮를失치안토록教練함을要함는니
라(小隊長及分隊長動作에就함야는第百七十
八를參照함事)

第三百六 全中隊散開는아모조로此를避함거
나或此를遲延함이可함나全中隊가散開할時는

部隊戰鬪 中隊戰鬪

二百七十九

部隊戰鬪 中隊戰鬪

二百八十

攻擊戰鬪에在하야는임의中隊長手裡를脫하고陣地에在하야도坐호此를統一하야指揮호事가難호故로中隊長은아모조로散兵線背後에密集部隊를久保호事에注意호을要하느니中隊長은此로써損傷을補호고攻擊或防禦에援助를與호고或側面의威脅을防支호을得하느니라

第三百七 中隊가散開호時는通常密集部隊로써援隊를編成호고또此中間에更히寡少호援隊를分置호은散兵線에接近하야此를置호이必要호時에만爲限호고又側面掩護를必要호時는特

別호部隊를散兵線一翼後에配置호는事가有호는然호는如斯호區分은恒常弊害가有호므로써例外境遇에만爲限호을要하느니라

密集部隊가散兵線을隔호距離는戰況과地形에從호者니適切호時機에臨하야火線을援護호기에確實케호이可호고其隊形撰擇은地形及敵의火力에關호는니敵으로부터目視될時는橫隊를用호고此外反하야地形에依하야遮蔽될時는縱隊를用호이良하느니라

第三百八 戰鬪를實行호기爲하야必要호境遇

部隊戰鬪 中隊戰鬪

二百八十一

部隊戰鬪 中隊戰鬪

二百八十二

에서는中隊全力을使用하느니此時를當하야全隊를散開하거는或最終時機에密集部隊을可히使川할거슨戰鬪狀況에關하느니如何한境遇에在하든지火力을最高度에達케하야決戰に移하기까지勉하야此를維持함이可하니라

孤立하야戰鬪하는中隊는結局에至하기까지自己의梯隊를川하고且其側面을警戒함이可하니故로攻擊과防禦를勿論하고密集한援隊를備置함이가장適當하니中隊가만일大隊內에서戰鬪할時는攻擊或防禦를勿論하고各種任務에從하

야其隊를區分하느니라

攻擊에在하야는射擊의成果를得후에中隊長의號令으로써敵의陣地中에指示한要點을向하야猛烈한突擊을行하느니라

第三百九 中隊長은中隊戰鬪指揮를掌握하야單簡明瞭한命令으로써小隊長에게部署를示하고且中隊를指揮하기에게장適當한位置에在함을要하고又中隊長은戰場에서諸方法을川하야背後로부터運搬하야來하는彈藥을補給分配할事에注意함이可하니라

部隊戰鬪 中隊戰鬪

二百八十三

大隊戰鬪

二百八十四

大隊戰鬪

第三百十 大隊는四中隊를適當하게區分하여
서各種戰鬪任務에成果를事를得는니라
大隊長은戰鬪를指揮하기爲하여各中隊에任務
를示授하는니誤解或過失을因하여戰鬪를意圖
外에方向으로誘惑을現認할時만中隊中小隊等
에直接干涉하는니라

大隊長은戰鬪初에아모조각各中隊長을面前에
聚立하고單簡明瞭確實한命令을與함이可하
는然하는此實行手段은中隊長에게委任하는니

라大隊長은此原則을服膺하여戰鬪를指揮하고
專히各中隊로하여금互相戰鬪連繫를正保케할
事に努力함을要하는니各中隊도此連繫를確
保하여其任務에成果를事를勉함이可하니라
大隊長은適當할時機에命令을傳할時間과特別
한手段을缺하는事가屢屢히有하는然하는戰鬪
結局에當하여各中隊는適當한位置에在함을要
하는니如何한處所를撰定함이適當하는지豫定
함을得하는니라

第三百十

大隊長은許多境遇에서아모조각

大隊戰鬪

二百八十五

大隊戰鬪

二百八十六

永히諸中隊를悉皆散開케 할事를避함이良하니
諸中隊를皆散開할時는攻擊戰鬪에在함이니임
의大隊長手裡에不在하고陣地에在함이도또
此를統一함이指揮할事가難하니若強大을散兵
線을要할時는其諸中隊를皆使用함이可함이然
하니中隊가各自로其援隊를保持케함이其諸中
隊의過早混淆함을豫防치아니함이不可함이라
第三百十二 大隊는戰鬪目的及地形에從함이
其梯隊區分을規定함이니其間中隊를第一線에
用함는지或一中隊만川함는지將次一 二或三

梯隊로써戰鬪에移함等事에關함이니一般適用
할原則이無함이大隊長은狀況에從함이自由로
此를川히撰擇할지니라

大隊의戰鬪展開는狀況에從함이基準中隊를指
揮하고其線上에서行함거나或前進하면서此를
行함이니第一境遇는甚稀함者——尙此를演習
함을要함이니總히此等方法에就함야는——이라
도摸型을設함이不可함이라

第三百十三 大隊長은許多境遇에서必要할中
隊만展開하고大隊의殘餘는其手裡에貯置함이

大隊戰鬪

二百八十七

大隊戰鬪

二百八十八

良호니假令遭遇戰에서中隊로써戰鬪를開始호고次에一翼에서正面을延伸호기에至호면此에第二의中隊를加入호고次에戰鬪進歩에從호야何翼에主力을用호는지或何翼으로何處를當호等事를知호時는其翼後에殘餘部隊를適當히配置호는等과如호고又四中隊가共同動作의方法과其展開及互相關係는諸般時機에應호야變化호는者니라

大隊長은恒常縱長梯隊를保存호야其必要를詳知호時外에部下中隊를使用호는事가無호면戰

鬪狀況에應호야適當호處置를行호을得호이호고又大隊長은好機에臨호야十分兵力을使用호이可호는然호는總히其使用이早호되失치아니호을注意호이可호니라

第三百十四 展開호大隊運動은其間目標를依호야規定호는者니라

戰鬪間一大隊正面幅은併立호四中隊展開面으로써最大限을삼호는然호는如此호時는大隊長은戰鬪經過中兵力의大部를掌握로부터脫失호事가分明호고又他隊의連繫호時는如斯正面을

大隊戰鬪

二百八十九

大隊戰鬪

一百九十

擴張을 기爲하야展開地를缺하는事가 많고大
隊가孤立하야戰鬪할時는展開할餘地가有할지
라도孤立大隊의戰鬪法으로適當히其正面을狹
小케하고且梯隊距離를深長케함을要하는事가
最多호故로何等境遇를勿論하고戰鬪正面은大
概狹小케함을要하느니라

縱長에梯隊區分을行할必要는防禦陣地에서最
大하고次에孤立하야戰鬪하는大隊及諸種展開
初期에在하느니展開할戰鬪正面이漸漸狹하게
隨하야後翼梯隊는漸漸遠히側方에位置함을要

하느니라

第三百十五 戰鬪를實行하기爲하야大隊長의
可히使用할者는但後方部隊뿐이라此部隊는翼
後에在하거늘或中央後에在호故로大隊長은此
를顧慮하야自己位置를撰定함을要하느니라其第
一線에位置함은例外요通常後方部隊近傍에서
大隊戰鬪를可히通視할地에位置하느니라
中隊射擊에關하야大隊長이屢屢히可行할注意
는火線中需用이最多호地点에彈藥을搬送함이
可하느니라

大隊戰鬪

二百九十一

大隊戰鬪

二百九十二

第三百十六 若豫備에在호大隊가미리他隊火線에依호야準備호攻擊을直接實行호기爲호야招致할時는其密集호야在호隊形을利用호事에注意함이可호니라

諸中隊를狹小호間隔으로開호者는如斯호境遇에가장適當호隊形이니라

聯隊戰鬪

第三百十七 聯隊는敎育一致와將校團結及編制에基호야一單位로諸種戰鬪任務를實行호기에特히適切호者이라聯隊內에서共同動作의意

氣가가장盛호者는其編制는聯隊長으로호야금適當히戰鬪加入에部署호事를容易케호는者니라

聯隊長은各大隊의可히分擔호任務를定호고其實行方法은大隊長에게委任호느니라

各中隊動作에干渉호는特別호境遇에만限호는者는假令下級指揮官의動作이一般目的을妨害호라할時及職域順序에遂호야命令을下호時間이無호時뿐이니라

聯隊長이第一線에可히使用호大隊의戰鬪動作

大隊戰鬪

二百九十二

大隊戰鬪

二百九十四

으로 할야금 其意圖와 如히 行케 할면 防禦에 在
 할야는 各大隊에 戰鬪正面의 地區를 指定하고 行
 進或 攻擊運動에 在할야는 目標을 指示함으로 此
 가 最適當한 方法이라 할나 第二境遇에 在할야
 는 各大隊에 遠히 正面前에 在함 共同 行進 目標을
 示할거나 或 各大隊에 各別함 目標을 授하고 又 某
 大隊에 行進 方向或 攻擊 方向을 示하고 他 大隊로
 할야금 此에 準케 함이 可할니라
 併立함야 戰鬪함는 各隊의 共同 動作을 規定할時
 는 恒常 正面前에서 目標을 指示함에 在하고 決코

正面上 整頓에 不在함故로 戰鬪에 在할야는 各大
 隊의 整頓은 不要함나 然함나 中央或 一翼에 準함
 야 戰鬪를 規定함이 可함 境遇가 생함 屢屢히 有함
 니라

第三百十八 聯隊長이 必要함目的에 應함야 正
 面又 側面에 戰鬪를 擴張할時는 後方 部隊을 使用
 할기 外에 術策이 無함故로 戰鬪 進步에 從함야 展
 開을 要할時 外에는 決코 多數의 大隊을 掌裡로 부
 더 脫함이 不可함나 聯隊長은 如斯히 自己의 擔任
 함 戰鬪地를 主宰함고 且 戰鬪變遷에 應함이 可함

大隊戰鬪

二百九十五

大隊戰鬪

二百九十六

니 특히此方法에從호은敵을包圍호거니或側面
攻擊을防支함이可호고又方向變換은後方大隊
를川치아니호면施行치못호니此는임의戰鬪
中에在호大隊는其正面에固着호야他를顧호餘
暇가無호緣故라凡交戰호部隊가漸漸大호기에
隨호야戰鬪線을偏移호은其困難함을益加호는
者니라

聯隊長이行軍縱長或聚立隊形으로부터第一戰
鬪展開를部署호는디는미리아모조로精密히戰
鬪正面을確定함이可호니此正面確定과比隣軍

隊關係에隨호야正面及後方에用호部隊를指定
호니第一展開에서正面이稍狹호기에從호야
後方梯隊는稍遠호側方에位置호는니라

第三百十九 聯隊 戰鬪에移호는디는行軍縱
隊로行호과聚立隊形으로行호에隨호야大호區
別이有호니行軍縱隊로부터展開호는디는次의
大隊戰鬪地에入호時에先頭大隊는임의全히戰
鬪中에在호者니此境遇에在호야는先頭大隊는
縱長の梯隊區分을行호고次의大隊는行軍長徑
을短縮호기爲호야아모조로速히縱隊隊形으로

大隊戰鬪

二百九十七

大隊戰鬪

二百九十八

移할을 要하느니 聯隊長이 指示하 位置에 進入할 運動間에서 開進할이 可하니라

第三百二十 敵의 正面前에서 側面運動을 行코자하면 敵方에 對하야 適當히 梯隊區分을 施하야 機를 勿失하코 展開하도록 準備치아니하면 十分 安全히 此를 行할을 不得하코 敵의 有効射距離內에 在하야 地形에 依하야 遮蔽치 못하면 側面運動을 施行할을 不得하느니라

第三百二十一 聯隊의 正面幅은 一定치 못하느니라 此 正面幅은 目的地形及 隣接部隊關係에 因하

야 變化하느 緣故라 又 孤立하야 戰鬪하느 聯隊正面幅은 最初에느 併立하야 展開하느 二大隊 正面幅을 超過하느 事가 稀하느니라

第三百二十二 攻擊戰鬪를 實行할에 當하야 一次 展開하 聯隊運動은 直進할이 原則이라 展開後 側方에 偏移할을 要하기에 主할은 最初 展開에서 過誤가 有함으로 此 過誤를 匡正코자하면 後方 梯隊를 用할이 可하느 然하느 此로 由하야 其結果로 하야 恒常 衝突力을 減殺하느 者니라

第三百二十三 聯隊長은 自己 負擔하 任務를 盡

大隊戰鬪

二百九十九

大隊戰鬪 旅團戰鬪

三百

을기爲하야正面에其位置를撰定함을要하니
戰鬪開始할時特히遭遇戰에在하야는前方에位
置함이必要하고又戰鬪實行을指揮하기에當하
야는大概後方梯隊近傍或聯隊展開를可히通視
할地에在함이最良하니旅團內에서戰鬪할境遇
에在하야는其位置를撰定함이旅團長과交通을
確實히保持할事에勉勵함이可하니라

旅團戰鬪

第三百二十四 旅團은一定한區域內에서號令
으로可히運動할最大單位니라

小行李를有하戰時人員一大隊는五百五十米突
의行軍長徑이有하니旅團에至하야는其行軍長
徑이著大하故로戰鬪に移할時는或強行手段으
로行하는事가有하니라旅團指揮는大하展開時
間에關係되는故로戰時人員行軍長徑과寡少호
平時定員比較에注意함이緊要하니라

第三百二十五 旅團長은戰鬪目的에從하야少
하야도一大隊를貯하야豫備로置할必要한事가
屢屢히有하니라

第三百二十六 旅團長은聯隊를併立하야戰鬪

旅團戰鬪

三百一

旅團戰鬪

三百二

케고其戰鬪正面을區分하야聯隊마다其必要
 함에應하야戰鬪加入을規定함이가장便利한戰
 鬪區分法이라하느니라然하느니라此區分法은最初부터
 取함이아니요且此區分法은堅守하기爲하야最
 主要한戰鬪畫策을左右하느니라事가無케함을要하
 느니라

特히遭遇戰에在하야는第一線에서迅速히其展
 開面을擴張함을要하느니라故로先頭聯隊는곳二三
 大隊를第一線에併列함이可하고此境遇에서諸
 大隊는特히縱長の梯隊區分을施함事에注意함

이可하느니라先頭聯隊는次의聯隊로써自己戰
 鬪正面의援助를賴함事를胸算치못하느니라緣故라
 何等境遇를勿論하고聯隊는各其分擔한任務를
 受하고旅團長은其命令을聯隊에만下함事에注
 意함이可하고又諸聯隊의混淆함은弊害가有함
 으로서不得已한時에만限하느니라

故로行軍縱隊에在하야後續한聯隊는許多境遇
 에서一翼後에開道함을要하느니라其狀況이展開
 初에서迅速히正面을擴張함事가稍稍必要함에
 隨하야決戰에加入하기爲하야一翼後에兵力을

旅團戰鬪

三百三

旅團戰鬪

二百四

聚立하야 留호事가 더욱緊要하니라

第三百二十七 旅團長은 其兵力과 戰圖正面沒
行軍長徑이 頗大호 團隊라 故로 諸方向에 對호야
同時에 統一호 動作을 行호되 行進方向에서 展開
호時는 遠히 後方으로 부터 施行호을 不得호고 且
一次 展開호時는 其正面을 側方에 偏移호이 能치
못호니라

大抵 開進호을 指揮호時는 次揭件에 注意호을 要
하느니라 卽各隊는 適時에 其行軍正面을 擴張호고
後方部隊는 續호야 其距離를 前方에 閉縮호야 此

旅團行軍長徑을 短縮호事及 此를 爲호야 各隊는
一般 展開에 無益호 遲滯를 生치 안케호기 爲호야
停止時間를 利用호이 可호事니라

諸聯隊는 戰鬪命令에 依호야 攻擊目標或防禦地
區의 指定을 受호는 者나 其方法이 單一호時는 隨
호야 各隊의 共同動作도 生호單一호게 되느니라
第三百二十八 旅團長은 位置의 撰定을 緊要히
호고 生호모 조록 其位置를 不變호을 要하느니라
旅團長은 戰鬪初期에 其旅團先頭에 在호을 要호
느니라 此는 旅團長이 스스로 敵情과 隣隊狀況及 地

旅團戰鬪

二百五

旅團戰鬪

三百六

形을目擊할事가必要하고報告詳報及地圖을此를補하기에不過緣故라旅團長이先頭에在할時는戰鬪經過에關하여가장緊要하니第一展開를適當히指揮할거시오又適時決心에依하여敵에게對하여利益을占하고我軍隊로하여금迂路를避케하고且所定한方向에軍隊를指導하고先頭部隊指揮官의自恣한決斷을制할을得하니

此와反하여戰鬪를實行하기에當하여는旅團長은旅團全部를監視할만치後方に位置할이必要

하니旅團長은通常스스로使用하기爲하여貯置한部隊近傍에位置하여戰鬪經過를統括하고又次級指揮官에게命令을下할을原則이라하니然하노現況이此原則에據할을不得할時或急速한處置로施行할을要할時는大隊에直接命令할이可하니如此한境遇에는聯隊長에게通報하여互相繼續關係를正히維持할을要하니라

其他戰鬪實行은聯隊及大隊戰鬪에示한原則을從할이可하니라

第三百二十九 一旅團(六大隊)의戰鬪面은第

旅團戰鬪

三百七

旅團戰鬥結論

三百八

一展開에서約千乃至千二百米突이니라

第三百三十 旅團으로써行는諸種運動及戰鬥展開의敎練은廣大한地域을要함으로써此를行는事가最困難하니敎練場에서는戰鬥各時機의經過를演習는것보담想定을變換하고諸種展開法을屢히演習함이可하니蓋各種目的에應한梯隊區分의演習은旅團敎練에서極히緊要함者—요는戰鬥實行의演習은아모조록此를野外에서行함이可하니라

第三章 結論

第三百三十一 操典制式及原則의單一함은敎練의善良한基礎니라

此制式及原則은全軍步兵敎練에必要한齊一를得케하고且其單一함기爲해야動員時를當해야豫備役及後備役等兵卒를召集할時에少時日間에再次習熟케할事를得하니此制式及原則의實踐은野外와戰場을勿論하고狀況의許함을限해야練兵場에서行는敎練과갓치十分嚴格을保存할事に注意함을要하니라

第三百三十二 既述한戰鬥要領은敎練에諸種

結論

三百九

結論

三百十

變化를與스는者니此를略言하면야모조로簡易
 을戰況想定으로써攻擊防禦退却或包圍를行하
 되其翼은他隊或地形에托하거나或依托지안코
 展開原則을實施하고又方向變換을行하며또一
 의戰術動作으로부터他戰術動作에移하는等을
 練兵場에서地形을利用하며或利用치안코演習
 케함이可하니라

第三百三十三 諸隊長은豫定호教育期에서操
 典의諸原則을演習하는責任이有하니屢屢히狀
 況을變更하야서戰術의教育을進歩케함을要하

느니其一定호戰鬪模型을訓練함과如함을嚴禁
 하느니라

第三百三十四 檢閱에當하야는上官으로부터
 問題를課함을要하느니此方法에依치아니하면
 上官된者가軍隊及各級指揮官의戰術上習熟程
 度에關호야判斷을得지못하느니라

第三百三十五 操典制式及原則은最單一호狀
 況에만基호考니敵前에서는時機에從호야屢屢
 히此를變更호事에銘心함이可하니戰鬪形勢가
 此를要할時는諸指揮官은各其職域에應호야適

結論

三百十一

結論

三百十二

巡視 말고 迅速히 各時機에 適應호 部署를 施호 事
에 慣熟함이 可호니 不爲호 誤疑호는 것은 其方
法의 機變을 誤호는 것보담 尙大호 危險에 陷호 事
를 恒常腦裡에 銘호고 且一定호 制式을 守호 事에
만 顧慮호 時는 決코 現況에 適當호 處置를 行치 吳
호 事에 注意함을 要호느니라

第三百三十六 諸演習及全教育期의 經過間에
서 步兵으로 써 攻擊호기 好호 氣象을 發揚호고 且
此를 養成호 事에 注意함이 可호니라
若干射擊界를 有호고 且其狀況이 迅速히 決戰을

行함을 要치아니 호 時는 步兵은 停止호야 靜肅히
行호는 射擊의 鴻益을 收호 事를 勉함을 要호느니
故로 步兵은 如何호 時機던지 戰鬪變化에 隨호야
速히 火力을 熾大케 호 事를 勉호然後에 敵兵을 猛
烈且有効히 突擊호도록 慣習함을 要호느니라

第三百三十七 野外에서 大部隊演習에 在호야
도 坐호 適當히 兵力을 愛惜호 事에 顧慮함을 要호
느니 此要旨는 各指揮官이 居常에 服應호 者라 必
要호 時機를 當호야는 愛惜호 事가 毫無호니 此를
使用호야 過劇호 勞働을 行치아니 치 吳호 事가 有

結論

三百十三

結論

三百十四

을緣故니라

第三百三十八 戰鬪範圍가廣大호기에隨호야
各指揮官이獨斷餘地가漸大호者니各指揮官의
注意호全體範圍內에在호야自己特別任務에成
果호을爲호고瑣事監督을後에호이可호故로
目的을達호기爲호야各部로써同一手段을川케
호과如호은其價値가毫無호者호然호호下級指
揮官에게與호獨斷餘地호决호上級指揮官意圖
外에出호을不許호고且同等境遇를不論호고軍
隊戰術上順序와結合을保持호을要호호니라

第三百三十九 諸兵連合演習及其連合을想定
호戰鬪演習에在호야호戰術上에更호幾多狀況
을呈出호고又此에要호决斷은遠호操典範圍外
에出호者호蓋操典은戰術學을網羅호者가아니
라但可호基本法則을示호은이호然호호軍隊
호演習을因호야操典原則을詳悉호면實戰에서
諸般任務를可호盡得호호니軍隊가若戰爭要求
를充足호호고且練兵場에習得호호를戰場에서
决호忘却지아니호時호正確호要旨에基因호敎
練結果라謂호지니라

結論

三百十五

結論

三百十六

步兵操典 終

附錄

軍旗迎送

總則

第一 軍旗迎送은 聯隊甲의 一中隊와 一大隊의 鼓手喇叭手로써 行하느니라 此를 軍旗中隊라 稱하느니라

第二 軍旗를 誘導하느니는 古參副尉一人及 護衛下士二名을 用하느니라

第三 聯隊가 直接으로 軍旗所在 家屋前에 整列할時는 特別히 軍旗中隊를 部署하느니라 事가 無하고

軍旗迎送 總則

三百十七

軍旗迎送總則軍旗奉迎 三百十八

旗手が軍旗を捧持せし古參副尉及護衛下士が共に指定時刻に家屋を出て捷路を経るや其位置に主とし右の整列を聯隊に第七の方法으로써敬禮を行はすなり

第四 長程行軍を行は後し旗手及護衛下士外に將校一人及一分隊으로써無妨せしなり

第五 軍旗中隊に軍旗敬禮を行は境遇外에는何人を見對せし敬禮を行は事が無しなり

軍旗奉迎

第六 軍旗中隊に鼓笛を奏せし事いし側面行

進を行はし鼓手喇叭手は中隊先頭に在るや行進せし軍旗所在家屋前に到るや横隊を作はし此時に鼓手喇叭手は中隊右方に位置せしなり

旗手が同行할時し鼓手喇叭手後方に在るや行進할이可しなり

於是に中隊長은古參副尉及護衛下士二名을中隊中央前に聚立케せしなり

古參副尉に護衛下士를領率せし旗手와家屋内に人々야軍旗를迎ふなり

軍旗奉迎

三百十九

軍旗奉迎

三百二十

第七 軍旗中隊는銃에着鎗하고軍旗의出을待하며旗手는古參副尉及護衛下士二名과共히軍旗를捧持하고其家屋을出하여中隊에面하여停止한다(此時古參副尉는旗手左方에位置할事)中隊長은其捧銃을行케하고自己는刀로써敬禮한다(此時에尉官准士官은刀로써敬禮하고正校는捧刀하며鼓手喇叭手는「足曳」譜一回를奏한後에中隊長은立銃을行케한다(此時에尉官准士官及正校는肩刀하고次에中隊長은中隊縱隊를作하며旗手는左右에護衛下士各一名을

率하고先頭小隊와鼓手喇叭手間에位置한다(於是에古參副尉는其定位에復한다)니라次에中隊長은其中隊로하여금行進을起하며同時에鼓笛을吹奏케하고中隊長은軍旗前方에在하여行進하며聯隊聚立場에到着한다(若道路가狹隘하여中隊縱隊로써行進할事가不能할時는側面行進으로써行함이미한다(此時에中隊와中隊長位置는前項과無異한다)니라第八 軍旗中隊는聯隊聚立場에到着하여聯隊를距하기五十步處에位置한다(聯隊長은其聯隊

軍旗奉迎

三百廿一

軍旗奉迎

三百廿二

로호야금銃에着劍호고捧銃을行케호니此時에將校及准士官은刀로써敬禮를行호고正校는捧刀호며鼓手、喇叭手는足曳譜一回를奏호고聯隊長은聯隊中央前三十步處에至호야停止호고旗手는護衛下士二名을領率호고聯隊長으로부러十步處에至호야此에面호니於是에聯隊長은軍旗에對호야敬禮를行호니此를畢호면旗手는其定位에就호고護衛下士는軍旗衛兵과遞代호야其所屬中隊에復호고聯隊長은立銃을號令호니此時에將校、准士官及正校는肩刀호

고軍旗中隊는鼓笛을吹奏치안코聯隊定位에就함이可호니라

軍旗奉送

第九 軍旗奉送은奉迎할時와反對順序를從호야同一호方法으로써行함이可호니라

軍旗捧持法及敬禮

第十 旗手が列中에在호야停止或行進할時에軍旗를捧持호는디는旗繳를右腕骨上에着호고右肘를後로호며旗頭는僅히前方에傾호니니라

第十一 軍旗敬禮를可行할時는次の方法을從

軍旗奉送 軍旗捧持法及其敬禮 三百廿三

軍旗捧法持及奉敬禮 軍刀持法 三百廿四

함이 가능하니라

軍旗가受禮者를距하기六步處에서旗手는右手를旗竿에沿하야眼高에上하고旗鐵를右腕骨로부러離치말고右手를前方에十分伸하야不亂旗竿을水平되게하느니受禮者를過하기六步處에至하면軍旗를起立하야定規捧持法에復하느니라

軍刀持法

第十二 軍隊를指揮하느將校와隊伍에列하將校、准士官見習士官及軍刀를佩用하下士는拔刀

하느니但副官은除하느니라

第十三 右手를刀緒에貫하야刀柄을右手拇指와食指、中指間에保持하고他二指를刀柄背에着하되其手를右腕骨稍下處에接着하고刀身를垂直히立하야刀背를肩의凹部에托하고臂를微屈하며肘를後로하느니라

乘馬將校軍刀保持法도亦如하느니但右手를右腰上部에置하고刀身를조금後方에傾함이異하느니라

第十四 徒步帶刀者가行進間은右手로써刀鐔

軍刀持法

三百廿五

軍刀持法

三百廿六

을持우고手甲을前으로하며右臂을垂우고刀身
 을垂直히어야肩의凹部に托우고左手로써劍鞘
 를握우고手を振動하느니라

□ 譯者紹介

學歷 및 經歷

서울中·高等學校 卒業(10회)
陸軍士官學校 卒業(19기)
東國大學校 經營大學院 修了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責任編纂委員
國防軍史研究所 責任研究員(1996~現在)

主要 論著

韓國戰爭, 休戰史(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9)
韓國戰爭戰鬪史, 白石山戰鬪(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韓國戰爭戰鬪史, 蘆田坪戰鬪(국방군사연구소, 1992)
韓國戰爭 被害統計集(국방군사연구소, 1996)
6·25戰爭의 休戰協商과 그 敎訓(國防誌, 7, 8월호, 1990)
韓國戰爭 休戰의 歷史的 再照明(軍史誌, 제26호, 1993)

步兵操典 大韓帝國軍事敎範集①

1998년 8월 25일 인쇄

1998년 8월 29일 발행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1가 8번지
발행처 國防軍史研究所
발행인 박 淳 贊
인쇄처 (주)정 문 애 드 컴

〈非賣品〉

본 저작물의 복제, 복사 또는 인용시에
국방군사연구소장의 승인을 득할 것